



3

1987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7. 3호

(루계 473)



## ◆◆◆◆◆◆◆◆ 차 례 ◆◆◆◆◆◆◆◆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위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	4
1987 년-1993 년 .....	6
새 전망을 받아안고 .....	7
심장으로 .....	8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 .....	9
내가 지킬 땅은... ..	9
내 삶의 품 .....	10
내 삶의 순간순간은... ..	11
남산의 소나무 .....	11
그날의 새벽길에 이어 .....	12
금강의 길 .....	13
영생의 품 .....	15
온성지구의 밤 .....	17

불타는 강 건너적 내 없어도.....	17
80년대 성격의 혁신적특징.....	18
(속)(담)(풀)(이).....	26
밀 뿌리.....	27
천리마의 고향.....	32
천리마여, 너와 함께.....	33
언제나 이맘때 쇠물이 끓을 때면.....	34
현실에 대한 생각.....	35
교대전 짧은 순간.....	36
내가 사랑하는 고장을 두고... ..	37
전선길.....	40
지향.....	47
추억의 집.....	58
출장지에서.....	60
정발의 최후.....	70
한줌의 흙을 쥐고.....	80

##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위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변함없이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신 무한한 감격으로 들끓고있는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앞길을 휘황하게 밝혀 주는 위대한 강령을 받아안은 흥분과 기쁨으로 하여 높뛰는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는 주체사상으로 찬연히 빛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대한 강령으로서 **《ㄷ, ㄷ》**로부터 개척된 우리 혁명위업완성의 력사적리정표이다.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맞게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는 이 력사적인 연설이야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인민의 투쟁에 새로운 전망을 펼쳐준 휘황한 등대이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계속혁명에로 힘있게 추동하는 전투적 기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는데서 오늘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당면한 투쟁과업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완전승리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적기치를 받아안은 우리 인민은 새로운 전망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희망찬 새해 1987년을 뜻깊게 맞이하고 새 진군의 첫걸음을 힘있게 내디디였다.

1987년은 새로운 웅대한 전망계획인 제3차 7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서는 첫출발점이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과 같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제3차 7개년계획에 제시한 전례없이 높은 목표를 단숨에 점령할 기세로 새해의 첫 전투에서부터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힘차게 내달리며 이 땅위에 또다시 세기적변혁을 이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작가들도 이에 발맞추어 정의의 필봉을 높이 들고 새해의 창작에 진입하였다.

새 진군에로 부르는 돌격의 나팔소리인양 혁명적인 시인들의 격조높은 투쟁의 노래가 울리기 시작하였으며 소설가, 극작가들은 현실속에 뛰어들어 육박의 창끝인듯 창작의 붓을 다듬어쥐고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절실한 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주기 위한 사색의 세계를 펼치고있으며 격동적인 시대가 낳은 새로운 인간성격을 그리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있다.

새 전망에 고무되어 투쟁의 필봉을 높이 추켜든 우리 작가들은 이해에 과연 어디에 창작적주목을 돌릴것인가.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위대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고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형상하는것은 우리 시대 작가들의 필생의 과업이고 가장 영예롭고도 숭고한 임무이다.

우리는 수천년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우러러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형상에 바쳐진 사상에술적으로 완벽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개척되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의하여 완성되여가는 주체의 혁명위업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차고 긍지높은것임을 가슴뜨겁게 받아안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이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또하나의 획기적인 사변이며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로정에서 중요한 리정표로 된다.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혁명에서 승리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30년간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은 우리가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해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이 력사적인 시기에 태어나고있는 새로운 인간들의 전형을 불멸의 형상으로 그려내야 하며 이 시대를 특징짓는 전형적인 생활들을 불멸의 화폭으로 남겨놓아야 한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기본문제는 사람과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것이다.

로동계급이 스스로 내세운 이 력사적과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농촌테제가 관철되여 우리 나라에서 농촌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될 때 빛나게 수행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마땅히 여기에 창작적관심을 돌리고 협동적소유가 공고발전되여 전인민적소유에로 전환되는 력사적과정속에서 발현되는 새로운 인간문제를 골라잡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 새시대의 인간전형들을 빛나게 창조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오랜 세기를 거쳐온 농민들이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되는 사상정신

적변화과정을 감동깊게 그려낼수 있는 행운은 우리 시대 작가들이 지닌 커다란 영예이며 긍지이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무계급사회가 실현되는 역사적전환기를 목격한 증견자로서 후세에 길이 전할수 있는 빛나는 화폭들을 책임성있게 창작하여야 한다.

제3차 7개년계획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역사적과업이다.

이 과업이 실현되면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더욱 강화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이룩될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제3차 7개년계획의 첫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198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불꽃튀는 전투장에 대담하게 뛰어들어 현실생활이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초미의 문제를 제때에 찾아쥐고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생활속에서 만사람이 따라 배워야 할 새로운 성격들을 빛나게 창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온 사회를 자신의 모양대로 개조하기 위하여 자기의 역사적사명을 다하고있는 로동계급의 빛나는 전형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조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각이한 초소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드림없는 신조로 삼고 아버지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수행에서 순결한 충성심을 남김없이 바쳐가는 우리 시대의 전형들인 로동계급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함으로써만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우리 문학이 힘있게 기여할수 있다.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수립된 80년대의 성격, 로동계급의 새로운 전형을 창조하여야만 우리 문학이 시대앞에 지닌 의무를 수행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제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힘있게 다그치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문학앞에 과학자, 기술자들의 전형을 더 많이 창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그리는 경우 과학기술적문제, 생산문제가 필수적으로 제기되기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생산문제, 과학기술적문제를 놓고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에 집착할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립장과 태도, 과학기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맺어지는 사람들의 정치사상적, 문화도덕적 관계를 밝히는데 힘을 넣음으로써 인간문제와 생산기술문제의 호상관계를 인간하의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을 그 어떤 실무적인 인간으로 그릴것이 아니라 높은 지성세계를 가진 혁명적인테리, 공산주의적인 인간전형으로 생동하게 그려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완성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이다.

우리는 3대혁명수행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선구자들을 형상하는데 각광을 집중하여야 한다.

3대혁명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우리 근로자들속에서 새로운 시대적전형들인 수많은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이 배출되였다.

우리 시대의 지향을 안고있는 이들은 사회주의 사회의 인간들이 지녀야 할 높은 사상정신세계와 룰리도덕적풍모를 갖고있을뿐아니라 새로운 인간 문제들을 수없이 제기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을 형상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고 그 사상에술적수준을 높임으로써 빛나는 시대의 전형창조로 3대혁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시정연설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한 새로운 제안들을 내놓으시고 밝은 전망을 펼쳐놓으시였다.

우리 작가들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반영한 작품창작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이 성스러운 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자주, 친선, 평화를 념원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단결에 이바지할수 있는 문학작품창작에도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 나서고있는 과업은 참으로 무겁고도 방대하다.

그러나 이것은 영예롭고도 숭고한 임무이다.

우리 작가들은 사회생활의 대변자이며 인간정신의 기사라는 높은 칭호를 안겨준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들끓는 생활과 투쟁속에 깊이 들어가 시대의 맥박과 숨결을 심장으로 체험하면서 다양한 주제의 문학작품들을 높은 사상에술적수준에서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위업수행에 이바지하며 격동적인 시대가 안겨주는 숭고한 사명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 1987 년-1993 년

차승수

내 너의 하루를  
남들이 살아가는 한해와 바꾸지 않으리  
내 너의 7 년을  
다른 땅에 흐르는  
70 년 세월과도 바꾸지 않으리

얼마나 황홀한 나날들이  
보석을 뿌린듯 내앞에 펼쳐져있는가  
얼마나 가슴 벅찬 하루하루가  
보화의 대문처럼 내앞에 열려질것인가

1987 년-1993 년

너의 나날속에 있으리  
해쫂는 저 농장벌이  
전민소유제의 지붕아래 들어서는 그 새벽도  
오곡을 가꾸는 농장원들의 발걸음  
로동계급 행렬속에 합쳐지는 그 아침도

너의 나날속에 있으리  
바다를 밀어낸 저 수평선 한끝에  
30 만정보의 표말을 박는 소리  
뜨거운 감격의 합성과 함께  
공산주의 하늘가로 메아리칠 그 저녁도

너의 나날속에 있으리  
새로운 대비날론기지의 탄생과 함께  
행복한 이 땅에 차고넘칠  
아, 기쁨 넘친 웃음소리

오랜 세월 바라던  
행복의 문을 다 열고  
조업식과 개통식의 테프를 끊으며  
너의 나날들은 우리앞에 마중오리  
저 거리와 거리에 잇대어  
락원의 창문들을 새로 열며

아, 남보다 먼저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문어구로  
우리 인민을 불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설계도여

너를 받아안은 가슴들  
용암을 안은 화산같이 끓고있거니  
당이 부르는 그 길이  
천길막장이라면  
퍼올리고 퍼올려도 진할줄 모르는  
그 충성심의 높이로 땅우에 쌓으리  
《검은금》의 메부리를

당이 부르는 그곳이  
강물을 가로막는 초소이라면  
이 몸이 콩크리트언제로 굳어져서라도  
이 나라 강줄기들을 다 모아  
전류의 흐름으로 이어놓으리

남들이 몇세기를 걸어온  
공업화의 언덕우에  
14 년의 해와 달로 날아오른것처럼  
우리는 올라서리  
사회주의완전승리의 희망찬 봉우리로

내 조국 력사우에  
가장 큰 전변의 구간으로  
빛을 뿌릴 년대여  
누구나의 한생에  
가장 빛나는 위훈의 나이로  
새겨질 년대여

먼 후날 후대들도  
700 년의 앞날을  
7 년에 다 모아 살았던  
충성의 구간으로  
너의 년대를 빛나게 새겨안으리라

1987 년-1993 년이 여 !

# 새 전망을 받아안고

최장수

지심 깊이 울리는  
발파소리는  
힘찬 첫 진군의  
북소리인가

철의 지구 하늘가에  
붉게 펼쳐진 쇠물노을은  
장엄한 대오앞의  
기폭은 아닌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향하여  
또다시 펼쳐진  
새 7개년의 첫 기슭에서  
큰 걸음을 내디딘 나의 조국이어

이 진군속에  
우리의 협동벌은  
전민소유제의 황금벌로 펼쳐지고  
기대와 기대 사이로  
로보트들이 들어서리니

아, 생각만해도 가슴부푸는  
희망찬 진군의 첫 ,기슭이어

새해 벽두부터  
힘차게 달리는 이 한길우에서  
조국은 새 세기의 령마루로  
나래쳐오르리라

휘황한 새 전망을 받아안은  
우리의 발걸음은 나래쳐오른다  
조국이어 !  
3대혁명붉은기 힘차게 날리며  
다시 한번 비약의 큰 나래 펼치자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80년대의 진군을 더욱 즐기차게 다그쳐가자

어버이수령님을  
또다시 국가주석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통일단결된 우리의 대오  
진군의 앞길에  
계급없는 사회의 눈부신 해돋이가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나니

앞으로 !  
새 전망을 향하여  
조국이어 앞으로 !

# 심장으로

박창민

꽃향기 넘친 공장구내길로  
어버이수령님께서 들어서시여라  
달려와 달려와 안기는  
영예군인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손도 다정히 잡아주시고  
어깨도 대견히 두드려주시며  
걸음 옮기시던 수령님  
한 영예군인앞으로 다가서시여라

-조국을 위해  
두눈을 바친 동무구만  
자, 그 손을 좀 잡아봅시다!

오, 뛴뛰는 심장을 세차게 흔들며  
분명 들려오는 자애로운 그 음성!  
가슴에 흘러드는 뜨거운 그 은정!

-최고사령관동지!  
숫구치는 걱정 참을길 없어  
수령님 품에 얼굴 묻은  
전사의 어깨 행복에 물결치여라

그이의 크나큰 은정  
심장에 흘러들고  
오랜 세월 상실했던 두눈에  
위대한 사랑의 해빛이 비껴  
전사는 뵈고있는것이어라

따사로운 그 손길이  
빛을 주고 정기를 주어  
전사는 뵈는것이어라

언제나 마음속에 계시는  
그이의 인자하신 영상을

가렬한 1211 고지전투에서 두눈을 잃고도  
결사전에 나갔던 전사  
가슴속 분노는 더욱 끓어  
전호를 떠나지 않은 전사

조국의 맑은 하늘  
고향의 풍요한 들판을  
침략의 포성으로 흐리려드는  
아직도 그날의 원쑤가 있는 한  
일손을 놓을수 없다는 전사  
수령님께선 한품에 안으시고  
뜨겁게 말씀하시여라

-고맙소, 영예군인동무!  
이렇게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고있는  
동무들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오  
동무들은 혁명의 붉은꽃이요!

아, 그 믿음  
그 해빛같은 사랑이 있어  
전사는 광명을 잃지 않았다  
가슴속 가장 깊은곳  
피 더운 심장으로 그이를 받드는 전사는

오, 심장으로 그이를 모시고 사는  
그대 어찌 광명을 잃었다고 하랴  
혁명의 꽃으로 피어  
영원한 삶의 빛발속에 안겨있는데야



#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

꼬그다 데르

싸움의 나날 흘러  
해방의 기쁨 맞이하고  
혁명의 기상 내려쳐라

푸른 들은 인민에게 열매를 안겨주고  
훌륭한 학교들은 주체교육의 대문 활짝 열었어라  
공장들은 쉬임없이 돌아가  
사람들의 살림 풍만하여라

생명수 흘러넘쳐 어머니조국의 대지를 적시고  
땅속에 가득찬 보물은  
나라의 위력으로 빛을 뿌리거니  
아름다운 산천 또한 신비경을 자랑하여라

꽃피는 조선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열매  
**김일성**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민의 행복 위해  
한평생을 바쳐가시거니  
그이의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현실을 낳았어라

그이의 주체위업을 이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과 건설의 승승장구를 담보하시여라  
사람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을 노래하며  
그이께 깊은 경의를 드리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은 그이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라  
그이의 탄생기념일을 축하하여라

(필자는 부르끼나파쏘 혁명수호위원회,  
대외관계국 지도원)

# 내가 지킬 땅은...

박해출

내 생각했노라  
군복을 입을 때  
명령과 전투또 명령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는 병사생활을

생각했노라  
나에게 맡겨진 한구간  
조국의 그 전호를 굳건히 지키리라고

허나 전초선을 떠난  
그날로부터  
여기서는 한치한치 파도와의 싸움  
밤에도 때없이 돌격나팔소리 .  
사납게 밀려드는 밀물과의 싸움터

덜치며 달려드는 파도앞에서  
허물어져 내려가는  
제방의 한줄 흙을 안아지킬 때  
참기 어려운 강행군이라  
힘겨운 창격전에 비기라

거치른 파도속에서  
한줄의 흙  
한치의 땅을 안고일어섰을 때  
어깨의 령장은 얼마나 불탔던가

맡겨진 땅만 어이 지키라  
감탕에 뛰어들어 바다를 밀어내며  
심장으로 지키고  
땀으로 넓혀가는 간석지

피로 지킨 땅  
고지를 타고앉은 기쁨인듯  
제방을 타고앉아 발을 잠그니  
등근달도 병사의 담력에 눌리운듯  
내 발을 따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흐뭇하구나  
눈뿌리 아득한 간석지 새땅이여  
내 땀이 스민 너를 보며  
생각하노라  
병사가 수호할 조국땅이 넓어진다고

# 내 삶의 품

강수명

밤은 깊어가는데  
사색의 부드러운 날개는  
어느덧 포근히  
나의 몸과 마음을 감싸안아라

내 이 땅우에  
생을 받아안고 태어나  
걸어온 행로는 길지 않아도  
이 밤처럼 이렇게 깊이  
생각해본적 없어라  
내 삶이 꽃피는 그 품에 대하여

인류가 생겨 지구우에 수천만년  
날과 더불어 흘러온 그 세월속에  
수많은 학자들, 철학자들이  
인간의 생명과 삶에 대해  
얼마나 말해왔던가

생명은 불꽃이라고  
생명은 령혼이라고  
저저마다 생의 진화에 대하여  
이 세상에 남긴 그 기록들...

내 삶은 어디에서 꽃피어나는가  
내 심장속에  
끓는 피를 더해주는  
그 따사로운 해빛은

세월은 흘러  
20 세기에 인류는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정치적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나니

나의 가슴속에 뿌리내린  
새 생명의 그 씨앗  
그 씨앗속에 움터오른  
내 삶의 꽃망울이여  
그 꽃망을 피워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는 사랑이여

그 사랑은  
나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고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과  
진할줄 모르는 힘을 키워주는  
따뜻한 봄빛

위대한 그 사랑안고  
조국 떠나 머나먼 나라  
그 어디에 가도  
누리는 나의 행복 하늘처럼 끝없었다면  
그 행복이 꽃피어나는곳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따사로운 품

그러기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인자하신 그 음성 들릴 때  
내 가슴속엔 봄물결 차넘치고  
자애로운 그 미소  
누리에 찬연히 비길 때  
하늘땅 가득  
꽃들은 빛발에 싸여 향기를 날리어라

아, 지구우에  
인류의 영원한 봄을 꽃피워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그이는  
인류의 새 세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영원히 우러러따르며  
공산주의 새날을 맞이하러니

아, 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속에  
안긴 전사는  
영생의 꽃으로 피어나고있어라

## 내 삶의 순간순간은...

주광남

찬물 한사발 떠들면  
배앓이하겠다 굳이 승냥그릇 들려주고  
홀홀 불며 마시라 조용히 이리시던  
어머니의 그 눈빛 나를 지켜보는가

나의 합숙방  
물 한고뿌 따라들어도  
생각은 뜨거움에 젖어들어라  
용해공들에게 찬물을 먹여선 안된다고  
주전자의 물까지 해아려주신  
그 은정

창문에 두툼한 문장보  
공장의 소음을 막아주고  
밤일 마친 한낮에  
고요히 꿈속으로 나를 이끄나니

그런 순간엔 더더욱  
눈에 삼삼하더라  
용해장에 웃는 자동화의 신호불빛들...  
즐거움에 넘친 우리 일숨씨 지켜보시던  
은정 어리신 그 영상  
지금도 내곁에 웃고계신듯

쇠물 뽑으며 땀 흘릴가보아  
시원히 불어주는 찬바람결에도  
가슴은 후터워지더라  
부드려우신 그이 손길  
그날처럼 내 어깨  
다정히 쓸어만지시는듯

아,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주하는 모든곳  
합숙식당의 식탁앞이라  
쇠물 터치는 출선구앞에라  
나를 기다려있는 은혜의 손길이어 !

뽑아낸 쇠물의 톤수보다  
우리 마시는 탄산수맛을 먼저 헤아리시고  
철의 기지 높은 숨결에 앞서  
용해공들의 단잠에 마음더 쓰시는  
친어버이사랑이어

생활의 즐거움에  
로동의 희열에  
벗들과 함께 웃고 떠들다가도  
때없이 눈시울 적시며  
감격에 목메인적 그 얼마였던가

우주공간에 공기가 가득차있어  
세상만물 삶을 누리듯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 그 어데든  
그이 사랑의 훈향 가득차있어  
내 삶의 순간순간 행복으로 이어지나니

포근한 잠자리에 잠못들어 뒤척이며  
하얀 베개위에 행복의 눈물 젖을 때도  
교대에 세차지 쇠물량 넘치고도  
뜨거움에 젖어 우러르는 그 영상

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 -  
내 삶의 순간순간은  
그이에게로 이어지노라

## 남산의 소나무

김일광

잎푸른 가지엔  
오가는 세월이  
몇몇해나 감졌던가  
그래도 너는 푸른 소나무

말해다오  
너의 가지우에 새 잎이 돌아나고  
너의 머리우에 새들이 노래부를 때  
그것이 양춘을 실어온 세월이었던가

력사의 소나무여  
내 지금  
너의 가지밑에서  
해빛 쏟아지는 창공을 향해 바라보나니  
소나무, 너의 그 기상  
푸르려 영원하구나  
《지원》의 그 뜻이 너에게 깃들어...  
소나무여  
가지를 굽혀 세월을 굽어보라

만고풍상 찬서리속에  
민족이 울고 나라가 통곡할 때  
너는 머리우에 백설을 날리며  
의분을 토했고  
그 모진 세월속에서도  
푸른 절개만은 빼앗기지 않았거니

너는 알리라  
너의 그 굵직한 벗은  
력사의 새벽길로  
겨레들을 깨우쳐 이끄시던  
김형직선생님의 원대한 그 뜻을...

-뜻은 멀리에  
내 대에 다하지 못하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다하지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를 독립하리라 !

소나무여, 남산의 푸른 소나무여 말해다오  
내 오늘 네앞에  
몇번째로 다가선 이 나라의 후손인가  
나의 머리우에  
너의 그 푸른 가지를 엮어다오

나는 저 하늘끝  
아득히 먼곳을 보고 싶다 !

그곳은 세기의 먼 하늘가  
예나 다름없이  
우리 가슴에 《지원》의 뜻 새겨주며  
걸으시는 선생님의 발자욱소리  
나를 불러, 후대들을 불러 이끄시는듯

푸르른 소나무의 그 설레임소리-  
혁명의 높은 뜻 어리어  
세기를 불러 기폭처럼 나뭇기나니  
소나무여, 그 언제나  
내 한생을 걸어 가닿아야 할 먼곳을  
푸른 가지 높이 들어 가리켜다오!

오, 소나무여 남산의 푸른 소나무여  
정녕 이 땅우에  
천년이 가고  
만년이 흘러간대도  
세월은 너의 머리우에  
백발을 엮지 못하리니  
너는 영원한 조선의 푸른 소나무

## 그날의 새벽길에 이어

림철삼

독립연의 그날  
다시 만나자고  
산전막로인에게 남기시는  
선생님의 말씀은 그대로  
조국앞에 남기시는 약속이었다

따라서며 따라서며  
선생님의 옥체는  
개인의 몸이 아니오라  
겨레의 몸이라고 아뢰이는  
로인의 말은 그대로  
조국에 올리는 부탁이었다

살얼음낀 하산포 여울  
눈보라치는 그 새벽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기어이  
압록강을 건느셔야 하셨으니

눈덮인 산밭  
가야 할 험산을 앞에 두고  
장대에 의지하여 배밀이로 건느신

그날의 그 한치한치에  
얼어붙은 조국땅을  
다 안아보시는 마음이였으니

뼈속까지 얼어드는 강추위도  
두다리의 심한 동상도  
선생님의 걸음을 지체시키지 못했다  
단 한분 그이의 걸음따라  
민족이 따라서고있었기에

이 땅을 옥죄인  
철쇄를 부시려  
결연히 시련을 헤쳐가시는  
김형직선생님의 자욱이 있어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눈속에서도  
푸른 정기를 간직했나니

아, 눈오던 그 새벽  
겨레의 몸 민족의 운명이신  
김형직선생님 헤쳐가신 그 자욱에 이어  
민족 자주를 려명은 밝아오고있었다

## 금강의 길

김영근

옥류동...  
옥녀봉...  
금강의 일만경치 다 안아보며  
내 구룡폭포로 오르는 길

여기서  
그날에  
김정숙어머님께서  
오르시던 발걸음 돌리셨구나

옥류동의 단풍도  
어머님 반겨 금강을 단장하고  
팔담에서 뛰어내린 폭포수도  
금문교에 달려와 무지개를 피웠건만

절경의 마중속에  
이 길을 오르시던 어머님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위해  
신계다리 여기서 발걸음 돌리셨으니

송구하구나  
그날에 어머님 남겨두신  
이 금강의 꽃길을  
내 먼저 걷는 마음

옥을 찢는 폭포소리 가까울수록  
가슴속엔 뜨겁게 젖어오누나  
순간도 친위전사의 자리 비울수 없으시여  
발걸음 돌리시던 어머님의 그 마음

아, 눈보라 만리길 헤치시여 찾아오신  
해방된 금강의 이 길이었던만  
한참이면 다 오르실 이 길을 앞에 두시고  
충성의 새길을 열어가신 어머님

티없는 마음속에  
어머님 남겨두신 이 길이여서  
돌 하나, 물 하나 꽃 한송이가  
이리도 정갈하고 아름다운가

어머님 충성의 마음  
자옥자옥 새겨진 이 길을 오르니  
한생에 간직할  
빛나는 자옥이 가슴에 찍혀오네

아, 구룡폭포로 오르는 길  
걸음마다 어머님의 송고한 마음 안겨와  
내 오르는 한걸음의 높이가  
하늘처럼 아득하구나

## 땅과 나

강립석

내 나이 열다섯이던  
1946년의 그 3월  
우리 집 옷방에서는  
마을의 농민들이 밤을 밝히곤하였다.  
무엇인가 엄숙하게 이야기도 하고  
방안이 떠나갈듯 웃기도 하면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장지문틈으로  
가만히 엿보며 나도 허리띠를 졸랐고  
부엌에서 밤참을 지으며 어머니도  
성수가 나서 김치를 썰었다

뒤뜰안의 복숭아나무에 새움이 트던 아침  
이름 석자 써넣은 패말을 안고  
아버지는 어린 나를 논으로 이끌었다

《어서 박아라. 팡팡 박아라

이제는 내 땅이다. 우리 땅이다》

눈이 녹는 두렁우에 눈물을 떨구며  
말없이 내 손을 잡는 아버지의 그 꺾꺾한 손은  
어찌신지 햇شم처럼 부드러웠다  
무엇인가 크낙한 이랑이 내 가슴에 물결쳤다

락동강을 앞에 둔 참외밭의 전호에서  
내가 받은 어머니의 편지는  
나의 가슴에 못건딜 분노의 물결을 안기였다

《우리의 논을  
원쑤의 폭탄이 파헤쳤구나》

세월은 흘러  
지금은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나와 논, 나의 밭에 대하여

그러나 나는 잊지 못한다  
나의 땅 나의 땅이라 그리안으며  
패말을 박던 아버지의 그 망치소리  
마치 나의 행복이 시작된  
리정표와도 같은 그 패말을 박던 소리

땅, 그것이 어찌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농토만이라  
땅, 수령님 주신 땅 그것은 정녕  
나의 행복이 싹트고 무르익은 대지  
내가 안겨 다시 태어난 소중한 조국!

하기에 나는  
내가 다니는 대학의 교사에 새겨진  
그 벼이삭들을 두고도  
분여받은 그 땅에 설레이는 이삭을 생각했고  
길지 않은 나의 자서전에도  
그 3월의 이야기 힘주어 쓰노라  
땅을 받은 농민의 아들임을 자랑하면서  
나는 나의 첫 시를 썼고

오늘까지 한생  
땅을 가꾸는 농민들을 노래하며 사노라

풍년이삭 어리광치며 발목에 감기는  
농장벌의 두렁길을 거닐 때도  
천오백만톤의 알곡고지를 향하여 달리는  
트랙토르의 행렬을 바래올 때도  
나의 가슴엔 때없이 밀려드는 하나의 생각

바라노라, 언제나 나의 노래들에  
땅을 받던 그날의 기쁨 울리기를!  
사회주의리상촌의 높은 창문 열어놓고  
평양하늘 우러르는 그 웃음 넘치기를!

노래하리라 나의 한생다할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행복을 알게 하고  
나에게 삶의 보람을 안겨준 이 땅을!  
노래하리라 가장 뜨거운 사랑을 안고  
가꾸고 꽃피우며 내가 자란 품  
은혜로운 어머니조국을!

## 내 조국의 그 모습 그려보면

리종덕

내 조국의 그 모습 그려보면  
분여지의 발머리에서  
기쁨처럼 빨갛게 익던  
물앵두를 따주던 어머니의 밝은 얼굴

그모습 그려보면  
국어책을 읽어주고  
구구표를 익혀주던  
흰샤쓰깃의 단발머리 녀선생

조국이며 조국이며  
그대의 모습은  
인민학교 지리책에서 배우던  
그 모습으로만 비겨오는것이 아니구나

어릴 때엔 어머니 얼굴이였고  
나의 모교들과 내 즐기던 숲과 들  
어른이 된 지금엔  
삶과 미래  
이 세상 가장 넓은 세계로 안겨오는 모습이여

병사시절  
새 군화자국을 찍던 산발들과  
로동과 사랑을 꽃피워주던  
언제들과 철탑들...  
오, 백두산에 올라 안아본 한줄 흙은  
그 얼마나 천금처럼 소중한것인가

혁명렬사릉에서 바라본 하늘은  
얼마나 쪽빛처럼 푸르렀던가

이삭과 열매로 가득찬  
풍요한 모습이기도 하여라  
강선의 아름다운 노을빛이기도 하여라  
산원의 밝은 불빛도 비끼고  
서해갑문의 위용도 안겨오는그 모습

부강하고 아름답고 눈부시도록 빛나며  
천만형상으로 안겨오는 그 모습  
천만형상으로 노래한들  
조국의 그 모습 다 노래할것이나

어릴적 어머니의 얼굴과  
담임선생님의 눈빛은  
어이하여 그리도 밝을수 있었던가  
아버이수령님 은혜로운 해빛아래  
고향도 조국도 인민의 락원으로  
꽃피고 열매 맺고 숲처럼 자랄수 있었나니

조국이며 조국이며  
자랑과 행복으로 가슴터질듯 부풀어  
그대 모습 그려보는 내 마음속엔  
아버이수령님 영상만 가득차오누나  
오오, 나의 조국 나의 온 세계로!

## 영생의 품

변희근

언제인가 우리의 어느 신문에 썩고 병든 남조선 사회가 빚어낸 한 늙은 작가의 비참한 죽음에 대하여 쓴 기사가 낳던적이 있었다. 그로 말하면 해방전부터 내가 알고있는 작가로서 해방후에는 한때 남조선반동문단에서 소위 소설의 《대가》라고 이르던 사람이였다. 그런데 그 《대가》가 인생말년에 내리막길을 만나 병고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끝에 나중에는 세집에서까지 쫓겨났다. 그래서 그는 늙고 병든 몸을 후들거리는 두다리에 실고 거리에서 방황걸식하다가 끝내는 눈바람 불어치는 한지 에서 얼어죽었다는것이였다.

그 글을 읽었을 때도 충격이 컸지만 나는 지금도 종종 그의 비참한 운명과 는 너무나도 판이한 오늘의 나의 운명을 두고 깊은 생각에 잠기곤한다

…대낮에도 승냥이가 산에서 내려와 어슬렁거리 는 문바울골은 왜놈들이 도시빈민들을 강제로 들이 밀어 개척한 화전마을이 었다.

병풍처럼 둘러친 서산너머로 해가 꼴깍 지자 함 지박안같은 꼴짜기마을에는 급기야 저녁어스름이 내리덮인다. 령길이 구불구불 흘러내린 동구밖길에 채불같이 구멍이 숭숭한 왕닥새 삼베옷에 신총이 다 닳아떨어진 짚신을 신은 한 소년이 해저무는줄도 모르고 오도카니 서있었다. 그 소년은 어머니의 젖에서 떨어진 그날부터 쌀밥대신 감자로 고픈 배를 채우며 자라난 《감자바우》이다.

《감자바우》의 운명은 부모들이 그러했던것처럼 고고성을 터치며 이 세상에 태어난 그순간에 이미 정해지고있었다. 병에 걸려 죽지 않으면 부모의 대를 물려 화전민으로 부대기를 파다가 한생을 마치는것이였다. 무슨 천지개벽이라도 일어나지 않는한 그것은 달리는 뿔수 없는 《감자바우》의 《숙명》이였다.

동구밖길에 서있는 소년은 지금 간밤에 이깁나무 장작을 발구에 싣고 안팎이 30리나 되는 험한령을 넘고도 다시 50리길을 더 가야하는 군소제지에 나 무팔려간 아버지를 기다리고있다. 아니 아버지보다 벌써 열백번도 더 사준다하고는 번마다 약속을 어긴 감장고무신을 안타까이 기다리고있는것이다.

(이번엔 꼭 사다줄거야,)

소년은 신날같은 희망에 가슴을 조이며 자기 발을 내려다본다, 그러자 무슨 요술이라도 부린듯 다 판난 흙투성이 짚신이 갑자기 까만 윤기가 반질거리는 검은 고무신으로 변해보인다. 소년의 얼굴에

는 기쁜 웃음이 남실거린다. 불현듯 그의 눈앞에 늘 쌍 검은 고무신을 신고 빠기는 구장 아들놈의 알미운 얼굴이 떠오른다. 소년은 그놈이 자기앞에 서있기라도 한것처럼 마음속으로 자랑스럽게 외인다.

(여우같은 작은 구장새끼야. 자 봐라. 내게두 고무신이 있다.)

감장고무신, 이것이 그때 소년의 가장 큰 꿈이였다.

바로 그 소년이 자기의 저주로운 《숙명》을 뒤집어엎고 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당의 작가의 한사람으로 행복의 절정에 올라 옛말처럼 자기의 소년시절을 회고하고있는것이다. 이 얼마나 기적적인 운명의 변화인가.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그 누가 꽃피워준 나의 삶이나

그 누가 지녀준 이 뉘이나

시각마다 환희로이 높뛰는 가슴으로

불러보는 은혜로운 그 이름

영원히 안겨살 당의 품이어

나는 이 시구절을 외울 때마다 저절로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속에 당에 대한 나의 절절한 심정이 그대로 담겨있기때문이다.

나의 축복받는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면 할수록 더더욱 깊어만지는것은 어버이수령님과 어머니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정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문학예술앞에는 끝없이 광활한 발전의 길이 열려져있다.》**

내가 문학창작의 첫 걸음마를 땀것은 해방직후였다.

력사적인 토지개혁을 주제로 한 단편소설을 써가지고 가슴을 울리며 출판사를 찾아가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세여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류수같은 세월이란 말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찌릿하게 한다. 짧다고 할수 없는 나의 작가생활 40여 년간에 받아안은 우리 당의 크나큰 은정을 그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을것인가.

죽어서도 영생하는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어엿한 당의 작가로 키워준 어머니당, 오직 그 위대하고 자애로운 품속에서만 나의 새로운 운명이 태어날수 있었고 나의 행복, 나의 삶도 꽃피날수 있었다.

작가의 성장과정이란 결코 순풍에 돛단식으로 그렇게 순탄할수는 없는것이다.

끊임없이 새것을 지향하여 온갖 낡은것, 뒤떨어진것을 짓부시며 전진하는 우리의 혁명과 건설투쟁속에서 성장의 길을 걷는 나는 작품창작에서 고충을 겪기도 하였다. 때로는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하지 못하거나 부족점이 있는 작품을 내놓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부실한 자식에게 더 뜨거운 사랑을 기울이는 부모의 심정으로 꾸짖음보다 오히려 잘못을 바로잡을 방도를 하나하나 깨우쳐주고 소심해질세라 힘과 용기와 고무를 준 어머니당의 은정을 내 어이 잊을수 있으랴. 다른 작품도 그랬었지만 나의 세번째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 역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지도에 의해서만 세상에 태어날수 있었다.

완성단계에 있던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에는 일련의 결함들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심중한것은 당일군주인공인 신철민이와 부정인물 차병진의 성격형상에서 나타난 결함이었다. 이것때문에 론의가 분분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결함은 바로 잡을 실통한 방도는 내놓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중에는 작품의 운명문제까지 론의에 오르게 되었다.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의 작가의 심리적고충에 대해서는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짐작이 같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정말 의기가 저락되어있었다.

그런데 이 난문제를 풀어주시신분이 바로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였다.

해당부문일군으로부터 고충을 겪고있는 《뜨거운 심장》의 창작실태를 보고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사업을 돌보시기에 한초한초가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친히 작품의 내용과 구성생리를 깊이 료해하신데 기초하시여 주인공의 형상에서 인간성일면에만 치우치지말고 큰 기업소 책임비서로서의 사업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면적으로 보여줄데 대한 문제, 부정인물들의 성격규정을 보다 명백히 하고 그 성격의 론리에 맞게 형상을 진실하게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작품의 결함들을 바로잡을수 있는 현명한 가르치심을 주심으로써 실패작을 성공작으로 만들수 있는 귀중한 열쇠를 나의 손에 쥐여주시였다.

그때 나는 작가와 작품을 그토록 아끼시는 그이의 고결한 성품과 친어버이사람에 뜨거운것이 쏟아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나의 창작수기를 통하여 이미 세상에 알려진 일이지만 지금도 나는 장편소설 《생명수》와 관련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베풀어주신 은정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곤한다.

장편소설 《생명수》도 창작과정에 여러가지 고충을 겪다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완성된 작품이였다.

그런데도 그이께서는 《생명수》에 대한 아버지 수령님의 치하와 교시가 계시자 누구보다 기뻐하시면서 모든 성과를 작가에게 돌려주시고 대를이어 길이 전할 귀중한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셨을뿐 아니라 출판부수를 훨씬 더 늘이는것과 함께 중앙급신문들에 련재하고 방송소설로 내보낼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며 그후에는 또다시 예술영화로 만들도록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작가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영광, 이보다 더 큰 행복, 이보다 더 큰 삶의 보람이 또 어데 있으랴. 인류력사는 아직 이름없는 한 작가에 대하여 이처럼 큰 사랑과 믿음을 베푼 그런 지도자를 알지 못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바로 그 사랑 그 믿음으로 우리모두를 한품에 안으시여 세월과 더불어 재능있는 새로운 작가, 예술인들의 대부대를 키워 내시였으며 일찌기 우리 민족사에 있어보지 못한 주체예술의 화원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그이는 참으로 조선의 영광, 조선의 행복이며 우리 작가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다.

그이의 사랑과 믿음, 그것은 우리 작가들의 창조적 힘과 지혜와 열정의 영원한 샘이다.

나는 이즘에 와서 자주 한가지 마음속의 물음에 부닥치곤한다.

은혜로운 당의 은정에 보답한것은 무엇이냐고. 그때마다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이때까지 너무 나도 해놓은 일이 없는 자신에 대해 얼굴이 뜨거워지고 이제부터라도 일하고 일하고 또 일을 해야겠다는 충동에 못이겨 밤중에도 잠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에 마주앉곤한다.

한편이라도 더 좋은 작품을 써내는것. 이것이 내가 당의 은정에 보답하는 충성의 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새 장편소설 창작에 나의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있다. 비록 머리는 희였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힘이 되고 열정이 되고 지혜가 되어 나의 창작을 힘차게 고무해준다.

깊은 밤중 혼자 원고지우에 붓을 달리노라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자애로운 품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때가 있다. 그럴때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시구절을 조용히 읊는다. 아이적 그 목소리로.

-어머니,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

그것 없이는 살수 없는 것처럼 소중한 어머니당의 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품은 나의 운명과 모든것을 맡긴 영생의 품이다.



# 온성지구의 밤

문성락

봉화 타오르는 밤  
왕재산에 올라서면  
누나 한눈에 굽어보리  
십리길 사이 두고  
온성땅에 펼쳐진 역사의 두 년대를

넓은 온성벌은  
온통 불빛으로 별천지인데  
여기 왕재산기슭엔  
그날처럼 오늘도 준엄한 30 년대가 펼쳐져있구나

뚜렷이 대조되는  
두 화폭을 보며  
후더운 가슴에 안는것은  
삶과 투쟁  
우리 누리는 행복만이 아니구나

눈여겨보면  
기념비의 군상들이 살아움직이는듯  
귀기울이면  
역사의 년대가  
부르며 화답하는 소리...

장군님 밝혀주신 광복의 해불 안고  
잠들줄 모르던 추너났은 야학방  
키낮은 농촌집치마밑에서  
온 동네 온 마을 불려 종소리 울리니  
불밝은 읍거리  
배움의 창가마다 글읽는 소리 들려오는듯

그날의 그 밤  
원호물자 가득실은 소발구

유격근거지로 떠나갈 때  
그 어느 대건설장으로 석탄 실고 가는  
꼬리 긴 화물렬차  
기적높이 역구내를 출발하누나

그 어디를 보아도  
그날의 숨결 안고 높뛰는 땅  
이 밤 발동소리 울리며  
풍년벌 갈아엎는 트랙또르행렬의 불빛  
벌을 덮은 저 불빛의 주인들은  
그날에 장군님의 은정어린 말씀을 받고  
눈시울 적시던 이고장 사람들의 자손이 아닌가

이제 밤이 깊어  
거리와 마을에 불이 꺼지고  
사람들 요람속에 들 때에도  
여기 왕재산기슭에선 유격대원들의 모습  
변함없이 새날을 맞아오누나

우리 편히 잠든 깊은 밤에도  
고동을 멈추지 않는 심장처럼  
혁명 위한 우리 삶에  
주체의 피를 주고  
자양을 더해주며  
밤새워 꺼짐없을 해불

아, 피로 얻은 값높은 행복  
그 행복 길이 지켜 영원한 기쁨인  
우리의 주인된 삶을 두고  
생각하는 마음 깊어져 잠들수 없는  
온성지구의 밤  
투쟁과 행복을 하나로 받아안은 뜻깊은 밤이어!

가사

## 불타는 강 건는적 내 없어도

리종률

이 가슴에 빛나는 훈장 조용히 바라볼 때면  
나를 믿어 당이 준 사랑 한없이 뜨거워지네  
아 불타는 강 건는적 내 없어도  
피흘린 전사들 위훈의 높이에  
나란히 세워주네

옛전사들 지켜준 행복 나에게 안겨준 그 품  
의리 지켜 바치는 충성 값높이 빛내여주네  
아 한일보다 내 받은 은정깊어

비 오나 눈 오나 전호를 집삼아  
조국을 지켜가네

불타는 강 건너 못봐도 그날에 사는 내 마음  
받아안은 그 믿음 지켜 폭풍도 헤쳐가리  
아 나의 삶에 영광을 준 당을 위해  
내 심장 다 바쳐 빛나는 위훈을  
별처럼 남기리라

## 80년대 성격의 혁신적특징

최연경

오늘 우리 문학앞에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더욱 빨리 발전시키며 혁명적문학 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매우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은 문학예술을 더욱 빨리 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섰으며 전례없는 일대 양양기에 처하여있다.

우리 당의 위력이 더없이 강화되고 혁명위업계승 문제가 빛나게 해결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전망을 안고 신심도 높고 희망에 넘쳐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벌여짐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찌기 없었던 대고조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우리문학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우리 시대의 주인공인 80년대 성격창조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순간순간이 의의깊은 력사적사변들로 충만되어있는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은 지금까지 인류의 리상속에서만 존재하여온 인간의 온갖 아름다움과 숭고성을 최상의 경지에서 체현한 새로운 성격을 낳는 무궁무진한 원천으로 되고있다.

우리 시대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인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이 바로 오늘의 위대한 현실이 낳은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이며 주체형의 혁명가의 참된 본보기들이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 《탄생하는 계절》, 《야금기지》의 주인공들과 예술영화 《청춘의 심장》의 주인공형상이 그것을 빛나게 확증해준다.

이 시대의 주인공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새로운 성격들로서 일찌기 인류문예사가 알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성격일뿐아니라 자기를 선행한 70년대 이전시기의 주인공들과도 구별되는 새로운 혁신적특성을 가진 가장 높은 정신세계의 소유자들이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주인공인 80년대 성격의 혁신적특성은 어디에 있는가?

80년대 주인공들의 혁신적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의 빛나는 전형이라는데 있다.

인간성격규정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세계관이며 공산주의자의 혁명적세계관에서 근본핵을 이루는것은 혁명적수령관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자의 참다운 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독창적사상을 창시함으로써 전형성에 관한 로동계급의 문예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을 주인공으로 하는 주체문학의 새 시대를 열어놓았다.

이것은 우리 당이 인류문예사에 쌓아올린 가장 고귀한 업적으로 된다.

일찌기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탄생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세기가 넘는 자랑찬 성장의 길을 걸어온 우리 문학의 주인공들은 혁명적수령관을 생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 간전형들이었다.

80년대의 주인공들은 바로 선행한 주인공들이 체현하고있는 혁명적수령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전형들이다. 바로 여기에 80년대 인간의 성격과 선행주인공들과의 본질적공통성이 있는것이다.

이와 함께 80년대 주인공들은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의 체현자들이다.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은 80년대 성격의 주도적특질이며 기본핵인 동시에 그들의 모든 아름다운 사상정신적특질을 규정하는 근본바탕을 이루고있다.

바로 여기에 80년대 성격이 선행한 주인공들과 구별되는 혁신적특징이 있다.

이전의 우리 문학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주인공의 성격창조문제는 당면한 과제로 나서지 않았다. 이것은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전면에서 나선 오늘에 와서 우리 문학앞에 절박하게 나선 력사적과제이다.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만이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으로 된다.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이란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 수령의 후계자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들어나가는데서 변함없이 계승되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을 모시고 받드는데서 간직한 끝없는 충실

성을 수령의 후계자를 모시고 받드는데서 변함없이 간직하고 이어나가는 충실성이다.

80년대 주인공들이야말로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의 참다운 체현자들이다.

그러면 80년대 성격의 주되는 특징인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은 어디에서 발현되는가?

80년대 성격의 주도적특질인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은 우선 일찌기 조선혁명이 개척되어나간 혁명의 려명기에 김혁, 차광수 등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체현했던 혁명적수령관을 빛나게 이어받는 데서 가장 뚜렷이 발현되고있다.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시대앞에 제기한 중요한 혁명적구호이다.

80년대의 주인공들은 우리 당의 이 혁명적구호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한 빛나는 성격들이다.

오늘 80년대 주인공들은 1920년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었던것처럼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혁명의 향도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조선의 참된 공산주의자들이다.

참으로 복만원정을 헤쳐온 로투사도 험한 락동강 넘어온 영웅전사도 그리고 행복의 락원에서 주체의 진리를 깨친 새세대의 혁명가들도 모두가 한별을 받들어 조선혁명을 개척해온것처럼 일련단심 우리당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해 나가는 여기에 80년대의 시대적지향이 있고 시대정신이 있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의 주인공인 신철민과 장편소설 《시대의 숨결》의 주인공 주태호가 바로 우리 시대의 이러한 지향을 안고 탄생한 80년대의 참된 주인공들이다.

은혜로운 당의 품속에서 믿음직한 당일군으로 자라난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당의 위대성을 가슴뜨겁게 새기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이끄는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나가는 혁명의 기수이며 우리 시대의 참다운 주인공들이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의 주인공인 신철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비서 신철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기업소내 전체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얼마전까지도 6개월이 걸렸던 1호용광로 보수공사를 단 2개월동안에, 그것도 아버지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용량을 200립방이나 더 늘쿠어 개건확장하는데 성공하고 당에 충성의 보고를 드린다.

제철소로동계급이 보수주의와 기술신비주의, 명령주의와 무책임성, 기술적난관 등 헤아릴수없이 많은 장애와 난관을 이겨내야하는 이 어려운 투쟁에서 끝내 승리할수 있은데는 사람들의 심장속에

드높지 않은 마음의 기둥을 세워준 신철민의 고귀한 노력이 깃들어있다.

신철민은 3년동안이나 남모르는 노력을 기울여 1호용광로 보수를 앞당길수 있는 혁신적인 설계안을 만들어놓고도 신심을 못가지고 동요하고 주저하는 기사 박정호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무엇보다도 기사동무가 자기 마음의 기둥부터 더욱 튼튼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세워야 할 마음의 기둥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의 신념이 아닙니까.》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의 신념, 이것이 바로 신철민이 사람들의 심장속에 그처럼 뿌리깊이 심어준 마음의 기둥이었고 그것은 또한 그자신의 드팀없는 마음의 기둥이기도 하였다.

그는 이 튼튼한 마음의 기둥이 있음으로 하여 당중앙이 안겨준 대답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릴데 대한 그러한 담력으로 그처럼 어려운 50톤기중기 도입을 확신성있게 내밀수 있었고 당중앙이 준 뜨거운 심장으로 지난날의 허물타오로 주눅이 들어기를 못퍼는 박정호에게 재생의 활력, 투쟁의 용기를 불어넣어줄수 있었으며 당의 은정이 너무도 은혜로운것이기에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하는 안해로 인한 가슴아픔도 곳곳이 이겨낼수 있었다.

참으로 우리 시대의 참된 주인공인 신철민이 뜨거운 심장속에 간직한 모든 아름다운 품모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에 기초한것이였으며 영원히 변함없이 당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한것이였다.

80년대성격의 주도적특질인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은 또한 비할바없이 그 내용이 심화되고 풍부화된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심에서 뚜렷이 발현된다. 바로 여기에 이 성격이 선행한 주인공형상의 새로운 발전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전형인 숨은 영웅, 숨은 근로자들은 그 어떤 직위나 명예도 바람이 없이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원대한 구상을 조국땅우에 꽃피우기 위한 충성의 한길에 청춘도 사랑도, 용근 한생도 기꺼이 바쳐 누가 보건 말건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며 투쟁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순간의 위훈도 귀중하며 그것이 영웅적인것일 때 참으로 값높은것이다.

둘도 없는 조국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 해방된 조선청년의 영웅적기개를 떨친 당년 열여덟살 리수복영웅의 위훈을 어찌 값높은것이라 하지 않을수 있으며 그 한순간을 평범한 한생에 비길수 있겠는가. 비록 한순간의 위훈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생을 두고 싹틔우고 키우고 가꾸어온 숭고한 애국의 념, 불굴의 혁명정신, 티없이 깨끗한 충성심이 깊숙이 아로새겨져있는것이다.

조국과 혁명을 위해 바치는 한순간을 위하여 고귀한 한생을 서슴없이 바친 혁명가들의 삶은 참으로 값높은것이다.

한순간의 위훈도 영웅적인것이지만 그보다 못지 않게 값높은것이 또한 한생의 충성이다.

시련많은 혁명의 길에서 넘어야 할 시련의 언덕, 건너야 할 시련의 바다 그 얼마인가. 멀고도 험난한 혁명의 한길에서 비록 한몸은 죽을지언정 정신만은 영생하는 충성의 한길에 산다는것이 결코 순간의 위훈보다 쉬운것이 아니다.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함없는 충성으로 빛나는 삶,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값높은 혁명가의 삶이며 참된 충신의 한생이다.

같은 원형에 기초하여 창작된 장편소설 《탄생하는 계절》의 주인공의 숭고한 형상이 그것을 잘 말하여준다.

소설의 주인공 류연이는 화려한 꽃다발도 빛나는 훈장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기쁨을 드리려는 뜨거운 한마음으로 청춘도 사랑도 다 바치며 15년을 하루와 같이 지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가는 숨은 영웅의 참다운 전형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참으로 깨끗하고 고결한것이다. 옥에는 티가 있을수 있어도 그의 충성심에는 티가 없다.

그의 충성심은 사리와 공명, 부귀영화를 모른다.

그는 허풍선이처럼 잔뜩 허파에 바람이 차서 당이 아파하는 문제는 안중에 없이 어떻게 하나 자기 뺄심을 들이지 않고 열령똥땅하여 명예나 얻어 보자고 과학자의 량심마저 서슴없이 저버리는 공명출세주의자 로명수나 이런 남편의 그늘 밑에서 편안히 살아가려는 윤희같은 사람들과는 비슷하지 않다,

그는 누구보다도 나라사정과 당의 기대를 잘 알고 당이 주고 나라가 준 은정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그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한생을 바쳐 숨은 노력을 기울여가는 의리있는 사람이다. 그에게도 남들처럼 안온한 연구실이 차례질수 있었지만 그는 당이 바라는 과학적문제를 풀기 위해 남들이 다 버리고 간 바람세찬 여울목시험장을 끝까지 떠나지 않는다. 아름다운 처녀인 그에게도 사랑이 있고 행복에 대한 꿈이 있었으나 그는 오직 이 숭고한 목적을 위해 짧지 않은 10년세월 자기를 기다려 주고 마음의 의지가 되어준 사랑하는 사람과도 결연히 갈라지는것이다.

그의 이러한 성격은 당과 수령의 은덕이 커가면 커갈수록 철부지 아이들처럼 투정질을 하고 세상구경이나 해보자고 들떠서 남보다 더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가.

류연이는 또한 충성의 한길에서 굴할줄 모르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강한 녀성이다.

가냘픈 처녀의 앞길에는 참으로 시련도 많았다.

공명주의자 로명수의 흑심한 관료주의가 그의 앞길을 걸음마다 가로막아서는가 하면 연구소 소장 송영빈이 또한 그에 맹종하면서 연구사업을 시작하기도전에 시험장에서 철수할것을 요구하고 강요해나섰다. 게다가 또한 군경영위원장이 시험에 필요한 땅과 비료를 주지 않았으며 농장 기사장 박봉익이 주대없이 여기에 맞장구를 쳤다. 세월은 흘러 10년이 지났지만 거둬되는 실패끝에 겨우 얻어낸 세알의 큰 땅개암은 기름함량이 50%나 떨어졌다. 더는 세월을 기억할수 없게된 연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슴아픈 생리별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마침내 지칠대로 지치고 병까지 생긴 처녀는 더는 자기를 지탱할 힘이 없어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만다.

그러나 그는 오직 당의 믿음을 마음의 기둥으로 의지하여 다시 일어섰으며 여물목당비서 장지순의 지극한 방조속에 과학자로서, 처녀로서 이겨내기 어려운 이 모든 시련을 끝까지 이겨내고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기쁨을 드리는것이다.

그의 이러한 성격속에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누구보다 강한 우리 시대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의 특징이 뚜렷이 전형화되어있다,

그의 충성심은 또한 변함과 굴종을 모른다. 그에게는 신념이 있기에 변할수 없으며 애당초 사리사욕이 없고 야심이 없으며 대가 바르기때문에 굴종할수 없다.

과학탐구의 길은 간고하고 혁명의 항로는 멀고 험난하여도 그는 바람파라 돛을 달줄 모르며 때에 따라 천변만화하고 조석돌변하며 립기응변하는 변신술은 더구나 쓸줄 모른다. 그는 천성이 고지식하고 성실하여 언제나 자기 진속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

류연이는 로명수가 새로 얻어낸 종자의 과학성을 부정하면서 인신공격까지 가해왔을 때에도 그리고 생명처럼 귀중한 땅개암종자를 실어갔을 때에도 타협하지 않고 굴종하지 않고 끝까지 맞받아 나간다.

류연이의 이러한 형상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우리 시대의 주인공인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은 더할나위없는 진짜배기 충신들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일러 얻어봐도 수령님의 전사, 뒤쫓아봐도 당의 전사라고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친히 류연이에게 조선로동당의 당원증을 안겨주시고 로력영웅칭호와 박사학위를 수여하시였다.

이처럼 80년대 성격의 가장 중요한 혁신적특징은 그들이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의 빛나는 체현자들이라는데 있다.

80년대 주인공들의 혁신적특성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그들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우리 혁명발전의 높은 단계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인간전형이라는데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령도하여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주체사상화과정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 되는것처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오늘 80년대 주인공의 성격도 또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보다 높은 새로운 사상정신적특질의 체현자로 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오늘 80년대 성격의 새로운 특징은 우선 그들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을 자기들의 삶과 투쟁의 목적으로 전면에 내세우고있는데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그들은 단순한 생산혁신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그 어떤 비범한 영웅들인것도 아니다. 그들이 서있는 초소는 때로 전대미문의 위훈으로 아로새겨진 거창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장 아니면 태천발전소 건설장일수도 있으나 주로는 3대 4대를 이어가며 뼈를 굳히고 성실한 로동으로 지켜온 정든 공장이거나 이름없는 광산이며 한생을 흠뻑새가 몸에 배도록 떠나지 않고 가꾸어온 고향별, 그리고 못사람들의 눈에 잘 뜨이지도 않는 자그마한 실험실이거나 산간벽지의 소박한 교단이다. 그만큼 그들은 우리 나라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 보통의 로동자, 농민들이며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이고 병사들이며 당일군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심장속에는 한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의 운명, 민족의 운명,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크나큰 생의 목적과 이상, 주체위업의 완성이라는 크나큰 뜻이 간직되어있는것이다. 겉보기에 그처럼 수수하고 류다르것이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원대한 목표를 리상으로 삼고 오로지 이 숭고한 리상의 실현을 위하여 한생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바쳐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세상에 있어본적이 없다.

이것은 그들의 사상정신세계가 비할데없이 높은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오늘 80년대 주인공의 성격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그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전위이고 기수이며 과학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능력있고 재능있는 인간들이라는데 있다.

그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되고 주체교육을 받은 새형의 혁명가들이다. 이것은 그들이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었을뿐아니라 인테리화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 나아가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오늘뿐아니라 공산주의미래에 살게 될 사람들의 품모까지도 체현하고있는 공산주의자의 사상정신적품모를 갖춘 주인공들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들은 보람찬 오늘과 함께 보다 찬란한 미래를 안고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처럼 미래에 대한 지향과 리상이 높고 강하며 그들처럼 희망에 차고 신심에 넘쳐 공산주의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해 확신성있게 투쟁하는 사람들은 일찌기 없었다. 그들은 오늘에 살지만 그들이 간직하고있는 정신적미는 다분히 미래적인것이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리상만이 아니라 미래를 앞당겨올 창조적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장편소설 《탄생하는 계절》과 《야금기지》의 주인공이 그러하며 예술영화 《청춘의 심장》의 주인공이 또한 그러하다.

장편소설 《야금기지》의 주인공인 제강소 회전로직장 야금기사 강기석은 로동자출신의 기사로서 우리 시대가 낳은 새형의 인테리이며 숨은 노력이자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의도하시는 주체적인 강철의 시험생산을 위해 자신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남김없이 바쳐 투쟁하며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탐구에 탐구를 거듭함으로써 접시형대형성구기제작과 시험에 성공한다.

그의 성격에서 특징적인것은 끝없는 탐구정신과 창조적열정이며 높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커다란 창조적능력이다.

그는 기사장 한명택이 자기의 설계안을 믿지 않고 지어 목살하러 하며 6호로의 출구가 무너져 시험생산이 중단되고 저장탱크작업이 실패하였을 때에도 락망하지 않고 실패를 타개할 돌파구를 열어 나간다.

그의 이러한 자기 확신과 무한한 창조력의 기초에는 우리 당의 인민경제주체화방침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놓여있다.

강기석은 실패에 직면하여 성구기를 단념할것을 권고하는 사랑하는 처녀 혜영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공장지구에서 자랐고 제강소에서 생활을 시작했소. 로동하면서 공부했고 기사가 됐소. 나는 그것을 자랑으로, 긍지로 여기오. 지금 여기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고 당중앙의 커다란 관심속에 거창한 사업이 벌어지고있는데 이 뜻깊은 사업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기사이고 내 생활의 보람과 긍지를 어디 가서 찾겠소.》

그의 이 말속에는 실로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교육에 의하여 새형의 과학자,

기술자로 자라난 우리 시대 주인공들의 높은 사상정신적품모와 자질이 뚜렷이 반영되어있다.

그의 성격속에는 바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통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고 주체사상화하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과 전략이 생동한 산 현실로 체현되어있다.

바로 여기에 80년대성격의 새로운 혁신적특성이 있는것이다.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오늘 80년대 주인공의 성격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그들이 우리 당과 조국과 민족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긍지를 간직한 주체가 확고히 선 사람들이라는것이다.

당과 조국과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것은 우리 혁명이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오늘 사상정신생활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 이것은 특히 오늘 세대교체가 일어나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 성실히 일하고있는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모와 실천적모범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당을 받들고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빛내이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 주고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우리 당을 받들고 당에 끝없이 충성다하는것은 우리 시대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품모로 된다.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인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누구보다도 가슴뜨겁게 간직한 사람들이며 우리 인민을 위하여 온갖 배려를 베풀고있는 당의 한없는 은덕을 충심으로 고맙게 여기고 당의 업적을 영원히 빛내이며 당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해가는 당의 참된 전사들이다.

그들은 또한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고 대를 이어 조국을 빛내여나가기 위해 모든것을 다바쳐가는 참된 애국자들이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삶과 행복의 요람이다. 참된 삶과 행복은 조국의 품속에서 시작되고 꽃피난다. 조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으며 이 세상에 조국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조국은 참으로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

조국을 사랑하지 않고 조국을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며 조국에 이바지하는것이 없는 사람은

조국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어머니조국의 참다운 아들딸이라고 할수 없다.

80년대의 주인공들인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은 이 귀중한 진리를 누구보다 가슴뜨겁게 간직하

고 있기에 것처럼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튼성변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가는것이다.

그들은 참으로 누구보다도 조국을 잘 알고 자기의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것을 내세울줄 아는 높은 자각을 가진 참다운 애국자, 진정한 충신들이다.

그들은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성을 가지고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항일혁명선렬들과 미제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영예와 존엄을 지켜 피흘려 싸운 영웅전사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이어받은 우리 시대의 참된 애국자들이다.

80년대의 주인공들은 또한 그 누구보다도 민족적자존심이 높은 주체가 선 인간전형들이다.

민족적자존심을 높이는것은 조국이 통일되지 못하고 일부 사람들속에 아직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현시기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로 된다. 사람들은 오직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때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간직할수 있다.

80년대의 주인공들인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은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가 없고 조선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민족적자존심이 누구보다도 높고 강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살며 혁명한다는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다.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도 가질수 없으며 오직 우리 민족, 우리 인민만이 가질수 있는 긍지이고 자부심이며 최상의 영예이고 최대의 행복이다.

참으로 80년대의 주인공들은 우리 당과 우리 조국,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과 긍지, 자부심과 자존심이 누구보다 강한 주체가 확고히 선 사람들이다. 바로 여기에 그들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전형의 본보기로 되는 중요한 근거가 있는것이다.

사실상 지금까지 인류의 리상속에서만 존재하여 온 인간의 온갖 아름다움과 숭고성을 최상의 경지에서 체현한 이런 훌륭한 인민, 훌륭한 주인공을 가지고있는것은 그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작가들에게도 차례지지 않은 우리 조선작가들의 무상의 자랑이고 영광이며 더없는 행복이다.

우리 작가들은 사회적전형 그 자체로서도 거대한 의의와 감화력을 가지는 이 주인공들을 원형으로 하여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전형을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 그 얼마나 존엄있고 긍지높은 사람들이며 위대한 정신력을

# 벼포기의 말

리진학

푸른 들에 뿌리내린  
벼 한포기 그는 말이 없다네

목이 말라도  
불별에 타도  
목마르다는 말  
뜨거웁다는 말  
그는 할줄 모른다네

모른다네  
시비는 더더욱 가릴줄 모른다네  
비료그릇 들고 지나치는 농장원처녀를  
손저어 불러세울줄도  
삽을 메고 지나가는 물관리공아바이보고도  
목마르다 하소연도 할줄 모른다네

가진 아름다운 인간들인가를 유감없이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인간성격의미는 결코 그 어떤 외모의 아름다움이  
나 말과 행동의 조화로움에 있는것이 아니라 한없이  
숭고한 정신세계에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발전  
면모는 그 어떤 물질적부의 생산량이나 경제적으로  
의해서가 아니라 인민들의 사상정신적면모에 의  
하여 규정된다. 그것은 바로 그 시대의 문학예술이  
창조한 주인공의 형상속에 반영되게 되는것이다.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는데서 참된 본보기가 될 그런 주인공을 창조

하나 그는 엄격도 하다네  
계산은 더욱 밝다네  
풍년날알 거두는 가을이 오면  
자신을 위해 바친 로력의 대가  
천분의 일도 에누리를 모른다네

게으른자에게는 쪽정이를  
땀들인자에게는 알찬 열매를

그렇다네  
우리 가꾸고 거두어들이는  
한포기한포기의 곡식은  
깨끗하고 드팀없는  
량심의 무게만을  
선사한다네

한 문학작품과 작가의 이름을 주인공의 형상과 함  
께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리고 그러한 작가와 작품만이 자기의 주인공과  
더불어 시대와 시대의 언덕을 넘고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불멸하는 인류의 재보로 남게  
되는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한없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우리  
시대 인간들에 대한 사색과 탐구에 끊임없는 심혈  
을 기울여 그들이 지니고있는 당과 수령, 조국과 민  
족에 대한 신념과 의지, 념원을 심오하게 밝힘으로  
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련시

## 푸른 언덕에서

-인민군렬사탑우의 병사는 말한다-

김철민

### 푸른 언덕

내 고향  
메꽃 많은 언덕에  
탑은 서있을수도 있었으리  
옛 전장  
사연 깊은 고지우에  
나는 서있을수도 있었으리

아, 우리 수령님  
타향의 차디찬 하늘아래  
한사람... 또 한사람  
첫 무장대오 무으실 때  
내 그 한끝에라도 서본적 있었던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따라  
장백의 눈바람 불바람을 함께 마신  
그래서 투사로 불리우는 사람도...  
다만 세월의 한계를 넘어  
그네들이 물려준 그 총을 쏜 병사

일이 많아 하실 일이 많아  
수령님 끼니조차 번지실 때도  
분여지의 첫 햇살밥을 앞에 놓고  
불이 메던 철부지 소년

상처 깊던 조국을 두고

때 일찍 전장에 쓰러져  
내 이 땅에 남긴것은  
기쁨보다 먼저 아픔  
다 자란 아들을 잃은 쓰디쓴 고뇌...

내 진정  
조국에 바친것 적고  
병사 한사람이 귀중하던 때  
우리 무력의 한자리를 비웠어도

스물에 갓 서른에  
조국을 받들어 피더운 심장을 고인 청춘들  
수령님께서는 못잊으시여  
결에 두고 늘 보고싶으시여  
수도의 푸른 하늘가  
당중앙청사가 자리잡은 언덕에  
영생하는 모습으로 세워주셨으니

아, 조국에 바친 청춘은  
한시절에 끝나지 않음을 선언하는 이 언덕  
그날의 보통병사 - 이몸을 받들고  
푸르려  
흐르는 세월에도 푸르려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심중에  
숨아있도다!

### 아직은 내 할일 남아있지 않는가 !

씻은듯 맑아진 저 하늘아래  
평화가 온듯싶은 이 땅우에  
내 그날의 모습으로 서있다고  
사람들이여 속삭이지 말라  
락동강의 피물에 젖고

포연에 깃들은 군복대신  
산듯한 레복을 입으라고...  
서른해가 넘도록 내 안고있는 총

이제는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병사들이여 가슴을 내대지 말라

혹시 그대들중에 미술가가 있다 해도  
화려한 색으로 내모습 감싸지 말라  
내 군모에 내 군화에 밝은 빛을 없지 말라  
그리고 시인이  
불같은 시인이 있다 해도  
내 이야기에 서둘러 감탄부호를 찍지 말라



그렇다, 사람들이여  
 설악에 전우를 안장해보지 못하고  
 불흐르는 강하를 헤쳐보지 못한 세대  
 절반을 피에 잠근 이 땅우에 자라거니

아직은 내 할일 남아있지 않는가!  
 락동강을 건너본 병사  
 그날의 모습으로!  
 그날의 녀트로!

## 눈처럼 새하얀 손수건 하나

결사의 마지막 순간  
 나에게도 그러본 애인이 있었으리라  
 묻는듯 바라보는 젊은 벗들이여  
 묻지 않아도 내안다  
 그 물음에 대답이 없는  
 내 군복안설 더듬어보라  
 갖가지 락장이며 군공메달과 함께  
 눈처럼 새하얀 손수건 하나...

공훈을 세우고 그대를 찾아오리-  
 뜨겁게 고백하는 나에게  
 처녀가 준 수건  
 꽃도 아니 새기고  
 글자도 아니 새긴  
 눈처럼 새하얀 손수건 하나...

싸움의 날  
 그 수건에 닦은것은  
 땀젖은 얼굴만이었던가  
 얼굴 먼저 닦아보던 이 마음

수건에 포연이 스배고 흠먼지 묻을 때면  
 티없이 깨끗해지는 마음속에  
 눈처럼 새하얀 손수건 하나...

열백번 강물에 행구어도  
 수건에는 진한 땀의 흔적 남으리  
 천백번 재물에 빨아도  
 그 수건에는 뜨거운 선혈의 자취 스며있으리  
 처녀와의 약속 위훈으로 지킨  
 병사의 이 가슴속에는  
 눈처럼 새하얀 손수건 하나...

묻는듯 바라보는 젊은 벗들이여  
 묻지 않아도 알리라  
 사랑은  
 얼굴로도 재부로도 권력으로도 사지 못하는 법  
 단한번 내 심장결을 더듬어보라  
 갖가지 락장이며 군공메달과 함께  
 눈처럼 새하얀 손수건 하나...

## 꽃뭍음은 대돌우에 놓였는데

꽃뭍음은 대돌우에 놓였는데  
 무엇을 생각하는가? ...  
 탑신에 새겨진 나의 전우들  
 누구도 선듯 허리굽혀 받지 못하누나!

불구름 허리감은 고지우에  
 한쪽의 국기를 하늘처럼 추켜들고  
 거연히 솟음친 영웅병사여  
 위훈많은 그 가슴에 어서 받자  
 아름다운 저 꽃뭍음은...

창파를 헤치며 적진에 육박하는

그대 젊은 해병이여  
 오늘만은 잠시 전함에서 내려 꽃을 받자  
 무전수처녀도, 간호원 그대도  
 백옥같은 그 가슴들에 얼마나 잘 어울리랴!  
 이슬도 채 마르지 않은 저 꽃뭍음이...

아, 조국을 위해서는  
 한가슴 서슴없이 내대더니  
 조국이 주는 축복은  
 선듯 그 가슴에 받아안지 못하는 전우들이  
 이러는 우리앞에서  
 사람들은 또 한뭍음 마음의 꽃을 엮누나!

## 영생이란 무엇인가

향불에 끄슬고 눈물에 젖는  
봉분과 비  
나와 인연없어

반들어세운 총검  
엄숙히 번쩍이고  
싱싱한 꽃뭉을 향기뿌리는 여기

청동의 내 모습앞에 가슴 터놓고  
애국의 푸른 냇  
뜨겁게 간직하는 정춘들이여 !

내 그대들과 사귄적 있었던가  
서른해가 넘는 세월 사이두고

서로 달리 받아안은 생에...

조국이어서  
내 피더운 심장을 고인것  
아, 조국이어서

향불을 아니 올리고  
추모의 눈물도 흘리지 않는 후대들  
내 삶이 끝났다 생각지 않는 그대들앞에

오, 영생이란 무엇인가?  
내 굳이  
말하지 않노라 !

## (속)(담)(물)(이)

### ○ 천리길도 첫 걸음으로 시작된다.

모든 일에서 첫 시작이 중요함을 교훈  
적으로 이르는 말.

### ○ 산이 높아야 골이 깊다.

품은 뜻이 높아야 하는 생각도 깊다  
는것을 비겨이르는 말.

### ○ 미꾸라지 속에도 부레퐁은 있다.

미꾸라지도 다른 물고기와 같이 공기  
주머니인 부레퐁이 있다는 뜻으로 누구나 다  
한가지 재간은 가지고있다는것을 이르는 말.

### ○ 시시덕이는 재들 넘어도 새침데기는 골로 진다.

시시덕이는 험레벌떡거리며 높은 고개  
를 넘는데 새침데기는 피바르게 골로 빠져나  
간다는 뜻으로 보기에는 얌전해보이는 사람이  
수는 엉뚱하게 쓰는 경우를 비겨이르는 말.

### ○ 뜯 쇠도 달면 무섭다.

더디게 달아난 쇠는 식는것도 오래간  
다는 뜻으로 성질이 유순하고 부드러운 사람도  
일단 결기가 나면 당하기 어렵다는것을 이르  
는말.

### ○ 한낱한시에 난 손가락도 길고 찌르다.

한 어머니가 낳은 자식도 다 같지 않  
다는 뜻으로 세상에 똑같은것은 없다는것을  
이르는 말.

### ○ 천하에 유명한 준마도 장수를 만나야 하늘 을 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말이라도 그  
말을 타고 달릴 장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빛을  
낼수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훌륭한 조건이 마  
련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처리하고 운영할 일군  
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쓸모가 없음을 형상적으  
로 이르는 말.

### ○ 대포로 참새를 쏘는 격

보잘것없는 대상이나 일에 대하여 엄청  
나게 큰 대책을 세우는 경우에 비겨이르는 말.

### ○ 반드럼기는 삼년 묵은 물박달방망이.

매우 매킨러워 남의 말을 조만하여 잘  
듣지 않는 사람을 비겨이르는 말.

### ○ 오뉴월장마에 돌도 크다.

오뉴월장마에 식물이 잘 자람을 이르  
는말.

## 밀뿌리

리석

단풍이 빨갛게 물든 풍만한 가을에 탐스럽게 익은 과일열매를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볼 때 사람들은 봄내 여름내 나무를 가꾼 주인의 수고로움에 대하여 헤아려보는것처럼 오늘날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우리 당에 크나큰 기쁨을 드렸을 때 우리는 그들을 보람찬 혁신의 길로 말없이 떠밀어준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평양어린이편직공장 리신화초급당비서는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희망을 꽃피워주기 위하여 자기의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는 녀성당일군중의 한사람이다.

### 출발점

강변을 걸어가는 리신화의 생각은 착잡하였다. 그는 한 처녀를 기다리고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열관리공 대렬을 꾸리는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분분하던 어제저녁 협의회때 있었던 일이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이 공장에서는 어린이들의 기호와 특성에 맞게 편직물을 더 다양하고 질 좋게 더 많이 생산할 큰 목표를 세웠으나 좀처럼 전진이 없었다.

보이라의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여 생산이 오르고 내리고 하였기때문이었다. 설비가 낡은데다가 보이라공 대렬도 잘 꾸려지지 못했다.

종업원 대부분의 처녀들과 어린애어머니들을 다 보니 남자들은 공장에서 열손가락을 꼽을 정도였다. 이제는 그들이 나이도 많아 부득이 보이라에서 물러나지 않을수 없게 되었던것이다. 그때문에 신화는 멎은 보이라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비서동지, 한가지 의견을 제기하십니까?》

처녀의 쉼없는 목소리였다.

《예 ?》

처다보니 2년전에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에 가라고 하는 부모들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마다하고 《공장에서 단련된 다음에 가겠다.》고

하면서 구역로동과에 올라가 이틀동안이나 줄랐다는 김정옥이었다.

늘씬한 키에 작업모자안으로 단발머리를 몰아넣어 일핏보기에는 남자인지 녀잔지 분간키 어려웠다.

동실한 얼굴과 길다란 속눈썹으로 해서 총각들속에서 《눈이 까만 처녀》로 불리운다는 처녀였다.

처녀는 성급하게 말했다.

《열관리공을 남자들만 한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 공장에서 이 낡은 틀부터 마사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보이라만 개조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처녀들이 보이라를 운전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남자들이 보란듯이말입니다.》

처녀의 얼굴에는 활기찬 기운이 넘쳤다.

처녀는 현재 보이라의 결함을 손으로 짚어가면서 이야기하고는 땅바닥에 물통같은것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손가락끝에 석탄가루가 꺼떻게 묻은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설명하였다.

(어쩌면 이 처녀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있었을가?)

그는 더없이 기뻐다.

리신화 역시 공장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려면 현재 설치된 이 낡은 보이라로써는 될수 없다는것을 알고 전망적으로 개조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은근히 원심을 써왔다.

그래서 《보이라운영학》과 같은 여러가지 보이라와 관련된 책들도 찾아보았고 유능하다는 기능공들과 일군들을 여러명 만나보기도 하였었다.

(옳다, 정옥이의 생각이 옳다. 낡은 보이라를 현대적보이라로 교체하면 처녀들로서 얼마든지 보이라를 돌릴수 있단말이지...)

보이라를 교체해야 한다는것을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보이라를 처녀들로서 돌릴수있다는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자신을 깨우쳐준 이 처녀가 더없이 기뻐하였다.

《정옥이, 참 좋은 생각을 했어요. 동무의 생각을 곧 토론하겠어요.》

그후 여러차례 기술협의회과정에서 거쳐 보이라를 개조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를 돌리기 위하여 열관리공대렬을 처녀들로 조직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자 한 일꾼이 찾아왔다. 그는 출입문을 열기 바쁘게 말했다.

《지금 처녀들이 보이라를 돌리겠다고 하겠습니까. 가공직장의 어느 한 처녀는 자기를 따라다니는 총각이 이웃 주철관공장 보이라공이라고 하자 끝내 피했던 일이 있었는데 처녀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겠다고 할것 같습니까.》 하고는 담배를 꺼내어 입에 붙여물고 말하였다.

《비서동무, 이제라도 우에 제기해서 제대군인들을 받던가 아니면 하다 못해 다른 로력이라도 몇명 받아옵시다.》

《그것은 우리 처녀들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여럿이서 토론해봅시다.》

그날저녁 다시 공장안의 직장장들과 과장들 그리고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이 모인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종시 결속하지 못하였다.

아래에 내려가 광범한 로동자들과 토론해보고 다시 모이기로 하였던것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행정일꾼들이 제기한 의견대로 할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니 쓸쓸한 감정이 어딘가 모르게 밀물처럼 밀려드는것 같았다.

한줄기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를 훑날렸다.

실실이 내려드러운 실버들이 그의 불과 목을 간지럽히고 어깨를 어루만진다. 써늘한 물기운이 싱그러운 냄새를 실어왔다.

어깨를 어루만지는 버들잎 한개를 뜯어 입에 넣고 깨물었다. 쓰거운지 시큼한지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비서동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에 돌아다보니 기다리던 정옥이었다.

《사람들이 옳지 않아요. 뭐 처녀들이 공상에 들떠서 보이라에 가겠다고 한다니요.》

《정옥이, 그게 무슨 말...》

신화는 너무도 뜻밖이라 말끝을 흐렸다.

《비서동지, 이것은 우리 처녀들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어찌나 격했던지 처녀의 눈가에는 이슬방울이 가랑가랑 맺혔다.

《분해요, 정말 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 처녀들이 입당하기 위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해 보이라에 가겠다고 한다는데... 우리는 그 누구의 칭찬이나 받자고 보이라를 맡겠다는것이 아니예요. 우리를 안아키워준 당의 배려에 적은 힘이 нама 보답할 그 생각 하나뿐입니다.》

《정옥이 ... 고맙다. 》

신화는 한참후에야 이렇게 대답했다.

처녀의 가슴속에 이처럼 뜨거운것이 차있는줄은 몰랐다.

신화는 눈굽이 뜨거워졌다.

그후 처녀들의 소망대로 10명으로 첫 열관리작업반이 무어졌다.

이 공장에서 지금까지 보이라는 남자들이 아니면 돌리지 못한다고 하던 기존관념은 허물어지고 말았다.

은혜로운 당의 해빛아래 배움의 시절을 마치고 로동을 시작한 새세대들은 보람찬 첫걸음을 크게 뻗었이었다.

## 별들이 빛나는 밤

10명의 처녀들로 무은 열관리작업반이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자 공장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여기에 쏠렸다.

염색직장이며 가공직장이며 그리고 공무직장들... 직장건물들을 한품에 거느린듯 공장 맨뒤에 덧지붕을 떠이고 쩡쨍서있는 보이라현장을 슬며시 넘겨다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가운데는 처녀들의 소행을 기록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과연 저 나어린 처녀들이 보이라를 꽤 돌릴수 있을가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날도 정옥을 비롯한 처녀열관리공들이 보이라를 현대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고있었다.

이날 신화는 편직물생산을 현재보다 배로 높일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직조직장에 내려가 기능공들과 협의회를 하고있었다.

그런데 설비과장이 달려와 《보이라가 숨져갑니다.》 하고 급한 소리를 하였다.

신화는 하던 회의를 부비서에게 말기고 보이라현장으로 달려갔다.

보이라실앞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거센 숨을 몰아쉬며 꺼져가는 보이라앞에서 정옥은 몹시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 둘 흩어지자 보이라실은 침묵이 흘렀다. 처녀들은 손땀을 놓고 나왔기 시작하였다.

정옥이의 얼굴에는 어두운 빛이 어리었다.

《비서동지,》

정옥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혹시 우리들이 되지도 않을것을 가지고 공연히 고집을 부리는것이 아닐가요, 이제라도 사람들의 말대로 종전방법으로 되돌아가는것이...》

《벌써 물러설 생각을 하다니? 우린 그래도 정옥이가 처음 보이래조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당의 은덕에 무엇인가 보답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기록하여 그렇게 기뻐하였지. 그런데 한두번 실패에 뒤로 물러설 생각을 하다니...》

신화는 처녀들이 보이라를 개조하겠다고 제기할 때 그 일이 그저 순탄하게 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옥이와 같은 나이 또래의 청년들이 로동계급속에서 단련되고 기술들이 높아져 이제는 자기 힘으로 공장의 현대화까지 해보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몹시 기록하였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을 사람들앞에 내세워주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다. 하여 남몰래 은근히 원심을 써왔던 것이다.

신화는 처녀들의 제기를 받고 지지는 해주었으나 현대열공학의 종합체라고 말하는 보이라의 개조사업이 처녀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첫날부터 기술발전책임기사 남기위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에게 파업을 주어 인민대학 습당과 시안의 여러 대학들에 보내어 기술문헌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때로는 이른새벽에, 때로는 깊은 밤중에 처녀들과 교대작업을 하면서 보이라의 상태를 살펴왔었다.

《정옥이, 이 세상에 하겠다고 생각하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항일혁명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그리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오시면서 찾아주신 혁명의 진리예요.》

처녀는 말없이 깊은 자책속에 잠기었다.

《자, 정옥이, 이 수첩에 적힌 수자들을 참고해볼라구.》

신화는 작업복주머니에서 파란 비닐뚜껑을 씌운 수첩을 꺼내어 정옥이의 손에 쥐여주었다.

처녀는 의아한 빛을 감추지 못하면서 비서가 준 수첩을 받아들고 펼쳤다.

어떤 장에는 만년필로, 어떤 장은 원주필로, 어떤 장에는 연필로 쓴 수자들이 적혀있었다.

바람속도라고 초급당비서가 써놓은 수자들은 정옥이가 보이라를 관찰해오면서 찾아낸 수자들과 신통히도 같은 것이 아닌가.

알고보니 보이라운영에서 새로운 길을 암시하는 수자들이었다.

(아, 그랬었구나! 그런데 난 비서동지의 마음두 모르구...)

처녀는 그 무슨 귀중한 보배라도 얻은것처럼 기뻐서 어쩔줄 몰랐다.

방금전까지 얼굴에 무겁게 드리웠던 빛은 사라지고 해맑은 미소가 어려있었다.

그때로부터 8시간이후, 보이라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여 며칠간 비교적 순탄하게 돌아갔다.

일시 동요하던 처녀들의 얼굴에도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공장에서 새로나온 ... 예술영화를 돌린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공장문화회관으로 즐거운 발걸음을 재촉하던 저녁녘이었다.

《보이라가 터졌다!》는 소문이 삼시에 온 공장에 퍼졌다.

사실이였다.

신화가 현장에 갔을 때 이미 보이라의 불은 꺼지고 화실안의 불판우에는 엇등어리같은 슬라크가 녹아불기 시작하여 재구멍을 메웠고 증기땅크로 오르내린 여러개의 수관들이 터져 엇가락처럼 되었다.

침묵, 침묵...

현장은 어수선하였다.

이렇게 되자 현장에 달려온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별의별 말들을 다 하였다. 처녀들에게 보이라를 맡기다간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수 없다는등, 허영심에 들뜬 어린처녀들을 더 이상 믿을수 없는 등...

그런데 그자리에 있어야 할 정옥이가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가?)

신화는 초조하여 주위를 살폈다.

바로 이때였다.

슬라크감시구쪽에서 《비서동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달려가보니 정옥이였다. 얼굴과 작업복에는 온통 탄가루가 시꺼멓게 묻어 누군지 분간하기 힘들었다.

《비서동지, 이제는 됐어요. 원인을 찾았어요.》 하고는 손에 쥔 탄물이 묻은 얼룩진 수첩을 내밀었다.

알고보니 정옥은 초급당비서로부터 넘겨받은 수첩에 적힌 수자들을 기준으로 하여 보이라가 다시 돌아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화실아래에 붙어있는 슬라크감시구에 붙어서 화실안을 순간도 놓침이없이 감시하였던 것이다.

정옥이가 내놓은 탄물이 묻은 수첩의 갈피갈피에는 시간별로 변화되는 화실상태가 빠짐없이 기록되어있었다.

순간 리신화는 더없이 기뻐다.

처녀들이 모험한 것이 아니다. 전진하는 길우에는 일시적인 실패도 있는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운영

수치를 얻어내기 위해 고심참담한 기록, 이것은 과학의 더 높은령마루로 오르고 또 오르려는 세세대들의 충성의 기록이었다.

(정말 용타!)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은 처녀들이었다.

이 뜨거운 사실앞에서 머리를 기웃거리던 일부사람들도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졌는가를 심각히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후 기술자들은 정옥이가 찾아낸 자료에 기초하여 화실안의 온도를 과학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운전방법을 완성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일은 순조롭게 풀려나가지 않았다. 일부 편협한 사람들은 보이라의 사고원인을 법적으로 추궁하게 될것이라는 과장된 소문을 퍼뜨렸다.

이렇게 되자 처녀들속에서는 차츰 주춤거리고 동요하는 기색이 떠돌았다.

그처럼 기세가 좋던 보이라현장은 울적해졌다.

이튿날 밤 책임기사를 비롯한 처녀열관리공들이 보이라현장에 갔을 때였다.

쿵, 쿵 하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이게 무슨 소린가, 누가 보이라안에 들어가 녹아붙은 슬라크를 망치로 까내는것이 아닐가?)

처녀들의 생각은 틀림없었다.

보이라안을 들여다보니 누군가 망치질을 하였다.

그럴 때마다 녹아붙은 슬라크덩어리가 부서져나갔다.

불이 꺼진지 하루가 지났으나 아직도 보이라속에서는 단내가 확확 풍겨나왔다.

처녀들은 경황없이 보이라안에 뛰어들었다.

순간 처녀들은 놀랐다.

김동삼동무를 비롯한 《4.15 기술혁신돌격대》원들과 함께 초급당비서가 망치질을 기운차게 하는 것이 아닌가.

《비서동지!》

리신화는 처녀들이 자기들이 발기한 이 보이라계조를 제힘으로 기어이 완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이라가 벗어선 그때부터 얼마후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과 자리를 함께 하면서 보이라보수를 단숨에 해제끼기 위한 정치사업을 벌였던것이다.

처녀들은 신화의 손에서 망치를 빼앗았다.

《비서동지, 잠시나마 뒤걸음쳤던...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알았으면 됐어요.》

신화는 무등 기뻐다. 그것은 처녀들이 자기들이 하고있는 일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게 되고 자기의 땀과 성실한 로력을 보람찬 투쟁에 값있게 바칠수 있게 되었다는것으로 하여 더없이 기뻐다.

조용하던 보이라현장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터진 관들과 녹아붙은 슬라크들을 다 까내고 새로운 보이라의 설계도면대로 관들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던 어느날이었다.

《4. 15기술혁신돌격대》원들과 처녀들은 마감전투를 앞두고 잠깐 쉬었다.

《한모금씩 마시고 기운을 내자구,》 하는 소리에 여기저기 앉아있던 처녀들은 놀랐다.

자기들과 함께 일하던 초급당비서가 시원한 사이다와 간식보자기를 풀어놓는것이 아닌가.

《모두들 오라구. 처녀시절의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바꾼다구 동무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될 때에는 이런 고생은 사지도 못해.》

《호호》, 《하하》 처녀들은 왁자그르르 즐겁게 웃었다. 참으로 꿈도 많고 웃음도 많은 처녀들이었다.

전투장은 화기에 넘쳤다.

《동무들, 난 지금 이런 생각에 잠기군해요. 무더운 여름날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경공업 전시장에 나오시여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어린이들의 편직물을 보여주시고 그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기뻐하시던 그 영상이 눈앞에 선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이께 기쁨으로 될 때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격식이 없고 가식이 없는 그의 말 마디마디는 처녀들의 폐부에 깊이깊이 스며들었다.

건들바람이 불더니 구름장이 벗겨지고 검푸른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얼굴을 가웃이 내밀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별들은 보석처럼 빛을 뿌리며 공장구내 방울나무사이로, 보이라실 덧지붕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처녀들이 하는 일을 숨어서 지켜보는듯이...

마침내 처녀들이 그처럼 바라고 바라던 꿈은 그후 한달만에 이루어졌다.

이제는 수백도의 불길이 이글거리는 화실을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었다.

붉고 푸른 신희등들이 이상이 없다고 급수탑, 송풍 온도를 정확히 알려준다.

이제는 빨간 단추만 누르면 저탄장으로부터 보이라화실까지 석탄이 자동적으로 투입된다. 또 다른 단추를 누르면 타고남은 석탄재까지 말끔히 운반되고있다.

이제는 처녀들이 산뜻한 차림으로 폭신한 의자에 앉아 계기의 상태를 주시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희한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처녀들이 꿈으로 그려보던 보이라가 이 공장에 태어난 것이다.

지난날 것처럼 걱정거리로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던 이 보이라가 오늘은 걱정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어 시내 여러 공장들에서 배우러 오고있으며 처녀들이 강사로 초대되어가고있다.

이 사실앞에서 이 공장의 한 일군은 흥분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초급당비서동무가 처녀들의 마음을 제때에 알고 내밀어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는 지금도 팔짱을 끼고 보이라타발만 하면서 그자리에 앉아몽개고 있었을것입니다.》

## 기쁨 ! 행복 !

조국은 또다시 승리와 영광으로 력사의 년륜을 흔들기 아로새겨갔다.

기적과 위훈으로 보람찬 한해가 저물어가던 1984년 12월 20일

그날은 함박눈이 펄펄 소리없이 내렸다.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불러내며...

그날도 리신화는 열관리공대렬에 새로 들어선 처녀들과 함께 1호보이라로부터 5호보이라에 이르기까지 돌아보며 기대상태를 익숙시키고있었다.

바로 이때였다.

승용차가 보이라실앞에 와서 멎더니 낮익은 상급당일군이 앞으로 달려오면서 불렀다.

《초급당비서동무, 기뻐하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 공장 처녀열관리공들에게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를 돌려주시었소.》

《예 ? !》

신화는 끝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그 일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전하였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공장 처녀열관리공들에 대한 아름다운 소행에 대하여 보고받으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높이 평가하여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들 10명모두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입당시키며 신문들에 크게 소개선전할데 대한 뜨거운 은정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 ... 정말 고맙습니다 ! 》

그 사랑, 그 은정에 목매여 뜨거운 눈물만이 하염없이 두볼로 흘러내렸다.

웅당 할 일을 한 처녀들에게 이처럼 크나큰 신임과 배려를 돌려주셨으니 이 기쁨, 이 행복을 무엇에 비기랴.

너무도 한 일이 없는데 꿈에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최대의 영예를 안겨주셨으니 처녀들은 그저 뜨거운 눈물이 북받쳐올라 리신화를 붙잡고 놓을줄 몰랐다.

이윽고 조용해졌다.

정옥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비서동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들이 하고있는 일을 어떻게 아셨을가요?》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서 벌어지고있는 크고 작은 일까지도 다 알고계신답니다.》

처녀들은 약속이나 한것처럼 친애하는지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스러운 처녀열관리공들은 모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입당하였으며 신문들에 소개되어 전국에 알려졌다.

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영명한 지도자로 높이 모신 이 기쁨, 이 행복을 그 무엇에 비기랴!

×

나무가지에 꽃이 피게 하고 비바람을 이겨내게 하여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는 땅속 깊은곳의 나무뿌리처럼, 남이 칭찬을 받고 표창을 받을 때 그속에 자신의 노력도 깃들어있다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남모르는 기쁨을 느낄줄 아는 당일군, 바로 이러한 당일군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바라시는대로 당사업을 하고있음으로 하여 오늘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비약과 전진의 한길로 역세계 내달리고있는것이라.

# 천리마의 고향

박세목

큰 날개를 펴고  
하루에 천리를 날은다는  
전설의 천리마  
나는 몰랐노라  
그 천리마의 날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나는 보지 못했노라  
내 어릴적부터 들어오던  
그 전설의 천리마가  
구름을 하늘을 주름잡으며  
하루에 천리를 날아가는것을

언제부터였던가  
함박눈 쏟아지던 그날이던가  
늘 일터로 오고가던 그 길에서였던가  
평범한 날이었어도  
평범하지 않은 그런 날이 아니였던가

나는 들었다  
천리마의 말발굽소리를  
천리마가 날개를 젓는 소리를  
나는 보았다  
피어나는 철의 노을속에  
네굽을 안고 하늘에 날으는  
전설의 천리마를

내 어릴적  
옛말속에 듣던  
전설의 천리마  
위대한 우리 수령님  
쇠내, 기름내 풍기는  
바로 이 강선의 로동계급을  
천리마에 태워주셨나니  
천리마

천리마  
그때에 나는 처음 알았노라  
천리마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천리마의 날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때에 나는 처음 보았노라

천리마가 하루에 어떻게 천리를 날아가는지  
푸른 하늘을 건너차는  
천리마는  
12월의 그 밤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든  
저 분피압연기였고,

하늘은 날으는 천리마는  
혁명의 불은기를 더 높이 드신  
수령님의 뜻을 받든  
강선의 밤하늘에  
꺼질줄 모르는 노을이였고

폭풍앞에 갈기를 세차게 날리는  
천리마는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한  
흔들릴줄 모르는  
너, 강선이 있더라

조선의 기상을 떨친  
너 천리마,  
조선을 온 누리에 빛내인  
너 천리마,  
천리마 강선이어  
그대는 내 어릴적부터 들어오던  
전설적인 천리마를 보여준곳,  
천리마의 그 날음소리를, 그 말발굽소리를 듣게  
한곳,  
오늘도 래일도 먼 앞날에도 그 이름으로 불리울  
영원한 천리마의 고향이어



# 천리마여, 너와 함께

장호건

한걸음에 천리  
한달음에 만리  
기적과 비약의 력사  
이 땅우에 수놓고

태어나 서른해  
나래쳐온 서른해를  
궁지높이 돌이켜보는  
우리의 천리마여

너의 고향집  
불은노을 타고르는 강철지구  
천만 잎새 설레는  
사연깊은 백양나무밑에서  
내 지금 뜨거이 너를 부르나니

천리마여,  
너의 그 눈빛인양  
전기로불빛 번뜩이는 하늘가  
저 멀리 조용히 더듬어가면  
56년의 엄혹한 겨울  
눈내리던 구내길이 가슴에 뜨거워...

아, 어버이 우리 수령님  
내리는 그 눈을 다맞으시며  
김오르는 제강소의 하늘밑  
구내길에 자욱자욱  
혁명앞에 몰아치는 시련을 헤쳐나가시던  
12월의 그날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난을 참아야 했던 그날에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로  
더 빨리 치달아오르게 하시려  
전설의 천리마를 불러주신

위대한 수령님

가장 어려운 날에  
우리를 찾아주신 그 사랑  
가장 간고한 날에  
우리 가슴에 안겨주신 그 믿음  
화산같은 힘이 되고  
폭풍같은 대고조의 숨결이 되어  
온갖 보수와 신비와 락후를 짓부셨나니

불새마냥 나래친 천리마여  
너의 발굽소리 울린곳에  
기계의 숲이 펼쳐지고  
향기질은 열매가 무르익어  
땅도 사람도 달라진  
천리마의 나라로 빛나오르지 않았던가

남들이 한걸음 펴 때  
열백걸음 앞서 내달리라고  
그날에 수령님 불러주신 천리마  
어제도 오늘도 내리지 않고있어  
우리 가야 할 혁명의 길  
멀어도 숨돌릴 생각않고  
힘해도 예돌 생각 꿈에도 앓노라

오, 천리마, 천리마여  
간고한 날일수록  
수령님을 더 잘 모시고  
당을 더 잘 받들어야 함을  
우리는 진리로 깨달았기에  
너의 고삐 틀어쥐고 내달던 그때처럼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이 달려가리  
영원한 신념, 창조의 기백  
조선의 천리마여

## 땀

김창걸

셋째, 너도 달려왔구나  
사위, 너마저 달려왔구나  
하여 우리 한낱한시에  
5부자용해공이 되어 로앞에 섰구나  
내 여기서 지난날 흘린 땀

누구면 나만큼 흘리지 않았으랴  
뉘라서 그것을 두고 샌다더냐  
이미 지나간 일을 두고  
그런데도  
그이께서만 헤아리셨더라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만은  
그것도 북방 천리 머나먼  
야금기지를 실무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길에서

잠시 들리신 휴게실에서조차  
잠간 만났던 한 용해공을 두고  
방안을 점도록 거니시며  
거듭 이르시었더라

그 동무가 지난날 흘린 땀을 다 모으면  
이 방안에 차고도 넘겠다고  
자신께서 친히 입당보증을 서시겠다고  
그런 사람들을 다 당에 받아들이자고

이 어인 과분한 말씀이신가  
나의 한생을 빛내주는 이 조국땅을  
땀으로 걸우고싶어  
내 굳이 골라잡은 일인데  
로앞에서 일한다고  
그 누구보다 아껴야 한다 하시며  
베풀어주신 하늘같은 사랑이여

아, 이 몸이 이미 흘러버린 땀  
그토록 귀중하여 내세워주고  
영생하는 나의 삶을 이어주는 사랑앞에  
아이들아, 너희 셋을 부르기도  
사위 너까지 불렀니라

## 언제나 이맘때 쇠물이 끓을 때면

리영봉

또 한물 출강시간 앞당기자고  
걸음보다 먼저 마음을 앞세우며  
용해장이 하나로 끓고 뛰더니

조용하구나  
출강전 쇠물이 끓을 때면  
우뢰치던 전기로도 숨결 낮추고  
고르로이 고르로이 쇠물이 끓는 소리

말이 없구나  
손에 든 담배가 타들건만  
로장은 잊은듯 두눈 좁히고  
땀젖은 머리를 쓸어올리며  
젊은 용해공도 눈길 모으는 쇠물

하루에도 두세번씩  
어김없이 맞고 보내건만  
쇠물과 함께 마음도 끓어  
쇠물과 함께 깊어지는 생각이여

저 쇠물을 보면 힘이 난다고  
쇠물이 끓으면 온 나라가 끓는다고  
다정히 어깨우에 얹혀지던 그 손길

용해공들과 함께 웃으시던 그 미소

출강전 쇠물이 끓는 이맘때면  
아버이수령님 인자하신 그 손길  
다시 어깨우에 얹어지는것만 같아  
그 쇠물 보자고 하시며  
이맘때면 로앞으로 찾아오실것만 같아

전기로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용해공들도 삼가 마음 다잡으며  
끓는 쇠물에서 눈길 못떼는 마음이여

그러니 용해장엔 언제나  
그날의 쇠물이 끓어라  
전기로도 용해공들도 말이 없어도  
가슴속에 걱정이 끓어라

아, 언제나 이맘때  
쇠물이 끓는 때는  
용해공의 마음  
수령님 앞에 선 마음  
출강시간 다 되였다고  
삼가 보고드리는 때

## 현실에 대한 생각

럼형미

나는 요즈음처럼 현실과 체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본적이 없다.

현실에 깊이 들어가야만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좋은 작품을 쓸수 있다는것은 이미 당에서 오래전부터 강조해오는것이고 또 문학의 선배들로부터 늘 쌍 들어온 말이지만 현실체험의 우월성이 이토록 내 가슴에 깊이있게 새겨지기는 처음이다.

몇달전에 나는 문학수업에 뜻을 두고 로동계급속에서 일하며 생활을 배우고싶어 철의 도시 강선으로 왔다.

집의 부모들과 동무들은 나이찬 처녀가 좋은 직업을 두고 로동생활에 뛰여든다고 나무람하였고 지금도 역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의 이 용단을 의아해하고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말로 다 표현할수 없는 기쁨에 넘쳐있으며 나의 이 결심과 행동이 열백번 옳았다는 굳건한 확신에 가득차있다.

얼마전에 나는 강철직장 배전공으로 견습을 받으며 느껴지는바가 있어 시 한편을 썼다.

내가 보건대 시의 상이며 정서 그리고 시대적미감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시어 하나가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아 몹시 안타까왔다.

일을 마치고 합숙으로 들어오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그리고 사색할수 있는 모든 잠시간마다 나는 그 하나의 단어를 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밤이 지새는줄도 모르고 두툼한 조선말사전을 몇번이나 뒤적였는지도 모른다.

아마 문학의 벼들은 이때의 나의 안타까움과 모대감이 어떠했으리라는것을 리해해줄것이다.

그런데 그처럼 고심하면서도 찾지 못했던 그시어를 평범한 배전공처녀의 입에서 쉽사리 듣게 될줄이야...

며칠전에 있던 일이다.

아름다운 쇠물빛이 너울거리고 전기로의 동음이 귀가 멍멍하도록 울리는 용해장의 한쪽에 아담하게 꾸려진 배전실에서 나는 견습을 받고있었다

나에게 견습을 주고있는 언니는 6년간의 경력을 가진 오랜 배전공이다.

또 한차지 쇠물을 쏟고 후련한 기쁨에 취해 생산지령서에 쇠물 톤수와 분석결과를 올리고있는데 별컥 배전실의 문이 열렸다.

구리빛 얼굴에 희색이 만만한 용해공총각이 뛰어들었다.

내가 느끼건대 배전공언니에게 마음을 두고있는것 같은 이 총각은 쇠녹이 묻은 시커먼 번어리장갑을 털썩 처녀가 앉아있는 배전판우에 올려놓더니 주머니를 뒤적거리 담배팩을 꺼냈다.

담배 한대가 성차지 않는지 그는 두대를 터쳐썩썩 비벼가지고 손에 수북이 움켜들었다.

그리고는 투박하고 큼직한 손을 내밀어 처녀앞에 있는 책을 잡아당겼다.

그 책은 생산지령서였다.

새침하게 마주선 처녀는 야무진 목소리로 내쏘았다.

《동문 제 아이 출생충도 찢어서 담배를 피우겠군요?》

《?!》

총알처럼 튀어나온 말에 총각은 눈만 크게 뜨고 처녀를 바라보았다.

이때까지 내가 보아오던 그렇게도 비위살 좋고 반죽중던 그 총각이 아니었다.

눈이 휘둥그레진채 손은 굳어졌다.

나도 놀랐다. 그 찰나 나의 머리속에는 번쩍이는 것이 있었다.

출생증! 출생증!

얼마나 신통한 표현인가! 내가 그토록 모지름을 쓰며 찾던 그것이 아닌가!

그렇지! 이 일지를 왜 쇠물의 출생증이라고 말할수 없단말인가?

재료를 장입하여 첫 송전을 하던 그 시각부터 출강의 이 시각까지 용해공들과 함께 느끼는 배전공의 기쁨과 조바심 그리고 안타까움이 깡그리슴배여있는 그 한가마의 쇠물...

쇠물이 잘 끓지 않을 때면 조롱하듯 흔들리는 계기의 바늘을 입술을 옥물고 지켜보며 눈가에 피로운 이슬을 담던 처녀.

쇠물이 잘 익을 때에는 자기들에게 차례진 영양  
제 빵이며 얼음파자를 안전보에 담아 쑥 들여보내  
는 사나이들의 후더운 진정에 행복의 미소를 머금  
던 처녀.

참으로 열달동안 아기를 고이 키워 낳는 산모와  
도 같은 그 진통과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기에 이토록 신통히도 절박하고 뜨거운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가슴이 뛰었다.

그래! 자기의 피를 바치고 자기의 땀과 살을 바  
치고 자기의 모든 희로애락을 바치고싶은 그런 생  
활속에서 우리는 참된 인간의 심장을 지니게 되며  
문학의 열쇠도 찾아쥐게 되는것이 이니겠는가!

나는 끓어오르는 가슴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사랑하자! 나도 사랑하자!

저 미더운 용해공들을!

그리고 나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고 창작가의 담  
대한 심장과 지혜의 눈을 틔워주는 이 벅찬 현실  
을!

...

나의 마음은 지금 한없이 기쁘다.

며칠밤을 패우며 찾던 그 하나의 시어를 찾아서  
만이 아니다.

그것은 이 벅찬 현실속에 내가 로동계급의 딸로  
생활하고있기때문이다.

나는 이 시각도 나 자신에게 말하고있다.  
현실은 참말로 창작의 어머니라고!

## 교대전 짧은 순간

오피전

하늘을 치받으며 솟구쳐오르는  
아슬한 벽체의 발판우에서  
두 연공이 손을 마주잡았다  
교대전 짧은 순간

반백의 흰 머리카락이 귀밑을 덮은  
연공아바이  
나는 안다 20 여년전  
성천강반에 비날론공장을 세운  
60년대 제대군인청년

짧게 넘긴 머리칼에도 패기가 실린  
젊은 연공  
나는 안다 두해전  
여기 대동강반 비날론건설장으로 달려온  
80년대 제대군인청년

그 손을 감싼  
아바이의 큼직한 손은  
건설로 한생을 바쳐온  
성스런 자취를 말해주는가

이랑처럼 굽이쳐간 피줄에서 뛰는  
후더운 맥박이  
청년의 손등을 타고

뜨겁게 흘러드는듯  
갈새 울던 룡흥벌에  
《비날론속도》를 창조한  
숨씨있는 건설부대라고  
높은 칭호를 사랑담아 불러주신  
수령님의 믿음 지켜 20 여년

그 명예를 지켜갈 마음으로  
눈보라 우는 허허벌판에  
첫 탐을 안아세우고  
그 칭호를 빛내갈 열정으로  
하늘공중에 대들보를 얹으며  
위훈을 새겨가는 아바이

심중의 하고싶은 말  
천마디 부탁을  
만마디 대답을  
마주 그러권 손길에 담은듯

아, 그들은 인계하고있었다  
어제도.  
《비날론속도》를 창조한 그 위훈 펼쳐  
오늘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해갈  
심장의 말을!

## 내가 사랑하는 고장을 두고...

계 훈

사람들은 흔히 제 사는 고장을 사랑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지, 왜 자기의 한생을 깡그리 바쳐 살고 싶은지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언제나 깨닫게 되는 날이 있다.

누구는 유년시절을 떠나는 그 첫 시각에, 누구는 꿈많은 청춘의 날에, 누구는 한생을 총화해보는 백발의 나이에... 실로 그날은 사람마다 다르게 온다.

또 깨닫게 되는 나이가 저마다 다른 것처럼 깨닫게 되는 동기도 저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격동적인 사변속에서, 어떤 사람은 극히 사소한 작은 일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애국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자기 가족들과 동무들을 사랑하며 자기 마을사람들과 고향사람들을 사랑하며 자기 인민을 사랑해야 하며 자기 학교와 공장, 자기 마을을 사랑하며 나라의 모든 재부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도 내가 사는 강철지구를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서른이 되도록 내가 왜 강철지구를 사랑하는지 깊이있게 깨닫고 살지는 못했었다.

늦은 밤이면 창문을 열고 밤노를 곱게 피는 용해장을 한동안 바라보다 잠드는 습관이 굳혀져있고, 먼 러행길에서 돌아올적이면 의례히 공장이 한눈에 안겨오는 차창컨 자리를 택해 앉는 버릇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것처럼...

바로 며칠전야 나 이러한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도 어떤 큰 사변속에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빙그레 웃어버릴수도 있는 극히 작은 일에서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작은 일일수 없으며 더우기 웃어넘길수는 없다.

그날은 금년 정월초하루 새벽녘이었다.

나는 벌써 10 여년동안 설날아침마다 용해장에 올라가 첫 출강하는 용해공들과 함께 있는것이 습

관이 돼버렸다. 그래서 나는 금년 설날 새벽에도 용해장을 찾아갔다.

용해장은 말그대로 부글부글 들끓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최고인민회의 제 8기 제 1차 회의에서 펼치여주신 제 3차 7개년계획의 빛나는 고지를 향하여 첫발자국을 내딛는 1987년 새해 첫 날인데야... 전투명령 받아안은 병사들마냥 일렬로 쭉 늘어선 전기로들에선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흠뻑히 익어가는 쇠물은 로벅을 치며 펠펠 솟구쳐 끓고있었다. 게다가 전기로앞은 용해공들과 강철지구의 녀인들, 소년단축하단원들이 하나로 엉켜돌며 붐비고있었다. 나팔소리와 기증기를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 지축을 뒤흔드는 전기로의 동음...

어느로가 첫 출강의 영예를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첫 보고를 올리겠는가? 기쁨과 긴장이 함께 씨름하며 뒤엉켜흐른다.

나는 흥분으로 뛴뛰는 가슴을 안고 용해장입구에 자리잡은 1호로앞으로 다가갔다.

용해공들의 일부는 로앞에 그리고 대부분은 배전실문옆의 산업텔레비존화면앞에서 긴장한 눈길들을 모으고 쇠물의 최종분석을 기다리고있다.

파아란 텔레비존화면속에는 전기로들의 서로 다른 분석수자들이 경쟁하듯 나뉘고있었는데 1호로와 3호로가 그중 앞서 어깨를 겨루고있다.

잠시후 화면속에 단발머리 분석공처녀가 나타나 수지함에 손을 넣어 새하얀 모형수자 하나를 꺼내든다. 이 수자 하나면 승부는 결정된다.

《아무렴》

《우리 1호로가 1등을 해야지...》

한 젊은 용해공이 이렇게 너스레를 피우자 옆에 섰던 한 친구가

《좀 조용하라구!》 하며 큰 손으로 잔등을 때린다.

《3호로가 먼저 맞았다!》

바짝 다가서 새파란 화면을 두눈으로 꼭 붙잡고 섰던 아까 그 반죽좋은 청년이 이렇게 웨치자 승부

는 결정되었는지 몰켜섰던 그들은 말없이 헤어져  
로앞으로들 다가갔다.

나는 용해공들과 인사를 하고 어깨도 툭툭 치며  
새해 설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나는 벌써부터 미소를 머금고 배전실문  
을 열었다.

언제나 웃음이 많은 배전공 봉이와도 인사를 해  
야했기에...

1 호로 배전실 문을 열고 들어선 나는 그만 우뚝  
굳이 져버리고 말았다.

봉이가 울고있었던것이다.

《아니 설날아침에 울다니. 왜 울가? 입담이 센 용  
해공들이 봉이를 노엽혔을가?》

잘각, 잘각, 오탁하니 앉아 배전손잡이를 운전하  
는 봉이의 동실한 뺨에는 눈물이 방물방울 맺혀 흐  
른다. 창유리로 흘러드는 빨그레한 쇠물빛에 눈물  
방울은 그대로 반짝이는 구슬알같다.

그것이 한방울 또 한방울 배전판우에 떨어져 부  
서진다.

나는 가슴이 찢눌해짐을 느꼈다. 말이 안나온다.  
이런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때 문이 열리더니 로장아바이가 들어왔다.

나는 얼른 로장의 귀에 가만히 속삭였다.

《봉이가 왜 울어요?》

로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내 팔소매를 가볍  
게 당겨 나가자는 시늉을 했다.

우리는 가만히 문을 닫고 로앞에 다가섰다.

《오늘 로단위 경쟁에서 1 등을 하자 했었는데 두  
번째로 출강하게 됐으니...》

《아하! 그래서요.》 나는 열결에 이렇게 말을 던  
졌다.

어째서인지 로장아바이는 얼른 돌아서 쇠물만 그  
윅히 들여다본다.

갑자기 배전실 창문이 활짝 열리더니 빨간 머리  
수건을 쓴 봉이의 동그란 얼굴이 나타났다.

《동무들, 이제 마지막 3 분이 남았어요. 한번 본  
때있게 해보지요.》

쟁쟁한 목소리, 웨치는 봉이의 얼굴에는 활짝 웃  
음이 어려있다. 그 웃음피는 불에 미쳐 닦지 못한  
눈물방울이 쇠물빛을 받아 반짝 빛난다.

나는 가슴속에 뜨거운 불덩어리가 툭 떨어져 으  
지직 타는것 같아 《음-》 하고 가볍게 신음소리를  
내며 눈길을 떨구었다.

다시 잘각잘각하는 소리와 함께 접촉장치에서 일  
어나는 파아란 불빛이 배전실안에 번쩍거린다.

갑자기 전기로는 몸부림치며 굉음을 터뜨린다.

귀가 다 멍멍해질 정도다. 쇠물, 새파랗게 익어가  
는 쇠물이 로벽을 친다.

너울거리는 물길속에 눈물젖은 두볼에 함뿔 웃음  
이 어리던 봉이의 동실한 얼굴이 얼른거린다.

뜨거운 열풍이 황황 안긴다. 한참만에야 나는 눈  
굽에 뜨겁고 축축한것이 고였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아, 사랑스런 봉이! 아름다운 사람들...》

나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불러주신 근위대전사들  
이란 크나큰 믿음을 지켜가는 이 사람들 아버지수  
령님께서 찾아오시여 사품치는 쇠물을 보아주시며  
기뻐하시던 그 시각을 일생의 가장 큰기쁨으로 간  
직하고 사는 사람들, 바로 그 행복을 지켜가는 길에  
서는 한걸음 떨어져도 일생의 수치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

나는 물론 사시절 불타는 강철지구의 저녁노을을  
사랑한다. 그리고 저물녘 퇴근길에서 가로수잎새의  
설렁거리는 소리와 어머니의 정다운 자장가마냥 한  
밤에도 자주 이 가슴을 흔들어깨우는 전기로의 은  
은한 동음소리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모든것보다도 이 고장 사람들의 불같은  
모습 하나하나가 내 맘속엔 얼마나 정답고 소중한  
느껴지는것인가.

강철지구라면 누구나 철을 두고 생각할것이다.

그것은 옳다. 그러나 나는 그토록 억세고 번쩍이  
는 강철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는가를 생각해보  
군한다.

그러면 저절로 후더워지는 내 가슴속에 봉이와  
같은 수천수만의 정다운 얼굴들이 떠오른다.

내 청춘을 영원히 이고장에 뿌리를 내리우게하는  
그 모습들이...

# 그날밤의 이야기 외 1편

박호범

그날밤 영웅은 집으로 돌아왔다  
수령님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  
참고참았던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영웅은 집으로 돌아왔다

마주앉은 안해의 흰머리를 바라보며  
흘러간 세월 서른 몇몇해  
집에서 지낸 나날보다 천막에서 산 나날이  
더 많았다는것을 새삼스레 생각했다

첫 아들이 태어났다는 기별을 받은것은  
철탑을 세워가던 랑림산줄기의 그 어디  
둘째가 학교로 간다는 소식을 읽은것은  
마식령기슭의 이름모를 골짜기가 아니던가

수령님께서 공장의 자리를 잡아주실 때면  
곧추 곧바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철탑을 세우고 고압선을 늘이며  
수령님 바라신 그날에 기어이 가닿은 사람

이렇게 헤쳐온 길을 한줄로 이으면  
그것은 산벼랑 험한 길 몇만리

그 길의 한끝을 오늘에 이어왔구나  
안해와 마주앉은 이 다정한 밤

날이 새면 떠나야 한다는 남편의 말에  
조용히 건네는 안해의 속깊은 한마디  
-나 혼자만 당신의 얼굴을 보고있겠나요.  
이제는 온 나라가 당신의 얼굴을 다 아는데

희여지는 안해의 머리칼을 바라보며  
조용히 건네는 영웅의 뜻깊은 한마디  
-집을 떠나 머리가 절반 희었으니  
나머지머리도 산바람에 희여져야지

떠나며 바래우며 그들이 나눈  
그 한마디한마디에 다 깃들어있구나  
영웅이 영웅으로 된 사람의 됃됨  
영웅의 그 안해의 사람의 됃됨

아, 꾸밀수도 속일수도 없는 진정이어!  
이런 인해들의 뒤받침에 영웅들이 받들리우고  
이런 영웅들에게 받들리워 조국은 강하구나  
어머니 내 조국 영웅들의 나라여!

## 전보에 대한 이야기

그날밤 영웅은 군려관으로 돌아왔다  
숨은 영웅이라고 불러주신 그 믿음에  
그는 온밤 뒤채기고 또 뒤채졌다

돌각담을 들어내던 후치령기슭의 발이랑이  
풀을 깎아내던 고향의 험한 산밭이  
자꾸만 자꾸만 떠올라 잠들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발을 더 기름지우고  
어떻게 가꾸면 소출을 더 낼가  
궁리는 고향의 발이랑을 쓰다듬더니

읍에서 집까지는 산넘어 수십리길  
그 길을 한가하게 거저야 갈수 있으랴

영웅은 날이 밝을무렵 한장의 종이를 꺼냈다

그는 안해에게 칠 전보문을 이렇게 썼다  
-읍까지 마중 나올것  
거름달구지를 끌고

아침에 체신소의 아주머니는 이런 말을 하였다  
-세상에 이런 전보는 처음 본다고!  
-세상에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고!

## 전선길

한웅빈

나는 매일아침 건설장역을 지나 출근한다. 출근 길옆에 건설장이 생겼기때문이다.

이제는 아침마다 건설장고성기가 정해놓은듯이 우리는 행진곡종류의 음악을 들으며 출근하는데 습관되었다.

이날도 건설장고성기는 행진곡음악을 왕왕 울려대고있었다.

나는 전날보다 한두층은 더 높아진듯한 집들을 보며 걸음을 옮겼다. 기중기가 그우에로 부채를 물어올리느라고 웅웅거렸다. 팽팽히 행기를 쇠바줄이 악기의 금선처럼 떨고있었다.

공중에 떠오르는 부채를 쳐다보노라니 어제밤 딸애가 외우던 물리법칙이 생각났다. ...물건을 우에로 끌어올릴 때 운동에네르기는 감소되며 반대로 잠재에네르기는 그만큼 증대된다. ...

높이 올릴수록 잠재에네르기가 커진다. 그러고 보면 부채에는 지금 잠재에네르기가 계속 축적되고 있는셈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따라앞서며 분주히 걸어갔다. 바쁜 출근길에 에네르기보존의 법칙같은것이 무슨 상관이라. 가방을 든 사람, 간단히 서류철만 든 사람, 조그만 가방을 땀시있게 든 처녀, 굽높은 구두의 뾰족한 뒤축이 포도에 못이라도 박듯이 분주히 똑딱거렸다. 한 녀인이 어린애의 손목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마주 잡은 두손이 건설장음악에 맞추기라도 하는듯 가볍게 흔들렸다.

나도 역시 그 음악에 맞춰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행진곡이란 묘한 힘을 가진 음악이다.

불시에 음악이 똑 끊어졌다. 나는 저도 모르게 멈췄다. 전차와 빠스의 동음이 류달리 크게 들렸다. 고성기가 찌룩찌룩 거렸다. 뒤이어 높은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조선중앙통신사 성명!》

나는 멈춰서고말았다.

《보도에 의하면 미제국주의자들은 2월 1일부터 4월중순까지 남조선피괴군과 함께 남조선전역을 무대로 하여 최대규모의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한다고 한다....》

앞에서 굴러가던 장난감자동차가 벗어났다.

처녀의 굽높은 구두는 뾰족한 뒤축이 포도에 깊이 박혀버린듯했다.

《...20여만의 병력... 미싸일, 비행기, 탱크, 대포... 핵시험전쟁, 핵예비전쟁...》

주위가 갑자기 소나기직전처럼 어두워진듯했다. 머리우에 구름이 드리운것처럼 느껴졌다.

거리의 모든것이 정지해버린듯했다. 굴러가던 전차와 승용차들,... 기중기에 물려 올라가던 부채는 푸른 하늘에서 얼어버린듯했다. 부동의 자세로 서있는 가로수들...

《...조선반도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었다, ...》

문득 나는 1950년 6월 25일 아침을 회상했다. 내무성보도를 듣던 그자리에 내가 서있는듯한 착각도 들었다. 그 어조와 그 억양, 그 감정... 온몸으로 싸늘한 전류가 흘러지나가는듯했다.

《...적들이 끝내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킨다면 즉시 맞받아나가 징벌을 가할것이다. !...》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퍽 가라앉은 목소리가 울렸다.

《조선중앙통신사 성명을 보내드렸습니다.》

나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성명이 시작된 때로부터 한번도 숨을 쉬지 않았던듯했다. 숨을 쉬는것을 잊었던듯했다.

땡-하는 빠스나팔소리에 나는 흠칫 놀래기 까지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자 모든것이 변함없이 움직이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전차는 여전히 뿔대를 흔들며 굴러가고 있었고 승용차는 도로바닥에 달라붙어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장난감자동차도 달달거리며 굴러가고 있었고 기중기의 부채도 계속 올라가고있었다.모든것이 벗어버린듯 하였던것은 나의 의식속에서만이었다. 마치도 한동안 눈을 껌 감고있었던듯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는 계속 걸음을 옮기고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앞에서 걸어가던 처녀만이 사태의 엄중성에 진린듯 발치를 내려다보며 서있었다. 그는 곧 허리를 굽혔다. 신발에 묻은 먼지를 닦았다, 그리고는 다시 포도에 못이라도 박듯 똑딱거리며 걸어갔다. 반짝거리는 신발, 달달 굴러가는 장난감자동차...달라진것은 없었다. 생활은 여전히 자기 궤도로 흐르고있었다. 그 태연성, 그 평범성...

불현듯 나의 눈앞에는 30여년전의 일이 떠올랐다. 들판으로 구불구불 흘러간 전선길, 그 길에서 만났던 사람들, 빼격거리던 달구지바퀴와 텅텅튀어오르며 굴러가던 굴렁쇠....

땡-땡- 빠스나팔소리, 승용차소리, 건설장고성기가 울리는 음악, 30여년전의 그 길과 비슷한점은 조금도 없었다.



허나 생각은 30 여년전의 전선길로 거슬러가기 만했다. ...

...1952년 여름, 중기부사수였던 나는 사수와 함께 비행기사냥군조로 소환명령을 받았다. 우리는 그 명령을 기쁘게 접수했다. 바라던것이기도 했다.

전선에서 매일 매시각 모기떼처럼 물려드는 적비행기들에게 시달려온 우리였다. 비행기에 대한 증오는 극도에 달하였다. 더우기 나는 그때가 적기의 폭격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소식을 받은지 며칠밖에 안되었던 때였다. 그런 때에 바로 최고사령관 동지의 전술적방침에 의하여 비행기사냥군조에 선 발된 것이었다.

지휘부에서 약간의 강습을 받고 (많은것은 적기와 대결에서 배우게 될 것이었다,) 나는 사수와 함께 XX 산진지를 향하여 떠났다.

밤길이었다. 그러나 길에 나서자 밤이라는 느낌은 사라져버렸다. 포탄, 탄약을 실은 자동차들과 달구지의 행렬, 포탄상자와 탄약상자를 이고 진사람들의 행렬, 보병과 포병의 대렬, 항공감시원과 도로복구대원들... 온 나라가 그 전선길에 나와있는 듯했다. 불빛과 소음으로 들끓다가도 항공신호총이 울리면 일시에 캄캄해지는 길...

새벽이 가까와오면서 길은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자동차들과 달구지들은 대피장소와 자기 마을을 찾아 크고작은 갈림길들로 스며들어버렸다.

날이 환히 밝았을 때는 길이 텅 비다싶이 되었다. 새벽과 함께 주위의 풍경이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밤에는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었던 후방의 풍경이었다. 길 가까이에는 마을도 거리도 없었다. 집조차도 없었다. 불탄 자리들과 폭탄구멍이들뿐이었다. 어데를 보나 어수선하고 황량한 폐허였다. 후방에 대하여 더러 듣기는 했으나 이렇게 참혹할 줄은 몰랐었다.

폐허속에서 불에 그슬린 학교간판이 덩굴고 있었다. 바람에 재가루와 함께 찢어진 종이장이 날려왔다. 인민학교 산수학습장이었다.  $1+1=...$  답은 찢어지고 없었다. 불타버린 것인지... 그 또박또박 박아쓴 글자에서 눈을 떼기 어려웠다. 하나에 하나를 합하면, ... 하나를 합하면,... 답대신 그 글자를 박아 썼을 조그마한 손이 떠올랐다.

《가자구 !》

사수의 말에야 나는 그알을 떠났다. 허나 생각은 그 찢어진 책장우에서 헤매고있었다. 하나에 하나를 합하면... 그 학습장의 주인은 어떤 아이였을가. 앞으로 세계를 놀래울 위인으로 될 아이였을지, 혹은 인류의 기억속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명을 했을지 어찌 알랴. 허나 그 두뇌는 이미 사유를 멈추지나 않았는지... 하나의 미래가 세상에서 사라지지나 않았는지...

빼적거리며 달구지가 우리앞에서 굴러가고있었다. 탄약을 날라주고 돌아오는 길일 것이었다. 소도

소물이 군도 달구지도 풀과 나무가지를 잔뜩 꽃아 고슴도치 같았다.

채 걸히지 않은 새벽어스름속에서 뿔이 우격진 우람한 황소를 끌고가는 체소한 소물이 군의 대조적인 모습이 보였다. 로인 같았다.

사수는 달구지와 나란히 서자 큰소리로 말을 걸었다.

《수고하십 니다, 로인님 !》

그런데 《예?》 하고 반문하는 것은 의외에도 녀자의 목소리였다.

새벽어둠과 잔뜩 꽃은 풀, 나무가지가 녀인을 볼품없는 로인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사수는 실수를 만회하려고 듣기만 해도 미소를 짓고 싶을만큼 쾌활한 어조로 물었다.

《탄약을 나르고 돌아옵니까?》

《예 .》

후령후령하게 큰 덩저고리, 투박한 바지와 신발, 머리를 감싼 머리수건,

중년의 아낙네 같았다. 녀인은 사수와 나를 번갈아 보고는 빠른 말씨로 스스럼없이 말했다.

《총을 실으세요. 무거우실텐데...》

눈치 빠른 녀인이었다.

사수는 사양하는척했다. 그는 전쟁 첫날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로대원이었고 능청스러웠다.

《실어도 될가요?》

녀인은 어깨를 으쓱했다.

《되지 않구요? 빈 달구진데요 뭐.》

《빈 달구지라면 신세를 좀 집시다.》

그러나 달구지는 비어있지 않았다. 그우에서는 열두어살쯤 돼보이는 소년이 꼬부리고 개구리잠을 자고있었다.

《동생인가요?》

《아니예요. 이웃마을에 있는 애예요.》

그때 사내애가 눈을 뜨더니 훌쩍 뛰어내렸다.

《이거 기관총 아니예요?》

사수는 중기관총을 달구지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넌 어디로 가니 ?》

《집으로 가죠 뭐.》

《집으로?》

사수는 집짓 눈을 부릅떴다.

《지금이 어떤 때라고 놀러 다녀?》

사내애는 찢끔해할 대신 코웃음을 쳤다.

《행 ! 놀러 땡기는줄 알아요?》

만만치 않은 녀석이었다. 탁탁 소리나게 걸음을 옮겨놓는 것이 차돌맹이처럼 단단해 보였다.

《그럼 뭐냐 ?》

《포탄을 날랐지요 뭐 .》

《뭐 ? 네가 포탄을?》

사내애는 모욕감을 느낀듯 눈을 치떴다.

《왜 그래요 ? 포탄 하나는 넉근히 나르는데 !》

사수는 허-하고 입소리를 냈다.

《네가 아니면 전선에 포탄이 모자랄가봐 그러니?》

소년은 바싹 달아올라 입을 열었으나 재가루가 날아들어가는 바람에 요란스레 재채기를 했다. 길 옆의 불탄 집터에서 아직 연기가 꼬물꼬물 피여오고있었다.

재채기바람에 화가 가라앉아버렸는지 소년은 불탄 집터를 보며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는 말했다.

《우리 학교도 불타버렸어요. 운동장엔 폭탄구덩이가 세개나 생기구...》

조그만너석의 한숨소리가 지내 큰데 허를 차며 웃음을 참던 사수가 정색했다.

《너희 마을은 일 없니?》

《일없을게 뭐예요? 우리 집은 헛간까지 다 탔어요. 개도 어디 갔는지 없어지구...》

소년은 잠시후 겨우 들리게 말했다.

《아마 죽은것 같어요...》

그 음성은 슬프게 들렸다.

《...》

사수도 나도 묵묵히 걸기만 했다. 무슨 말을 하랴. 그 순간의 소년은 열두살짜리 아이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금시 그의 입에서 《우리의 마을과거리, 학교가 불타고있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수있어요?》 하는 말이 튀어나올것 같았다. 설사 《미제침략자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거예요.》 하는 말이 나온다고 하여도 놀랍지 않을것 같았다.

그렇다. 그는 아이답지 않았다. 《별 하나 나 하나》 하는 동요를 부르며 쳐다볼 밤하늘아래를 《나 하나면 포탄 하나》 라고 생각하며 걷는 소년이 어찌 어린애라. 그에게는 어린시절의 동요가 없었다. 어린시절의 동요, 일생이 아무리 길어져도 다시는 있을수 없는것, 언제 돌아보아도 한생에서 신비한 보석처럼 빛을 뿌리는 어린시절의 동요...소년의 모습은 어머니를 잃은 나의 상실감을 더크게 해주는듯했다. 우리가 잃은것이 어찌 그뿐이라...

《어데로 가세요?》

녀인의 물음이 었다.

《x 산까지 갑니다. 어데까지 갑니까, 아주머닌?》

녀인의 입에서는 대답대신 《어마나》 하는 질겁한듯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내애까지 킬킬대며 웃는바람에 우리는 당황했다.

《응?》

그제야 눈여겨보니 머리수건에 둘러싸인 둥그런 얼굴에서는 아직 애티까지 느껴졌다. 처녀였던것이 다.

《허-! 이거 실수했는데.》

사수는 소리내여 웃었다. 그는 어떤 일에도 당황하는적 없는 로대원이었다.

하기는 또 보는 사람의 실수라고만 하기도 어려웠다. 처녀의 옷차림은 그토록 투박스러웠다. 그에게서는 옷차림때문에 밤을 못자기도 하고 걸음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처녀다운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온몸에 먼지를 함뿍 들쓰고 피로에 지쳐 터벅터벅 걷고있었다. 자기 외모가 어떻게 보이겠는가에는 관심이 없는것 같았다. 하늘을 자주자주 쳐다보며 소를 재촉하기만 할뿐이었다. 적의 비행기들이 날칠 시간이 되었던것이다.

그런 처녀의 모습 역시 소년의 모습처럼 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머리칼 단오리까지 몇번이고 쓸어올리는 처녀시절을 모르는듯했다. 그시절을 잃었다고 할가, 아름다운 꿈과 수줍음에 찬 처녀시절을...

그때 나에게게는 모든것이 가슴아팠다. 만나는 사람마다에게서 내가 어머니를 잃고 느끼는 상실의 아픔을 보았다. ...

《그래, 어데까지 갑니까. 처녀동무?》

사수의 물음이였다.

처녀는 잠시 x X 산쪽을 보고나서 대답했다.

《저 산너머까지 가요. 어마나, 이 소가...》

처녀는 당황해했다. 소가 큰길에서 갈라진 소로길로 내려선것이였다. 처녀는 소의 코뚜레를 잡고 큰길쪽으로 끝었다.

사내애가 무슨 말을 할듯 입을 벌렸으나 처녀의 얼굴을 보고는 입을 다물어버렸다.

《풀냄새를 맡은게로군.》

사수가 중얼거렸다. 처녀는 얼른 긍정했다.

《그런것 같아요.》

소로길쪽에 새벽이슬이 뽀얗게 내린 푸른 풀밭이 보였다. 소는 크게 숨을 몰아쉬고는 느릿느릿 큰길로 올라섰다.

처녀의 후렁후렁한 덧저고리앞설이 펄럭거렸다. 안에 입은 흰저고리와 8자로 맨 고름, 그 8자의 복판에 있는 무엇인지 알수없는 돈잎만한 빨간것이 얼핏 보였다. 무엇일가 혹시 부상병을 나르다가 묻은 피자국이 아닐가, 하기는 별의별 일을 다 겪어야 하는 전선길이다. 전선길의 하루밤이면 무슨 일인들 없으랴...

그사이에도 달구지는 계속 굴러가고 있었다. 빼그덕거리면서도 꾸준하게 변덕없이 굴러갔다. 얼마후에는 커다란 함지를 이고가는 한 로파를 따라잡았다. 함지의 무게 때문인지 로파의 허리는 초생달처럼 꼬부라져있었다.

처녀는 그의 함지도 달구지에 실어주었다.

《어휴-! 날것 같구만!》

그러나 로파의 걸음은 말과는 달리 여전히 그본새였고 허리도 별로 퍼지지 않았다.

《할머닌 어데로 갑니까?》

사수가 물었다. 로파는 달구지열관을 붙잡고 종종걸음으로 따라서며 대답했다.

《아들한테로 가네.》

《아들한테? 그런데 뭘 이렇게 무겁게 이고갑니까? 년세도 퍼그나 많으신것 같은데...》

《아이고, 좀 천천히 가세나. 숨차서 따라가겠나.》

로파는 날것 같았던 말은 어느새 잊어버렸는지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달구지를 그의 걸음에 맞추 수는 없었다. 언제 적비행기가 나타날지 몰랐다. 대피할곳도 없는 논밭가운데의 외통길이었다. 로파는 계속 지내 빠르다고 화를 냈다. 《할머니도 아예 달구지에 올라앉는게 어떻습니까.》

사수가 해결책을 내놓았다....

로파는 달구지에 올라앉자 기분이 좋았다.

《내 나이 지금 일흔셋이라오. 우리 늙은것들이야 자식들을 찾아다니는게 락이지. 뭘 가져다 쥐여주고. 젊은것들은 빈손에 다녀두 늙은것들이 빈손으로 다니는걸 본적이 있소? 갈덴 또 오죽 많다구. 늙은것들이야 그저 죽는 날까지 이렇게 보파리를 이고다니다가 죽지. 그게 팔자라니.》

수다스러운 로파였다. 하긴 나이가 많으니 말할것도 많을것이다.

《아들은 어데 있는가요?》

《자네들처럼 군대질을 한다네. 너무 소식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며칠전에 옷마을 배나무집령감이 XX 산너머 마을에서 우리 아들같은 군대를 봤다질 않나?》

《아- 그래서 가는길이구만요!》

사수는 감탄했다. 로파는 입을 호물거려였다. 《그렇지 않구야 이 바쁜 농사철에 어델 가겠나? 평화시절도 아닌데... 우리 아들은<지금에 어느때라고 찾아다니요? 농사를 잘 지을 생각을 않구!> 할지도 몰라. 뭘 농사 잘 짓는게 전선원호를 잘하는거라나. 그래도 에미맘이야 어데 그런나.》

어머니 마음, 나는 생각했다. 나의 어머니도 생전에 내가 있는곳을 알았으면 이렇게 찾아 떠났을것이다. 허나... 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다.

《참, 자네들 리영기라고 모르나? 그게 우리 아들 이야.》

《리-영기요-?》

사수는 말을 길게 끌더니 나를 건너다보았다.

《어에서 들은것 같잖아? 가만있자- 어에서더라- 아 그렇지! 여-! 그 우리 이웃중대에 리영기라는 친구가 있잖았던가? 있었지?》

이웃중대에는 리영기란 이름을 가진 전사가 없었다. 사관중에도 없었다. 그러나 사수의 시선은 나에게 긍정할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것도 열렬하게... 나는 《명령》대로 했다.

《있었습니다. 있었쥬요!》

사수는 주먹으로 허공을 탁 쳤다.

《옳단말이야! 리영기였어!》

하고 그는 로파에게 말했다.

《틀림없습니다! 그 동문 지금 잘있습니다! 손톱 하나 다치지않고 황소처럼 건강해서 잘 싸우고있지요!》

로파는 사수를 미심쩍게 쳐다보았다.

《자네들은 남쪽에서 들어오면서 저 산너머에 있는 우리 영기를 어떻게 아나?》

《원 참 할머니두...》

사수는 껄껄 웃었다.

《군대라는건 어제까진 전선동부에 있다가도 오늘은 전선서부에 가있을수도 있답니다. 명령 하나면 하루밤에 천리라도 간단말입니다. 저-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얼굴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지요?》

하고는 자기 얼굴주위에 손바닥으로 이렇게저렇게 형용을 했는데 둥근 얼굴로도 긴 얼굴로도 해석할수 있는 애매한것이였다.

로파는 그를 멍하니 쳐다보더니 대답대신 축축해진 눈가를 훔쳤다. 사수는 의기양양했다.

《보십시오! 내 말이 맞지요? 그 친구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한답니다.》

하고 그는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용감하고 대담하고 민첩하고 명사수고... 이야기가 얼마나 풍부하고 실감있었던지 나는 그가 정말로 리영기라는 전사를 알고있는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까지 했다.

로파는 말없이 들으며 눈가를 훔치고있었다.

아들을 찾아가는 어머니, 그 배나무집령감이 봤다는 아들같더라는 군대가 정말로 아들이 올것는지. 또 틀림없다고 해도 찾을수 있으려는지... 어제까지 있었다 해도 오늘은 벌써 수백리밖으로 갔을지도 모른다. ...

삐걱거리는 달구지바퀴, 절렁거리는 소방울소리, 달구지는 굴러가고있었다. 일행은 다섯사람... 태고적부터 이 땅을 굴러온 달구지와 우리 일행은 어찌보면 전쟁의 한 단면인듯했다.

유년시절을 잃은 소년, 어머니의 기쁨을 잃은 어머니, 사랑을 줄곳없는 어머니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데 있으랴. 또한 처녀시절을 잃은 처녀와 어머니를 잃은 아들- 나 그리고 전쟁 2년간의 분노와 슬픔을 웃음과 룡담으로 감추며 걸어가는 사수,... 우리 일행은 전쟁을 겪는 우리 인민의 축소판인듯했다.

주위에 펼쳐진 폐허와 폭탄구멍이들, 이맘때면 애벌깎을 때는 김매기군들이 줄지어 섰을 논밭도 텅 비여있었다. 논밭을 헤엄쳐야 할 제초기와 농립모, 머리수건들, 홍겨운 발갈이타령과 농부가의 선률... 아, 우리는 얼마나 많은것을 잃었는가, 다시는 찾을수 없는 그런것들까지도...

《참, 내 정신보지. 여보게들, 이 떡이나 좀 맛보라구.》

하고 로파는 함지를 동여맨 끈을 풀었다. 떡함지였다. 그는 나와 사수에게 한개씩 집어주었다. 처녀는 사양했다. 로파는 보자기를 도로 덮었다. 끈으로

동여매려다가 뻔히 쳐다보는 사내애와 눈길이 마주치자 한숨을 쉬었다.

《엇따, 너도 먹어라.》

사내애는 떡을 받아들며 첻소리를 냈다. 그럴만했다. 로파는 한개씩만 주고는 도로 꼭꼭 동여맨 것이었다. 린색한 로파였다. 그대신 말은 구수했다.

《물망질해서 한 떡이니 맛있을게야. 참기름을 발랐다네... 아이고!》

달구지가 왈랑하는 바람에 로파는 옆판에 몸을 쫓고 비명을 질렀다. 처녀가 소궁둥이를 채찍으로 후려친 것이었다.

《이라!》

처녀는 로파의 비명을 못들은듯 연신 채찍을 휘두르며 우리에게 소리쳤다.

《비행기예요!》

아침노을이 타오르는 하늘은 말쑥했으나 귀기울이자 풍명이 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지평선에 까만 점이 나타났다. 적비행기였다.

처녀의 예리한 목소리와 왈랑질랑 들추는 달구지 소리, 소는 거의 달음박칠치듯 굽을 옮겨놓고 있었다. 달구지우에서는 로파의 비명소리가 연신 터져 나왔다. 꼬부라지고 마른 로파는 뒤집어질 듯 들추는 충격에 금시 바스라지는 듯했다.

《아이고! 떡함지. 떡함지가 뒤집어진다 -!》

사수는 달구지를 밀면서 소리쳤다.

《가만계시우. 할머니! 떡함진 뒤집어져도 달구지우에 있을테니 몸이나 잘 건사하시우!》

《아이고, 떡함지가! 아이고!》

처녀는 눈물에 젖어서 소리쳤다.

《이라! 이라! 이라-!!》

-음메- 반항하듯 터져나오는 소영각소리.

이렇게 논벌가운데로 뻗은 외통길에서 태고적모양 그대로인 달구지가 비행기와 의 싸움이 벌어졌다. 그것은 비상한 싸움이였다.

앞에서는 처녀가 눈물에 젖어 골며 소리치고 뒤에서는 사내애까지 셋이서 밀어대고 달구지우에서는 달구지의 력사만큼 살아온듯싶은 꼬부라진 로파가 떡함지를 불안고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그러나 달구지는 비행기와 평기할수 없었다. 비행기는 벌써 머리우에서 우르릉거렸다. 달구지를 발견한듯 유유히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대피하시오!》

사수는 소리치며 중기관줄을 들어내렸다.

로파는 떡함지를 그려안고 허둥거리기만 했다. 사수가 그를 덥석 안아쳐들자 떡함지까지 같이 쳐들렸다. 사수는 화를 냈다.

《아, 그건 좀 버리시구려!》

그러나 로파는 종시 떡함지를 불안은채 논두렁까지 쳐들려왔다. 논두렁에 둘러앉아 화를 내며 사수에게 소리쳤다.

《이게 뭐기에 내버려? 아들이 군대나갈 때도 못해먹인 떡이야! 떡이라면 오금을 못쓰는 애인데...

에미맘도 모르는 녀석들! 그 생각을 하면 물인들 목구멍을 제대로 넘어가는줄 아나?》

우리는 한마디 할 경황도 없는데 그는 할 말을 다했다. 늙은이다왔다.

적비행기는 급강하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처녀가 우리를 뿌리치고 길로 달려나갔다.

《소가! 소가!...》

기총탄이 길바닥을 누벼냈고 폭탄이 길옆의 논에서 작렬했다. 감탕의 소나기가 쏟아졌다.

달구지가 폭풍에 한쪽 바퀴를 쳐들고 모로 자빠졌고 땅에서 벗어난 소가 왕-하고 소리지르며 네굽을 놓고 뛰기 시작하였다.

처녀는 고삐를 잡았으나 소를 멈춰 세울수는 없었다. 소에게 줄을 끌려갔다.

적기는 선회하고는 다시 기수를 숙였다.

《동무- 서시오-!》

그러나 처녀는 소고삐를 놓지 않았다. 쓰러졌다는 일어서고 일어섰다가는 쓰러지며 끌려가는 그의 얼굴에서는 피가 흐르고있었다. 적기는 그뒤로 기총탄을 퍼부으며 따라가고있었다.

나는 땅을 차고 일어났다. 두주먹이 와들와들 떨렸다. 저놈을, 저 비행사놈을 땅에 끌어내릴수는 없는가! 어머니의 최후를 보는 듯했다.

그때 사수의 목소리가 귀전을 때렸다.

《부사수! 탄띠 -!》

그는 벌써 중기관총앞에 엎드려있었다.

나는 달려갔다. 탄띠를 물렸다. 그러나 좌지가 없었다. 어떻게 적기를 겨누고 쏘단말인가. 분노밖에 없었다. 나는 총차밑에 잔등을 들이밀었다.

《쏘십시오!》

사수는 나를 밀어던졌다. 중기를 안고 달구지로 달려갔다. 허공에 쳐들린 바퀴우에 올려놓았다.

《탄띠 -!》

중기관총은 총구를 하늘로 쳐들고 빙빙 돌아갔다. 믿음직한 중기관총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다. 탄피가 우박처럼 쏟아졌다. 그 친숙해진 총소리가 침착성을 되찾게 해주었다. 적기는 올라가는 총탄에 놀랜듯 급히 기수를 쳐들었다. 한바퀴 선회하고는 다시 내려쏘지기 시작하였다.

중기관총 총구에서 불꽃이 끊임없이 튀겨났다.

적기의 기수에서도 불꽃이 빙글거렸다. 기총탄이 달구지주위에 폭폭 박혔다. 두 총탄이 공중에서 서로 부딪칠 듯했다.

불시에 짱-하는 소리와 함께 중기관총이 흠뻑하고 떨었다. 방열통에서 흰김이 총알처럼 뿜어나왔다. 뿜어진 것이었다.

《부사수!》

나는 어쩔바를 몰랐다. 께어진곳으로는 김섞인 끓는 물이 뿜어나오고있었다. 적비행기의 동체와 날개에 그린 흰별이 놀랄만큼 커졌다. 하늘이 어두워지는 듯했다. 나는 께어진곳을 덥석 손바닥으로

들어막았다. 뜨거움도 미처 느끼지 못했다. 푸들푸들 뛰는 중기관총의 진동을 느꼈을뿐이었다.

갑자기 적기가 기수를 쳐들었다.

사수의 웨침이 높이 울렸다.

《맞았다!》

나는 비행기를 쳐다보았다. 정말 맞았는가. 적기의 동체에서 푸른 연기가 담배대에서처럼 가늘게 피어오르는것이 아침해빛속에서 똑똑히 보였다.

사내애의 환희에 찬 웨침이 길게길게 울렸다.

《맞았다-아-!》

나는 덴 손의 아픔을 느꼈다. 방열통에서 흘러나온 붉은물이 땅을 꺼렇게 적시며 김을 올리고있었다.

적기는 기수를 폭 떨어뜨렸다. 연기를 뿜으며 산너머로 사라져버렸다. 뒤이어 산너머에서 둔중한 폭음이 울렸다.

그러자 텅 빈듯 하던 논판에서 사람들의 모습이 솟아났다. 풀을 잔뜩 꽃고있어서 아까는 분간할수 없었던 김매기군들이었다. 그들은 만세를 부르고있었다. 주위의 산들에서도 손을 흔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그마하게 보였다. 그리고 자욱히 서린 초연도 분간해볼수 있었다.

적기를 쏜것은 우리만이 아니었다. 수십정의 기관총과 고사총이 적기를 쏜것이였다. 어느 총알에 맞았는지는 알수 없는 일이었다....

사수와 처녀는 넘어진 달구지를 바로 세우느라고 분주히 돌아갔다. 로파는 나의 덴 손을 동여주며 연신 허를 끝끝쳤다.

《얼마나 아플고? 살까지 다 뺏구만!》

사내애는 나와 사수의 주위를 뱅이처럼 돌아치며 우리의 무훈담을 완성하기에 분주했다.

《글쎄 난 아저씨들이 맞았는가 했겠어요. 흰 연기가 물씬나기에 (방열통이 켜졌을 때일것이다) 이젠 죽었구나 했어요. 그런데 총소리가 계속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미국놈비행기에서 불이 펴 하잖겠어요. 총알이 쑥 올라가서 딱하고 맞았던말이에요. 난 총알이 올라가는걸 봤어요.》

로파는 나의 손을 몇번이고 다시 동여주며 말했다.

《쫓쫓, 에미가 봤으면 얼마나 가슴아플고. 에미는 어디 있나?》

《세상을 떠났습시다. 폭격에...》

《어휴-》

로파는 나를 멍하니 보았다. 천천히 나의 옷에 묻은 풀검불을 뜯어주었고 모자를 바로 잡아주었다. 그것은 그 자신도 의식 못하는 그 어떤 본능적인 동작인듯했다. 나는 눈앞이 흐려움을 느꼈다. 누구의 손길이 이랬던가...

처녀와 사수는 달구지를 바로 세워놓았다. 다 깨여진것 같았는데 세워놓고보니 아무렇지도 않았다. 하도 단순한 구조여서 깨여질것도 없는것 같았다.

사수는 로파의 떡합지를 끄하고 달구지에 올려놓았다.

《자- 또 떠나봅시다, 할머니.》

《...》

로파는 나의 봉대놓인 손을 다시 한번 어루만지더니 천천히 머리수건을 고쳐썼다. 한동안 나와 사수를 바라보기만 했다.

《잘들... 가보라구... 난 가겠네.》

잠긴듯한 목소리였다.

우리는 어리둥절했다.

《가다니요?》

《집으로 가야지. 논밭에 일손이 얼마나 그림다구.》

나와 사수는 거의 동시에 소리쳤다.

《그럼 아들은 안만나구요?》

로파는 대답대신 떡합지의 끈을 꼭꼭 동여댔다.

《이건 가져다가 자네네들이 조금씩이라도 맛보게나.》

《에?!》

로파의 쪼글쪼글 주름살진 눈가에는 눈물인지 미소인지 분간 못할것이 어리었다.

《앞으로라도 우리 아들을 만나면 이 에미 이야길 해주게나. 리영기라구. 키가 이렇게 크고 별이 세알이라네. 중대장이야.》

《에?!》

시수는 실색하여 부르짖었다. 나는 그가 당황해하는것을 처음으로 보았다.

로파는 수건끝으로 눈가를 닦았다.

《잘 가라구... 내 아들도 잘 싸우면 이렇게 해주는 에미들이 있겠지... 세상엔 아이들이 있는만큼 에미들도 있다네.》

로파는 돌아섰다. 올 때처럼 꼬부장하고 걸어갔다...

다시 떠났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달구지우에 중기관총과 나란히 멍그랑게 놓인 떡합지에서 눈을 땔수 없었다. 되돌아간 어머니. 이 세상에는 아이들이 있는만큼 어머니들이 있다... 모자를 바로잡아주던 그 손이 다시 떠올랐다. 아 그 손 - 어린시절부터 내 몸의 한부분처럼 느껴지던 어머니의 그 손...

사내애가 앞에 와서 머리를 꾸뻑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응?》

사내애는 달구지바퀴자리가 깊숙이 패인 소로길에 한발을 짚고 서있었다. 해를 쳐다보고는 미안하기라도 하듯 뒤더수기를 굵적거렸다.

《공부시간이 다돼서...》

《공부? 학교가 타버렸더니?》

《학교가 탔다고 공부도 못하나요 뭐.》

소년은 다시한번 머리를 꾸뻑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할 때 그렇게 할것이다.

얼마후에 돌아보았다. 경충경충 뛰여가는 소년이 보였다. 만시름을 털어버린것 같았다. 그는 쑥대풀

이 무성한곳에서 멈춰섰다. 무엇을 찾는지 쑥대풀을 헤치기 시작했다. 잠시후 동그란 물건을 끄집어냈다. 다이야도 살도 없는 자전거바퀴였다. 그 시절의 아이들이 즐겨 굴리며 다니던 굴렁쇠였다.

소년은 나무꼬챙이를 하나 꺾어들고는 굴렁쇠를 굴리며 달려가기 시작했다. 굴렁쇠는 달구지바퀴자리들에서 툼툼툼툼 튀어오르며 굴러갔다.

굴렁쇠를 굴리며 달려가는 소년, 그는 포탄을 지고 밤길 걸은 어른같은 그 소년과는 비슷치도 않았다. 틀림없는 열두살짜리 장난꾸러기 소년이었다. 그 모습이 왜 그리도 가슴을 후련하게 하던지...

x x산기슭에서 우리는 중기관총을 내렸다. 사수는 의례적으로 물었다.

《아직 됩니까. 동무네 마을은?》

《아니예요. 다 왔어요.》

주위에는 아무 마을도 없었다. 집조차도 없었다

《어느 마을인가요?》

처녀는 지나온곳을 가리켰다.

《저-기 저 마을이에요.》

그것은 비행기와 접전이 벌어진곳보다도 더 전에 있는 마을이었다.

《아니 그럼 ?》

처녀는 우리의 중기관총때문에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소가 갈림길로 들어섰던것도 그래서였다. 소는 풀냄새가 아니라 정든 자기 집의 구수한 콩여물냄새를 맡은 것이었다.

우리의 놀람에 처녀는 미소로 대답했다. 머리수건을 벗으며 머리를 숙였다.

《그럼- 잘 싸워주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치렁치렁한 머리태가 땅에 닿을듯이 드리웠다. 하여 마치도 그가 큰절을 하는듯이 느껴졌다. 우리의 손이 어떻게 모자에 올라갔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했다.

그가 머리를 들었을 때 나는 그의 가슴 저고리고름에서 다시금 빨간 그 무엇을 보았다. 이번에는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한송이의 빨간 꽃이었다.

어떻게 저 꽃이 거기에 꽃혔을가. 풀과 나무가지로 위장할때 우연히 끼운것일까... 아니었다.

그것은 덧저고리안의 저고리고름에 뿌리내린듯이 꽃혀있었다. 위장하다가 발견하고 누가 볼세라 소심스레 꺾었을 꽃송이, 그것은 행복과 사랑에 대한 공상을 남몰래 키우는 처녀의 수줍은 꿈속에서 피어난 꽃이었다! ...

그보다 더 아름다운 꽃을 나는 아직 알지 못한다. 그 꽃송이를 보자 나는 상실의 아픔으로 괴롭던

가슴이 서서히 진정됨을 느꼈다. 되돌아간 로파와 굴렁쇠를 굴리며 간 소년, 빨간 꽃송이...

우리가 무엇을 잃었던말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유년시절도 처녀시절도 어머니로서의 행복도! 적들은 우리에게서 그 무엇도 빼앗지 못했다. 해방후 5년간 장군님의 품속에서 이룩된 우리의 생활은 그 어떤 원쑤도 빼앗을수 없는 것이었다! ...

나는 천천히 걸었다. 그날의 구불구불 뻗어갔던 전선길. 빨간 꽃송이...

안에서는 여전히 장난감자동차가 달달거리며 굴러가고 있었고 신발의 먼지를 닦은 처녀가 또박또박 걸어가고있었다.

뿔대를 쳐들고 굴러가는 전차, 미끄러져 달리는 승용차들, 오가는 사람들, 창문들의 탑같은 고층건물의 거리, 부동의 자세로 서있는 가로수들... 30여년전의 그 길과는 조금도 류사한것이 없었다.

그러나 왜서인지 30여년전의 그 길을 회상케했다. 무엇때문일까. 머리우에 드리운 전쟁의 검은구름때문일까... 그때의 사람들과 오늘의 사람들, 그 전선길과 오늘의 출근길, 비슷한것은 조금도 없었다.

허나 오늘의 이 길이 그날의 전선길이 끝난곳에서 시작되었다는것은 명백했다.

이 출근길과 그날의 전선길은 하나의 길이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30여년의 긴 세월 걸어온 먼길이다. 참으로 먼 길이었다. 이 길의 시작이 전선길과 잇닿아있다는것을 망각할만큼 먼길이었다. 그러나 그 먼길에 평화로운 걸음은 한발자국도 없었다. 적들의 도발의 연속, 한시도 멎은적 없는 분계선의 총소리... 그속을 변함없이 흘러온 우리 생활의 궤도,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것이다! 30여년간 우리는 변함없는 전선길을 걸어왔다! 저 처녀의 발걸음마다에는 그날의 빨간 꽃송이가 어려있는것이 아닌가.... 나는 건설장을 돌아보았다.

기증기는 계속 부채를 물어올리고있었다. 뱅뱅히 행기운 쇠바줄이 악기의 금선처럼 떨었다.

높은곳에서 움직임이 멎는다고 하여 힘이 없어지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축적된 잠재에네르기를 의미하는것이다. 매일같이 높아가는 거리와 거리, 거기에는 얼마나 무한대한 에네르기가 축적되고 있는것이라. 부채는 계속 올라가고있었다.... 높이높이 올라 가고있었다.

등근 하늘을 푸른 문자판 삼아 축력계의 바늘처럼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

## 지향

오광호

## 1

외투깃을 세우고 검은색 중절모를 푹 눌러쓴 조영진은 두손을 주머니에 깊숙이 찌른채 땅바닥만 보며 걷고있었다.

도로는 온통 수라장이었다. 차처에서 불길이 솟고 달리던 차가 곤두박히고, 사람들이 울부짖고... 허나 영진은 그 모든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그저 눈과 얼음버캐와 흙물로 죽탕이 돼버린 길위로 휘적휘적 무거운 걸음을 옮길뿐이었다. 벌써 이틀째 이렇게 걷는 그였다.

따공따공... 멀지 않은곳에서 요란한 총성이 울렸다. 뒤미처 등뒤 북쪽으로부터 육중한 군용차들이 당장 짊어뭉겔듯 마구 달려와 연방 옆을 스치며 지나갔다.

철썩... 바퀴밑에서 꺾쪽한 진창이 튀거나 발등에 와 떨어졌다. 영진은 머리를 들지 않았다. 옆으로 조금 비켜섰을뿐이었다. 보지 않아도 남으로 황급히 몰려가는 미군부대일것이었다. 적재함들에는 머리와 팔, 다리에 봉대를 감고 모포며 외투를 잔뜩 뒤집어쓴 부상병들이 우둘우둘 떨고있을것이고...

한손으로 길옆 전주대를 짚고 우두커니 서있던 영진은 얼굴에 들쭉워지는 배기가스에 눈살을 찌프리며 돌아섰다.

허공을 더듬던 그의 눈이 거무스레한 전주대에 나붙은 한장의 종이에 가 멎었다. 빠라였다. 한쪽귀 통이가 찢어져 바람에 펄럭거리는 빠라엔 《원주들의 원자탄선전》이라는 글이 큼직큼직하게 쓰여있었다. 찢어져나간 조각에는 《에 속지 말라!》라는 글이 써있을것이었다.

그는 돌아섰다.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이미 열번도 더 보았고 더우기 자기는 피난민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마치 보이지않는 그 누가 지못게 앞을 막아나서는듯 싶었다. 요즘 그의 주변에서 맴돌며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지켜보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어데루 가오?... 어데루...》 그 사람이 묻는 말이었다.

(아니, 가자... 더 생각하지 말고 가자...헌데 그 사람은 누군가? ...왜 날 지켜보는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멀리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솟은 구월산 봉우리를 망연히 바라보던 영진은

마치 자신을 나무라듯 머리를 한번 흔들고는 길은 배기가스가 검은 장막처럼 늘어지는 길위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허나 영진은 다시 멈추어섰다. 분명 누군가 찾은듯싶었고 자기가 꼭 그 소릴들은듯싶었다. (착각이다... 누가 날 찾겠는가... 그런데 저 사람들은...) 영진은 다시 걸음을 옮기며 앞서 가는 몇몇 사람들을 우유히 바라보았다.

(저 사람들은 왜 가는가?... 저들도 죄를 졌는가?... 그럴수 있다.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빚어졌는가...) 그는 마치 어두운 구석으로 내빼는 바퀴 몇마리를 보는듯싶었다. 남자고, 녀자고 모두가 몸을 웅송그리고 그 누구를 피하듯 머리를 푹 떨구고 걷고있었다. (저것도 그래 인간의 모습이란말인가?... ) 영진은 또 한번 눈을 들어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다 (아니다. 그럴수 없다. 그럼 저들은 무엇인가?... 지금 저들은 삶의 욕망을 가진 하나의 고기덩이에 불과할뿐이다...)

《목숨... 목숨이란 무엇인가?...》라고 뇌이는 그의 눈앞에 최근에 있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새로 써붙였던 학교간판과 교실에 날아들었던 돌멩이 그리고 증오에 차 쏘아보던 애들의 눈길과 방바닥에 떨어졌던 쪽지의 글씨... 재빛토끼털모자를 쓴소년과 흰 명주수건을 감은 소녀가 집요하게 묻고있었다. 《아저썬 누구나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나요? ...》

영진은 비칠거렸다. 이제는 정신도 육체도 지칠대로 지친 그였다. (가자, 더 생각하지 말고 가자. 그들은 아마 날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아니...용서를 빌수도 없다.)

그는 눈을 감았다. 발밑에서 꾸덕꾸덕 얼어붙고 있는, 발고랑처럼 깊숙이 패인 길이 종잡을수 없이 오르내렸다.

《어데루 가오?... 어데루...》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듯싶었다. 순간 얼어서 퍼렇게 색이 변한 그의 얼굴에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자기는 피난민이 아니라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비웃듯 머리를 들었다. 바람이 불었다. 눈가루가 일고 외투자락이 날렸다. 그는 또 한번 비칠거렸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그는 입술을 강물

며 속으로 뇌였다. 이제 저 굵인돌이를 돌아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있을것이고 그마을에 들어서면 7촌 별 되는 로인이 살고 있을것이었다. 그러니 그 집에 들면 하루밤을 꼭 쉴수 있었다. 비척비척 무거운 걸음을 옮기던 영진은 무엇인가 발앞에 놓인 시커먼 나무토막같은것에 문득 눈길이 미쳤다. 그는 주춤 멈추어섰다. 그것은 앞으로 쪽 내뺀친 사람의 팔이었다. 그 팔은 길 옆도랑에 넘어진 시체에 붙어있었다. 영진은 가슴이 섬찝했다. 하면서도 그는 흔히 모든 사람들이 그러듯 죽음이 풍기는 그 어떤 신비한 힘에 이끌려 무시무시해보이는 그 시체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아!...》 순간 영진은 입을 싸쥐며 물러섰다.

쓰러진 사람은 전쟁전 그가 지도원으로 일하던 군소비조합의 인수원이었다. 인생의 목적을 오직 돈으로 보고있던 그 사람은 후퇴가 시작되자 곧 읍한복판에다 술집을 차려놓고 치부에 정신이 없었고 바로 3일전에는 영진을 길가에서 만나 《여보시오. 인민군대가 나오는데 뭘 우물거리시우. 나나 조선생같은 사람은 대뜸 싸갈길거우다.》 하며 황황히 어디론가 달려갔던것이었다. 그러던 그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웃도리도 신발도 그때 지고있던 배낭도 없이 넘어져있었다.

영진은 전신이 화들화들 떨리며 속이 메스메스해났다. 장사군은 마지막순간까지 살자고 애를 쓴듯길우에 얼어붙은 돌맹이를 꽉 틀어잡고있었다. 그것을 보는 영진은 돈과 목숨을 위해 돌아치던 장사군의 모습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여기 길우에 넘어진것은 벌써 인간이 아니였다.

영진은 온몸을 떨며 돌아섰으나 선뜻 걸음을 땔수가 없었다. 마치도 자신의 래일을 보는듯싶었다. 그렇다. 지금은 장사군이 쓰러졌지만 래일은 자기가 죽어 넘어져 어느 길가에서 이렇게 나뒹굴것이었다. 어쩔수 없었다. 그렇다고 돌아설수도 없었다. 죽으나 사나 이젠 이 길밖에 다른 길은 더 없었다. 영진은 걸음을 옮겼다. 어느덧 길우에 덮인 어둠에 싸여 그는 보이지조차 않았다.

## 2

그는 대문앞에 서있었다. 벌써 두번씩이나 주인을 찾았지만 어둠에 잠긴 집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어디로 피난갔는가?... ) 라고 생각하며 또 한번 주인을 찾는 영진의 목소리는 갈리고 떨렸다.

《계십니까?...》

이때였다. 마당 한쪽 땅속으로부터 희미한 한줄기 불빛이 새어나오더니 뒤미처 시커먼 사람의 모

습이 불쑥 솟아올랐다. 분명 허리가 구불고 키가 자그마한 남자였다. 영진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어떤 룩감을 느꼈다. 틀림없는 그 로인이였다. 《숙부님 ...》

그는 목이 짹 메여 겨우 로인을 불렀다, 로인이 흠칫 몸을 떨며 이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접니다. 영진입니다.》

《누구? ...》

로인은 잠시 서있다가 주춤주춤 대문앞으로 다가오며 다시한번 물었다.

《누구요?》 《숙부님, 영진입니다.》

《영진이?... 아니...》

놀란 로인이 황황히 빗장을 벗기고 대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마당에 들어서는 영진의 손을 와락잡았다.

《이게 웬일이요... 큰 조카가 어떻게?...》

아직은 그가 무릎에 안겨놓던 그 시절부터 벌써 종가집 장손이라고 중히 여겨주던 로인이였다. 로인의 꺼슬꺼슬한 손을 잡고 마당에 선 영진은 가슴이 찌르르해났다. 이름할수 없는 온정이 뜨끈한 피처럼 온몸으로 흘러들며 만사를 몽땅 쏟아놓고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게 했다. 그러면 순간이나마 마음이 열릴것 같았다.

《어서 들어가지.》 로인이 그의 손을 잡아끌며 앞장섰다.

방안은 후끈했다. 벽기둥에 낮추 걸어놓은 기름등잔이 노전을 깬 바닥과 천정을 빛과 그늘로 절반나마 갈라놓아 마치 납작한 껍적속에 들어앉은감이났다.

문에는 두툼한 담요를 쳐놓아 밖으로 불빛이 새지 않게 되어있었다.

《왜, 외투랑 벗지...》 부엌에 내려갔던 로인이 음식그릇을 들고 들어오며 방 한가운데 머리를 떨구고 앉아있는 그를 보고 말했다. 음식이래야 삶은 고구마 몇개에 물 한사발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마주하자 영진은 위장속에서 심한 경련이 일어나며 속이 발칵 뒤집히는것 같은 욕지기가 치밀어올라 견딜수가 없었다. 지어 그는 물도 마실수가 없었다. 물조차 별경게 보이고 역한 비린내가 물씬 풍기는것 같았다. 그는 끝내 음식그릇을 밀어놓고말았다. 《왜?》 로인이 의아해하였다.

《아니, 못먹겠습니다. 숙부님, 집에... 술이 좀 없습니까?》

《술?... 술이야 있지. 그래두...》 로인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걱정했다. 오늘 이때까지 큰 조카가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로인이였다. 영진은 눈길을 떨구었다. 로인의 얼굴을 마주보기가 죄스러웠다.



잠시 영진을 바라보고있던 로인이 음식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내려가더니 강냉이속으로 마개를 틀어 막은 까마귀병과 이빠진 사기보시기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술을 붓는 영진의 손이 눈에 띄게 후들거렸다. 그리고도 그는 선뜻 들지 못하고 그 무슨 비상한 일을 앞둔 사람처럼 보시기에 담긴 희뿌연 액체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드디어 결심이 된듯 두눈을 감고 단숨에 주욱 들이켰다. 또한번... 그리고 또 한번... 잔을 비울 때마다 목구멍이 지지는듯 뜨끔거렸고 배속으로 불뭉치가 내려가는것 같더니 차츰 온몸이 화끈화끈해지고 머리가 핑 돌았다. 웬 일인지 영진은 갑자기 무엇인가 말을 하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얼굴을 들었다. 희고 수북한 눈썹 밑에서 어질고 소박해보이는 두눈이 근심에 잠겨 지켜보고있었다.

《왜 그러우. 무슨 일이 있었수?》 그 눈이 묻는말이었다.

영진은 도로 얼굴을 숙였다. (무슨 말을 한단말인가... 내가 집을 떠났다는걸... 왜 떠났는가고 물으면... 그만두자.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수야 없지 않는가...) 그는 대답을 피하듯 또 술병을 잡았다.

《빈속에 일없겠소...》 로인이 걱정했다.

《그만하고 늙지 . 》

《예. 》

영진은 공손히 술병을 놓았다. 미안했다.

자기가 대답하지 않으면 영원히라도 묻지 않을 로인이었다. 그래서 더 어려운지도 몰랐다. 그는 로인이 자리를 펴주고 나간후에도 선뜻 눕지 못했다. 어쨌든 래일 아침 떠나기전에는 모든것을 말해야했다. 그래야 앞으로 부모님들의 산을 돌봐달라는 부탁이라도 할수 있을것이였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가슴속으로 짜릿한 애수가 흘러들었다. 다시는 돌아올수 없으리라는 그리고 나이 80이된 오늘까지 것처럼 바라고 꿈꾸어오던 그 모든것들도 그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고있는 귀중한 추억도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통털어 지금까지의 자기라는 인간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아프게 가슴을 허뼛했다. 그는 자리에 누웠다. 더 생각하기가 피로왔다. 눈을 감았다. 장사군의 얼굴이 또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살아 싱글병글 웃는 모습이었다. 그는 도망치듯 허둥지둥 내달렸다. 어디론가 향방없이 달리던 그는 물속에 풍덩빠졌다. 물은 차고 깊었다.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릴수록 몸은 점점 더 쇠덩이마냥 밀으로 가라앉았다. 《아...아...》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질렀다. 미쳐 소리가 나가기도전에 코와 입으로 차고 쓰러온 물이 사정없이 쓸어들며 목구멍을 꼭 막아버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살아야 했다. 《쉬우-》 어느새 그는 물위에 둥둥 떠있었다. 이마와

눈우에 내리덮인 젖은 머리칼을 옆으로 밀어놓자 뿌옇게 흐린 재빛하늘이 올려다보였다. 이상했다. 한낮인데도 그리고 하늘이 침침하게 흐려있는데도 머리우에서는 보석같은 별들이 밝은빛을 뿌리고있었다. 그는 즐거웠다. 손을 들어 힘껏 뻗치면 그 별들을 만져볼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손을 들지 못했다. 손만 들면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을것 같았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짚고 겨우 기슭에 나와선 그는 방금전 자기를 삼켜버렸던 그 시커먼 강물을 바라보았다. 걸죽한 기름같은 물이 흐느적 흐느적 흘러가고있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서늘해났다. 허지만 위험은 이미 지나갔다. 안도의 숨을 쉬며 스적스적 걸음을 옮기던 그는 우뚝 멈추어섰다.

눈앞에 그 애들이 서있는것이였다. 재빛토끼털모자를 쓴 소년과 흰 명주수건을 감은 소녀 바로 그 애들이였다. 애들은 여전히 그날처럼 말 한마디없이 묵묵히 지켜보고있었다. 그는 그것이 더 피로왔다. 이제 돌아설수도 없었다. 《흐읍》 그는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심판을 기다리듯 무릎을 꿇고 앉았다. 장사군이 또다시 나타나 앞뒤로 돌아가며 즐거운듯이 지껄였으나 말소리는 들리지않았다. 토끼털모자를 쓴 애가 최후의 심판을 내리듯 한손을 높이 쳐들었다. 그러자 하늘이 통채로 무너져내리는듯 요란한 우뢰 소리가 터졌다.

그 소리에 영진은 피땀 눈을 떴다. 꿈이었다. 그런데도 우뢰소리는 계속 울리고있었다. 방안의 기름불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제야 영진은 그것이 재진격해나오는 인민군대의 포성이라는것을 알았다. 가슴을 짓누르던 구름장들이 삼시에 어디론가 밀려가며 온몸이 날듯이 가벼워졌다.

《휴-》 그의 입에서 기다란 한숨이 흘러나왔다.

순간 재빛토끼털모자를 쓴 소년과 흰 명주수건을 감은 소녀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다. 그는 눈을 꼭 감았다.

온몸이 땀에 푹 젖었다. 다시 눈을 떴으나 애들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벌써 한달째 그의 마음속에 틀고앉아 자기를 밝힐것을 완강하게 요구하는 애들이였다. 《아저씨는 누구나요? 그리고 뭘 위해 사나요?》 애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이렇게 물었었다. 그러나 영진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그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물음에 쫓겨 집을 나서고말았다. 《그렇다. 내 운명은 이미 그날 결정되었었다.》 그는 속으로 뇌였다. 그것은 한달전 어느 아침에 있던 일이었다.

영진은 교원실 한복판 불꺼진 난로옆에 앉아있었다. 그앞에는 방금 영진을 쫓차에 싣고 온 키가 격두룩한 《치안대장》이 손에 든 채찍으로 기다란 장화목을 툭툭 치며 야릇한 미소를 짓고 서있었다.

《또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당신을 학교에 데려온건 여기서 선생노릇을 하던자들이 몽땅 도망쳤기때문에 그러는건 결코 아니요. 그럼 무엇때문인가...》  
《치안대장》은 그 무슨 심오한 사상이라도 도출해내는듯 방안을 두박두박 오가며 계속했다. 며칠전까지만 해도 길가에서 만나면 《안녕하십니까?》하고 반색을 하며 먼저 인사를 하던자였다.

《당신이야말로 빨갱이세상에서 버림을 받으며 살면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량심적인 인텔리기 때문이요. 소비조합지도원을 한건 먹고 살기위해 마지못해 한 일이구...》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는 버림받은 일이 없었다. 오히려 일찌기 받아보지 못한 믿음과 사랑속에서 구속을 모르며 살아왔었다. 그는 생각했다.

(그토록 서고싶던 교단에 서지 못한것도 결국은 미국놈들때문이 안닌가...)

《어서 결심하십시오.》 《치안대장》이 그 야릇하미소를 짓고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피로왔다. 길이 막혀 돌아선 걸음이 여기까지 잇달일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야말로 피할길 없는 막다른 골목에 빠진 자기였다. (그렇다. 네놈들을 위해서는 일할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자, 시간이 없소...》 더는 기다릴수 없다는듯 《치안대장》이 뺨 돌아서며 말했다. 《어떻게 하겠소. 교실로 가겠소, 아니면 우리와 같이 다른곳으로 가겠소? ...》 문결에서있던자가 어깨에 멘 총을 내리워 앞으로 쳐들었다. 영진은 일어섰다. 일어서긴 했어도 걸음을 옮기긴 힘들었다. 방금 입속에서 뱀뱀던 말은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고말았다.

그는 마치 자기 운명을 결정해줄 그 무슨 계시라도 썩여질듯 동그란 난로뚜껑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녹이 쏘였구나...헌데 이곳 교원들은 어디로 다 갔을가?...)

그는 눈을 감았다. 묵직한 총탁이 등에 와닿았다. (이것으로 모든것이 끝난단말인가...아니다. 그럴수 없다. 살아야 한다...)

허둥지둥 총구앞에서 걸음을 옮기는 영진은 가슴속으로 이름할수 없는 피로움이 조수처럼 밀려들었다.

교실에 들어선 영진은 놀랐다. 거의나 텅빈 싸늘하고 어수선한 교실에는 추위와 공포에 주눅이든 십여명의 애들밖에 없었다. 그중에는 거리의 불량배로 소문난 《려관집》아들과 그 추종자들이 둘씩이나 끼여있었다. 학교보다도 영진이네 소비조합상점이나 장마당에 더 자주 드나들던 망나니들이었다. 애들은 모두 눈이 떠준해 쳐다보았다. 때아닌 때에 교단에 올라선 소비조합지도원이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러는 애들을 보는 영진은 서글퍼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날 용서해다오. 그리고 리해해다오. 난 누굴배반해서 들어온게 아니다.》

영진은 애들을 향해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는천천히 출석부를 펼쳤다.

무엇이 재미있는지 《려관집》아들이 《킵》하고 웃었다. 이때였다. 《쟁가당》하는 유리 깨여지는 소리와 함께 영진의 발밑에 돌맹이 하나가 썩 날아들어와 떨어졌다. 깜짝 놀란 애들이 일시에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모두가 창박을 내다보며 벌떼처럼 웅성거렸다. 영진은 뻔뻔했다. 애들의 눈길을 따라 박을 살피던 그는 그만 가슴이 섬적했다. 심장이 멎는듯싶었다. 교실밖 키가 아슬한 백양나무뒤에서 몇명의 애들이 몸을 숨기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것이였다. 까딱 움직이지 않고 쏘아보는 애들...

그중에서 재빛토끼털모자를 쓴 소년과 흰 명주수건을 감은 소녀는 그가 잘 아는, 한마을에서 사는 애들이였다. 그전 같으면 《아저씨》하며 달려와 재미있는 얘기를 해달라거나 책을 빌려달라고 할 애들이였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무엇인가 묻는것 같기도 하고 열렬히 호소하는것 같기도 한눈으로 집요하게 바라보고있었다.

《아저씨 누구나요?... 그리고 뭘 위해 사나요?...》 그 눈이 묻는 말이었다.

순간 영진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딥고선 교단이 통채로 무너져내리는듯싶었다. 그는 다시 애들을 내다보았다. 애들은 여전히 지켜보고있었다. 까딱 움직이지 않고 쏘아보는 눈길... 그것은 그대로 총구였다. 비록 그 총구가 붙은 뽕지 않았어도 자기는 이미 죽은 몸이였다.

영진은 눈길을 떨구었다. 이들이 지났다. 학교에서 돌아와 마당에 들어서던 영진은 대문뒤에 떨어진 한장의 쪽지를 발견했다. 가슴이 세차게뛰었다. 서둘러 방안에 들어간 그는 창문앞에 다가가 쪽지를 펼쳤다. 그림을 그리듯 한자한자 정히 쓴 네모반듯한 글자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보고있습니다. 누굴 위해 글을 배워줍니까?》

영진은 천천히 책상앞에 가앉았다. 쪽지의 물음에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는 다시 쪽지를 들여다보았다. 그러던 그는 놀랐다. (이게 누구 글썬가? ...) 그는 네모반듯한 글자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분명 어디서 많이 본 글씨였다. 그는 어둠에 잠긴 방안을 빙 둘러보았다. 집안 어딘가 이 쪽지를 쓴 사람이 반드시 숨어있을것 같았다. 그는 초불을 켰다. 그리고 다시 살피보았다. 방안은 여전히 텅 비여있었다.

《흥, ...》

그는 자신을 비웃었다. (있으면 어쨌단말이나. 그렇다고 네 죄가 없어질줄 아느냐... 넌 이미 죽은

목숨이다.) 그러면서도 영진은 또 한번 방안을 돌아 보았다. 그 사람을 보고싶었다.

그는 온밤 가물거리는 초불앞에 앉아있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또다시 학교로 나갔다. 달리할수 없었다. 생활의 불문불이란 말이 그래서 생겼을것이였다. 그는 걸으며 생각했다. (쪽지를 쓴 사람이 누굴가? 날 아는 사람일가... 안다면 뭐라고 할가... 배반자?... 그래 배반자라고 하겠지, 그래도 난 첫날 교실에 들어서면서 애들이 리해해줄걸 기대했었지... 바보... 어리석은 바보...)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누군가 지켜보는듯싶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쪽지를 썼을것 같았다. 저앞에 학교가 보였다. 그러나 그의 두발은 뿌리를 내린듯 움직일수 없었다. ... 며칠후 학교는 그로 하여 흐지부지되고말았었다.

...

### 《덜컹》

부엌문 열리는 소리에 영진은 현실로 돌아왔다. 포성이 언제 멎었는지 사위는 고요하고 흔들리던 기름불도 곧차 타오르고있었다. 방안은 아늑하였다.

영진은 생각하였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가있을가?... 내가 집을 떠난걸 알가... 알면 뭐라고 할가?...)

귀에는 다시금 인민군대가 나오면 대뜸 싸갈길거라고 하던 장사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옳다...》 그는 나직이 부르짖었다. 《가는것이 옳다.나 에겐 지금 이 길밖에 없다. 아... 난 왜 스스로 제목을 조이지 못하는가...》

부엌에서 가마뚜껑을 열고 물을 쏟아붓는 소리가 났다. 그는 또 생각했다.

(저 숙부님은 내가 집을 떠난걸 알면 뭐라고 할가?... 그리고 그 애들과 이웃들은? 그 보이지 않는 눈길은?... 그런데 밤에 물은 왜 끓일가?...나때문에 불을 때느라고... 용서하십시오. 숙부님, 전, 죄진놈입니다.)

어느 사이에 두눈귀로는 뜨거운 물방울이 솟아올라 차츰 차지면서 귀밑으로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 3

영진은 그 누군가 움직이는듯한 느낌에 눈을 떴다. 로인이였다. 로인은 지금껏 자리에 들지 않았는지 두툼한 회색솜등거리를 걸친새 옷목에 놓인농작앞에 쭈그리고 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있었다.

《왜, 일어나나? 더 자지...》

인기척에 놀란 로인이 그를 돌아보며 당황해하였다. 웬일인지 주름이 가득 덮인 자그마한 얼굴에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떠돌고있었다.

《왜 그러십니까?...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닐세.》

로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더니 곧 다시 들어와 농작안을 뒤졌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그를 꺼려 숨기고있는 눈치였다.

《저, 이보우 큰 조카...》

안절부절하며 서성거리던 로인이 할수 없는듯 영진을 찾았다. 그러고도 선뜻 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가슴이 쓰렸다. 로인은 벌써 자기가 가는길을 짐작하고있고 그것으로 하여 지금 주저하고있는것이 분명했다. 어쩔수 없었다. 피할수 없는 현실이였다.

《말씀하십시오.》

영진은 이상하게 자신의 마음이 싸늘해짐을 느꼈다. 그 어떤 고통이라도 달게 받아들여야 할 자기였다.

《실은 내 큰 조카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로인이 떠듬 떠듬 말을 이었다.

《내 오늘 우리 집에 미국놈들에게 쫓기우던 한부상자를 숨겼다우... 움속에 말이요. 한데 그 사람이 점점 더...》

그제야 영진은 로인이 아까 움속에서 나오던 일이며 밤늦도록 물을 끓이던 일이 무엇때문이었는가 하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큰 조카가 좀 봐주오. 저리다가 혹...》

로인이 기대어진 눈으로 간절히 바라보았다. 영진은 망설였다.

(그런데 그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될수록 사람들을 피해온 자기였다. 그의 이런 마음을 들여다보았는지 로인이 일어서며 말했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우.》

그래도 로인의 뒤를 따라 마당에 나가 움속으로 들어가는 영진은 발밑에서 미끌거리는 계단 하나하나가 마치 운명의 사다다리를 밟는것처럼 두렵고 불안했다.

움속은 어둡고 눅눅했다. 곰팡내와 버짙내 그리고 쥐가 살고있는 오랜 움의 그 특유한 시크무레한내가 삽시에 그의 코를 콕 찔렀다, 영진은 목을 움츠리며 허리를 굽혔다. 머리우에서 부실부실 떨어지는 싸늘한 흙부스레기들이 목덜미로 흘러들어 등골을 타고 굴러내렸다. 로인이 옆으로 비켜서자 불그스레한 불빛속에 두툼한 이불을 덮고 누운 부상자가 보였다. 버짙단우에 포단을 깔고 누운 그 사람은 의식이 없는듯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견잡을수없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착히며 조심스럽게 다가서던 영진은 흠칫 걸음을 멈추었다.

(아니... 이게 누군가?... 이 사람은 강송범인가 아닌가?!) 그는 다시한번 부상자의 얼굴을 유심히

들어다보았다. 너부죽한 얼굴, 툭 붙겨진 광대뼈, 둥그런 이마와 꺾아서 붙여놓은것 같은 몽툰한 턱... 두볼이 폭 꺼지고 얼굴색은 꺼멓게 변했어도 그 사람은 틀림없는 강송범이었다.

(이 사람을 여기서 만나다니...)

영진은 옆에 놓인 나무등걸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불덩이같은 송범의 손을 잡았다.

《왜 그러우... 이사람을 아오?》

《예...》

영진은 로인을 돌아보았다. 알아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송범을 처음 만난것은 온 나라에 문맹퇴치 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던 1946년 12월 어느 눈오는 날 아침이었다.

밤새 내린 눈이 소복이 덮여있는 영진이네 마당으로 《팔랑팔랑》 가벼운 방울소리를 내며 소발구 한대가 천천히 들어섰다. 발구군도 발구도 온통 솜덩이같은 눈에 하얗게 씌여있었다.

《저, 이 댁이 조영진선생님 댁인가요?》

발구군이 모자를 벗어들며 공손히 묻는 말이었다. 둥그런 이마밑에서 류달리 커보이는 서글서글한 두 눈이 가벼운 웃음을 담고있었다.

《예, 제가 조영진입니다.》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눈가래를 손질하던 영진이가 엉거주춤 일어섰다. 발구군이 반가운듯 큼직한 입을 벌리고 벌썬 옷더니 굵석 허리들 굽혀 절을 했다.

《처음 뵙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싱글벙글하며

《전 남촌에 사는 강송범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와 성인학교 글을 가르치신다기에...》라고 자기 소개를 했다. 《그럼 절 데리러? ...》

《예.》

영진은 놀랐다. 그다음은 당황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때문에 일부러 왔단말인가...그것도 눈 내리는 30리 새벽길을...) 사실 영진은 오늘이 일요일이고 게다가 눈까지 내리기에 래일 낮쯤 천천히 떠나자고 생각하고있던 참이었다. 그의 이런 마음을 모르는 발구군이 아침 일찍 찾아온것이 미안한듯 《제가 그만 너무...》라고 하며 오히려 양해를 구했다. 하고는 집안으로 들어가자는 영진의 권고도 굳이 마다하고 두눈을 꿈뻑꿈뻑하며 부지런히 새김질을 하고있는 누런 황소에게 다가가 정성껏 등을 쓸어주다가 콩깇 한단을 내리워 발앞에 놓아주었다. 그리고 자기는 영진이가 손질하던 눈가래를 들고 몇번 푹푹거리더니 마당의 눈을 훌훌 쳐냈다. 영진은 더 머물거리릴수가 없었다. 하여 부랴부랴 준비하고 서둘러 마당에 나섰다. 《타십쇼...》 《제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영진은 한발자욱 뒤로 물러섰다.

《어서 타십쇼. 선생님이 타지 않으면 난 마을에 못들어갑니다.》

송범이가 벌썬 웃으며 가방 쥔 그의 손을 끌었다

《하, 이런...》 영진은 미안했다.

《이랴!》 송범이가 고삐를 당기자 스르르 발구가 눈우로 미끄러져나갔다.

《참, 선생님...》 앞에서 고삐를 잡고 마치 신랑이나 신포가는 사람처럼 노상 빙글거리며 걷던 송범이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재비걸음을 하며 얼굴을 돌렸다. 《노루고길 좋아하십니까?》

《노루고기요?》

《예... 오신다구 해서 어제 저녁에들 모여 의논들을 했는데... 지금쯤 한두놈 걸렸을겁니다. 썩...》

송범은 호기있게 소리치며 가느다란 채찍으로 소잔등을 슬쩍 때렸다. 발구속도가 빨라지고 흰눈에 덮인 산들이 알릴듯 말듯 뒤로 서서히 물러갔다. 《팔랑팔랑》 씩없이 울리는 방울소리는 마치 영진을 신비한 꿈의 세계로 실어가는듯싶었다. 때마침 눈도 멎고 날씨는 잠풍하였다. 취한듯 발구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송범의 말을 되새겨보던 영진은 문득 이것이 그 어떤 새생활의 길에 들어서는 첫걸음이 아닌가 하는 예감으로 가슴이 짜릿해났다. (삶... 삶이란 무엇인가? !...)

영진이가 도착하자 마을의 남너로소가 몽땅 펼쳐나와 귀빈처럼 맞아주었다.

밤에는 또 푸짐한 《연회》가 있었다. 송범의 말대로 노루불고기에 꿩고기국, 초차떡에 산골... 진귀한 토산물은 없는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흥겨운 좌석에 송범이가 보이지 않았다. 궁금하여 옆에 앉은 눈길리 류달리 뻗쳐보이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그 사람요?... 그 사람은 집이 이곳에서 시오리 더 가야 돼요. 자, 어서 한잔만이라도 드십시오. 난 이렇게 식자있는 선생님같은분이 우리와 함께 앉아있는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밥사발에 담은 술을 꿀꺽 꿀꺽 물마시듯 마셨다. 영진은 허전했다. 어느새 어질고 서글서글해보이는 송범이에게 정이든것이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영진은 송범을 찾는 로인의 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다. 의식을 잃은 송범은 고열에 얼굴색이 시커멓게 변했고 총알을 맞은 오른쪽 넓적다리는 아낙네들의 허리통마냥 텅텅 부어있었다. 영진은 당황했다. 세상에 나서 총에 맞은 사람을 구완하는 일이 처음일뿐아니라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였다. 그래도 로인은 그의 조언만 바라고있었다. 막연했다. 그렇다고 그냥 서있을수도 없었다. 움직여야 했다.

영진은 우선 환자를 집으로 올려다 눕히는것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피뚱 들었다. 이것은 그 어떤 타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것이 더 좋으리라는 본능적인 느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그다음은 열을 내리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심장이 못견딜수 있었다. 영진은 곧 로인과 함께 송범을 집에 올려다 눕히고 머리와 상처부위에 얼음찜질을 해주기 시작했다.

송범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따금 알수 없는 소리를 입속으로 중얼거릴뿐이었다. 그때마다 로인은 흠칫흠칫 놀라며 안타깝게 영진을 바라보았다. 그 역시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시커멓게 죽었던 송범의 얼굴에 차츰 피색이 들고 굵은 주름이 지나간 이마에 좁쌀알같은 땀방울이 축축히 내배더니 드디어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됐소. 이제 살았소...》

옆에 앉아 줄곧 송범의 얼굴만 지켜보던 로인은 손에 들고있던 젖은 수건을 방바닥에 놓으며 말했다. 그도 숨이 나갔다. 하지만 그 순간 영진은 안도감과 함께 문득 이 뜻밖의 상봉에 대한 그 어떤 불안과 위구를 느꼈다. 이제 저 사람이 정신을 차려 자기를 알아본다면...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을 알게 된다면...영진은 맥이 탁 풀렸다. 전신에 식은땀이 쭉 내돌으며 저도 모르게 허거뜰 웃음이 나갔다. 역시 자기는 이들과 어울릴 사람이 못되었다.

《운명이다...》

영진은 마치 자신을 납득시키기라도 하듯 온몸을 뒤벽에 무겁게 기대며 조용히 입속으로 뇌였다.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고 한 베토벤의 유명한 말이 기억되었다.

(그렇다. 모든것은 이미 결정되었다. 그리구...) 영진은 까딱없이 누워있는 송범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을 여기서 만난것도 역시 운명일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그때 벌써 저 사람과 인연을 맺은것으로 되지 않는가. 그가 나를 알아보면 뭐라 할가? 그는 나를 증오하고 염병환자나 만난듯이 피할것이 다...)

그의 눈앞에 흰눈이 덮인 그날의 산들이 방금보이는듯싶었고 《팔랑팔랑》 울리던 소방울소리가 다시금 들려오는듯싶었다. 그리웠다. 그날의 모든 것들이 그리웠다. 하지만 그것은 다시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눈을 뜨누만.》

《예...》

영진은 두려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착잡한 심정에 휩싸여 주저주저 끌리우듯 다가왔다.

날이 밝았다. 동권 피창으로 비쳐든 아침해살이 방바닥에 손거울모양의 동그란 빛무늬를 그려놓았을 때에야 비로소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송범은 처음에 물을 찾았다. 조갈이 들고 물통기가 진 입술에 가느다란 실오리를 두른듯 소금버캐가 하얗게 내뿜아있었다. 다음 송범은 자기가 누워있는곳이 어디인가를 확인하듯 망막속에 비쳐드는 천정이며, 벽이며, 머리맡에 앉아있는 로인이며를 주의깊게 살펴보다가 옆에 앉은 영진의 얼굴에 와시선을 멈추었다. 순간 영진은 수십개의 바늘이 동시에 와 얼굴에 닿는듯싶었다.

(알아볼가? ...)

차라리 알아보지 못하는 편이 나을것이다. 그러면 자기는 슬며시 이곳을 떠날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생각을 무시하듯 까닥없이 지켜보던 송범의 눈에 한점의 불꽃같은 예리한 섬광이 번뜩일었다. 끓어졌던 기억의 실오리가 끝내 이어진듯싶었다.

《저... 저...》

송범의 입술이 움직였다.

《예, 접니다. 조영진입니다...》

영진은 변명하듯 서둘러 이렇게 말하며 가슴우에 놓인 송범의 손을 잡았다. 더는 자신을 숨길수가 없었다.

《선생님 ...》

송범이가 후들후들 떨며 방바닥에 놓았던 한쪽손을 들어 영진의 팔굽을 꼭 잡았다. 송범은 몹시 흥분하고있었다. 몸에 상처를 입어 신경이 약해진 탓인지 피가 진 눈에 물기까지 핑 돌았다. 영진은 그러한 송범을 보기가 두려웠다. 마치 그 눈에 자기의 모습이 비칠듯싶었다.

《정말 뜻밖입니다.... 참, 선생님을 여기서 만나다니요...》

송범은 생각할수록 기쁜듯 물기어린 두눈을 습벅이며 목이 멘 소리로 몇번이고 외쳤다. 영진은 딱했다.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미처 결심이 되지않았다. 당황한 그는 저도 모르게 로인을 쳐다보았다. 마치 구원을 청하듯.

《저, 이 사람은... 우리 큰 조카라우.》

대신 로인이 떠들떠들 대답했다.

《그렇습니까... 난 그런것도 몰랐습니다.》

송범은 흡사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것처럼 미안해하였다.

그리고는 또 한번 영진을 올려다보며 빙긋 웃어 보이고는 힘이 든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쪽손은 여전히 영진의 오른손을 꼭 잡아 가슴우에 놓고있었다. 마치도 놓으면 잃을가봐 저어하는듯싶었다.

잠시후 로인은 부엌으로 나가고 방안은 고요했다. 어느새 자리를 옮겼는지 따스한 아침해빛이 송범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영진은 잠이 든듯 그린듯이 누워있는 송범을 보며 생각했다.

(그는 아직 나의 모든것을 모르고있다. 정말 다행이다. 그는 얼마나 순박하고 깨끗한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은 남도 함시 깨끗하게 생각하는 법이다. 그런데 난 이 순박한 사람들을 배반하지 않았는가... 그렇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난 이미 죽은 사람이다.)

《무슨 생각을 하니까?》

언제 눈을 떴는지 송범이가 툭툭 부은 입가에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생각은 무슨...》

영진은 얼굴을 붉혔다. 송범이가 꼭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듯싶어 그를 볼수가 없었다.

《난 방금 선생님이 우리 마을에 와 계시던 그때 일을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송범의 눈이 그윽히 빛났다.

《예, 납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영진은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은 그 한달을 영원히 잊을수가 없었다. 도글도글 익은 별들이 총총히 떠있던 겨울밤과 그 밤의 성인학교...

영진은 그때 밤이면 한쪽 옆구리에 책과 분필통을 끼고 성인학교로 나가곤했었다. 학교라야 아래 우칸을 터쳐 사람 스무나문명이 겨우 들어갈만하게 만든 자그마한 온돌방이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에 기름불을 켜고 한쪽벽에 먹칠을 한 흑판을 걸어놓으니 제법 글방같은 감이 났다. 언제나 그가 들어서면 뜨끈뜨끈하게 불을 댔 방에 편안히 퍼더버리고 앉아 기분좋은 한담을 늘어놓던 농민들이 저마끔 인사를 하며 뒤통수 목가짐을 정중히 하려고 은근히 애썼다. 방안에는 담배연기와 땀내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래도 영진은 어쩐지 그 독한 잎담배연기와 땀내가 한데 섞여 풍기는것 같아 그들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게 했다. 수업이 시작되면 농민들은 무릎에 공책을 펴놓고 열심히 글을 익혔다. 송범은 늘 제일 뒤구석에 앉아있었다. 앉아서는 말 한마디 없이 연필끝에 연신침을 발라가며 정성을 다해 글을 써나갔다. 그러다가도 영진이와 눈을 마주치면 빙긋 웃음을 짓고는 또다시 공책우에 머리를 숙였다. 언제 봐야 그 모습이였다. 하지만 영진은 매일밤 성인학교에 제일 먼저 나오는것이 송범이고 또 나올 때마다 등에 마른 장작을 한집씩 지고와 불까지 다 때놓는것이 바로 송범이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수업이 끝나 제일 늦게 돌아가는것도 역시 송범이였다. 어떤 날에는 무엇인가 딱한 부탁을 할 사람처럼 한참씩 주뿔거리다가도 잦아드는 소리로 《저, 선생님, 아궁에 감자 몇알을 물어왔는데 있다가 맞이나 보십시오.》라고 말하고는 슬그머니 돌아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영진은 그 소박한 인정미에 가슴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어느 달밝은 밤이였다. 수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영진은 마을길이 나있는 앞산 중턱에서 반짝반짝 담배불이 빛나는것을 보았다. (누굴까?...누가 혹 노루코를 보고있는가?...) 그럴수도 있다. 농민들을 따라 어둑새벽에 짐승코를 보러 몇번 산에 올라갔던 영진이였다. 산책삼아 술금술금 그곳으로 올라간 영진은 놀랐다. 뜻밖에도 그 사람은 송범이였다. 송범은 집으로 넘어가다 다리심을 하느라고 앉았는지 영진을 보자 여느때처럼 빙긋웃더니 무슨 할말이 있는듯 《앉으십시오.》라고 자리를 권했다. 영진은 송범의 옆에 앉았다. 밤은 산책하면서 푸근하였다. 공간에 가득찬 푸른 달빛이 흰눈에 덮인 마을을 부드럽게 감싸흐르고있었다. 불빛이 반짝이는 집들은 마치 동화의 신비한 결말을 듣는 애들의 눈처럼 느껴졌다. 어느 집에선가 진짜 《까르르》 하는 처녀애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좋지요?...》 송범이가 조용히 뇌였다. 검푸른 하늘에 떠있는 은쟁반같은 달이 홀린듯이 앉아있는 그의 얼굴에 함뿔 빛을 뿌리고 있었다. 영진은 꼭 꿈을 꾸는 사람을 보는듯싶었다. 《이제 우리 마을에도 전기를 끌어오구 그리고 또 학판 세우고... 그렇게 되면 난 선생님을 모셔오고 싶습니다.》 송범이가 영진을 돌아보며 웃었다.

어글어글한 두눈에 달빛이 반짝이였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영진은 진심으로 대답했다. 송범은 또 담배 한대를 말아 불을 붙여물었다. 어느때까지라도 앉아있을듯싶었다.

《정말 그때 ...》

송범의 말소리에 영진의 생각은 끊어졌다.

《선생님이 우리게 와 큰일을 했습니다.》

영진은 그 말이 고마왔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제는 모든것이 끝났다.

영진은 자신의 마음이 또다시 싸늘해짐을 느꼈다.

《참, 그때 ...》

송범이가 베개우에 놓인 머리를 영진이쪽으로 조금 더 돌리며 말했다. 《선생님을 노엽혔던 사람있지요... 그 놀음을 좋아하던 사람말입니다. 그사람이 지금은 영 달라져 군대에 가있는데...우린 그사람이 보낸 첫 편지를 받던 날에도 선생님 애길 했습니다.》

영진은 생각했다.

그 사람이란 영진이가 남촌마을에 처음 도착하던 날 옆에 앉아 밥시발에 담긴 술을 물마시듯 꿀꺽꿀꺽 마시며 식자있는 선생님과 함께 앉아있는것이 자랑스럽다고 하던 바로 그 사람이였다.

워낙 손탁이 세고 뺨머리 사나는 그 사람은 산골 마을의 이름난 놀음꾼이였다.

그러니 그가 성인학교같은데 제대로 나올리가 없었다. 그래 하루는 술내를 풍기며 구경삼아 학교에 나온 그에게 영진이가 점잖게 한마디 했다.

《나라도 찾고 우리 세상이 됐는데 계속 그렇게 옛날 버릇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글이랑 배우십시오.》

《뭐요? ...》

그 사람의 눈이 대뜸 세모졌다.

《누굴 혼계하자는게요, 여 보슈...》

그 사람은 시뻘개진 얼굴에 쓰러운 웃음을 가득 담고 잠시 영진을 노려보다가 《우리 세상이니까 나도 주인이란말요, 주인... 주인이 마시고싶으면 마시구 놀면 노는게지. 대관절 당신이 뭐요.》라고 떠들었다. 그리고는 랑옆에 앉은 농민들을 둘러보며 어림도 없다는듯 《체...》하고 코웃음을 쳤다.

영진은 아찔했다. 온 방안이 그 사람의 비웃음소리로 가득찬듯 도저히 정신을 차릴수가 없었다. 언제 수업이 끝나고 어떻게 사람들이 헤어졌는지 전혀 그는 의식하지 못했다. 다만 난감한 얼굴을 한 송범이가 조용히 지켜보고있는것만 눈앞에 보일뿐이였다. 하면서도 그는 송범이가 왜 그렇게 서있는지 리해가 되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섭섭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애착이 크고 보람을 느끼던 일이여서 그런지 그만큼 실망감도 컸다.

《그만두자, 그만두고 돌아가자.》

그는 몇번이고 이렇게 되였다. 허나 그는 떠나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이였다. 밖에서 발자욱소리가 나더니 《어서 들어가게.》 하는 나지막하면서도 노기를 띤 음성이 들려왔다.

그다음은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어서...》 하는 재촉소리가 다시 나고 뒤미처 누군가 자신이 없는 가느다란 소리로 《계십니까?》 하고 찾았다. 뜻밖에도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그 사람이였다. 방안에 들어선 그 사람은 손에 벗어든 개털모자를 주무럭거리며 한참이나 머뭇거리더니 《저...》 하고 겨우 입을 떼였다. 웬인인지 지난 밤과는 달리 어깨가 처지고 모양이 휘줄근해있었다.

《선생님, 제가 나쁜놈입네다.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의 말소리는 몹시 떨렸다. 영진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일인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 감때사 남고 뺨이 센 사람이 무수 바람을 맞아 이처럼 공손해졌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것이 분명했다.

《정말입니다. 제가 몹쓸놈입네다. 선생님, 용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 마을에서 외토리로 되고말것입네다.》

그 사람의 이 말은 영진의 마음을 조금 움직였다. 그러나 《됐습니다. 어서 돌아가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뻥뻥했다. 그래그런지 그 사람은 주빋거리며 조금 더 서있다가 《정말입네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네다》 하고는 애들처럼 깊숙이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다.

영진은 문밖까지 나가진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찻창에 다가가 창살에 붙인 손바닥만한 유리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던 그는 그만 가슴이 뭉클해나며 목구멍으로 뜨거운것이 옥 솟구쳐올랐다. 모든것이 명백했다. 밖에 나간 그 사람이 마당에서 기다리던 송범이에게 뭐라고 말하며 저쪽으로 함께 가는것이였다. 송범은 아무말없이 부추겨주듯 한손을 그 사람의 잔등에 대고 땅바닥을 보며 생각에 잠겨 걸고있었다. ...

그 일이 있은후 영진이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태도는 더욱더 공손해졌다.

모두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정으로 따랐다. 어른들뿐아니라 애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떤날 밤에는 아버지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몰려와 저마끔 문틈으로 들여다보며 떠들었다.

《저 선생님이 세상에서 제일 쎄대야...》

《저 선생님이 ... 왜? ...》

《다른 선생님들은 애들을 배워주지만 저 선생님은 아버지들을 배워주니깐... 이젠 나 좀 보자.》

이럴 땐 모두가 웃었다. 영진이도 흑판쪽으로 돌아서 빙그시 웃었다. ...

날이 가고 달이 지나 영진은 소비조합으로 돌아왔다. 군에서는 동원된 기간 그가 일을 책임적으로 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했다.

그후에도 송범은 기회만 있으면 그를 찾아왔다.

한번은 장에 왔던 마을사람들을 몽땅 데리고 소비조합에 들렀었다. 사무실에 앉아 장부책을 정리하던 영진은 창고앞에서 경비원과 옥신각신하는 그들을 보고 한달음에 달려나갔다.

《여보, 우리가 뭐 시시하게 뒤구멍으로 물건이나 사자고 들어온줄 아오. 우린 선생님을 찾아왔단말이요.》

감때사나운 그 사람이 으시대며 하는 말이였다.

《선생님 ...》

송범이가 그의 손을 잡았다. 농민들도 저마다 손을 잡으며 애들처럼 꾸벅꾸벅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바람에 어안이 병병해진 경비원이 슬금슬금 어디론가 피했다. 모두들 웃었다,

《송범형님, 우리두 빨리 마을에 학꼐 세우고 선생님을 아주 데려갑시다. 선생님 가지요?》

그 사람이 물었다.

《가구 말구요. 가겠습니다.》

영진은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곧장 집으로 함께 돌아간 영진은 송범이네와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학교세울 공론을 했다.

나라에서 남촌마을에 인민학교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우리 농민들도 애국미를 더 바치기로 했습니다.》

감때사나운 그 사람이 성수가 나서 자랑했다.

《그러니 선생님, 지붕도 기와가 아니라 양철로 잇구 창문도 크고 밝게 내려고 합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돈이 있으니 뭐든지 예산을 듬뿍듬뿍 세워주십시오.》

옆에 앉은 송범이도 흥분하여 말했다. 장부책과 수관을 꺼낸 영진은 신바람이 나서 계산을 했다. 그러는 그를 둘러싸고 농민들은 늘어나는 수자들을 흘린듯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즐거운 밤이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꿈도 미국놈들때문에 다 깨여지지 않았던가. ...

(그러나 난 지금 이들의 결을 떠날수밖에 없지 않는가...)

무거운 한숨이 흘러나왔다.

《왜 그러십니까?》 송범이가 영진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영진은 가슴이 철렁했다.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송범의 얼굴이 또다시 시꺼멓게 변하고 있었다.

## 5

송범은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젠 벌써 상처부위에 생긴 염증이 전신에 퍼진듯 고열이 나고 몇분 간격으로 심한 경련이 온몸을 비틀며 바람처럼 지나군하였다. 그때마다 영진은 황황히 송범을 잡으며 《날 잡으시오. 날... 힘을 잃으면 안됩니다.》라고 중얼거렸고 그러면 송범은 마치 생을 유지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그것인듯 애써 그의 손을 틀어잡았다. 그러는 송범의 눈엔 열렬한 기대와 어린애같은 무조건적인 순종의 빛이 담겨있었다. 삶에 대한 요구였다. 하기에 그눈을 보는 영진은 가슴이 터지는듯싶었다. 가장 순결한, 그야말로 인간다운 인간에게 최후의 시각이 다가오는 것이었다.

《선생님...》

숨이 막혀들어오는듯 송범이가 앞가슴을 열어헤치며 벽에 기댄 머리를 무겁게 좌우로 흔들었다.

《분합니다... 아... 우리가...》

비오듯 흐르는 식은땀에 송범은 온몸이 화락 젖어있었다. 마치도 방금전에 목욕탕에서 나온듯싶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답게 살아봤습니까... 이제 인민군대가 나오구 전쟁이 끝나면 또 그렇게 살아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선생님...》

《예. 옳습니다.》

영진은 막을길없이 줄줄 흘러내리는 눈물을 삼키며 가까스로 대답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꿈인가! 영진이의 가슴은 어제날처럼 부풀어오르며 희망에로 높뛰었다.

《아! ... 그런데 난 지금 이들을 버리고 가지 않는가 ... 그 귀중한 모든것을...》

영진은 용서라도 빌듯 오열을 터뜨리며 송범의 무릎에 쓰러졌다. 송범의 목직한 손이 그의 등을 어루만졌다.

《진정하십시오... 제가 그새 선생님을 잘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마음 고생이... 많았지요...》

영진은 얼굴을 들었다.

(그럼 송범이가 벌써 모든걸 다 알고 있단말인가? ...)

순간 영진은 자기 집 마당에 떨어졌던 쪽지와 그 쪽지에 씌여있던 글씨생각이 났다. (송범이가?... 아니, 아니다.)

그는 송범의 글씨를 기억하고있었다. 그러면서도 영진은 쪽지를 쓴 사람이 송범이라고 믿고싶었다. 무조건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었다.

송범은 차츰 숨길이 좁아드는듯 입을 크게 벌리며 점점 더 힘들게 호흡했다. 그래도 밤에 젖은 얼굴에선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선생님, 우리 장군님께서 땅은 발같이 하는 농민들이 가져야 한다시며 토지개혁법령을 내놓으셨을 때 우리는 감격에 목을 놓아 울면서도 그 법령을 제논으론 읽지 못했습니다. 글을 몰라서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글을 깨쳐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저 글을 깨쳐준건가요... 아니지요.》

영진은 흐느꼈다. 건잡을수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어쩔수 없었다.

(그렇다, 난 그들에게 단순히 글을 배워준것이 아니라 새 제도의 단맛을 느끼게 해줬다. 그래서 보람을 느꼈고 거기서 내 리상을 찾았었다. 그러나 난 그 리상과 보람이 어떻게 마련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몰랐었다. 바로 그때문에 그 모든 귀중한것을 한갓 목숨과 바꾼 것이었다.)

송범이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 뭘 더 주저합니까. 어서... 어서 돌아가십시오. 저... 저...》



송범은 무슨 이야긴가 더 하려고 애썼으나 이제 벌써 허가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송범의 손이 안타까이 가슴을 가리켰다. 영진이가 옷자락을 헤치고 손바닥만한 누런 가죽가방을 꺼내 떨리는 손에 쥐여주었다. 그제야 송범은 시름이 놓이는듯 잠시 그 가방을 바라보다 영진에게 다시 넘겨주었다. 그리고는 마치 놓으면 잃어버릴듯 가방 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걸… 군…군당에…가지고…》

그다음은 더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이제는 1초도 어길수 없는 가야 할 시간이 된듯싶었다. 영진은 얼굴을 돌렸다. 모든것이 끝났다. 그는 무한대한 공간속에 홀로 남은듯싶었다.

《사람두 참 .... 이렇게 가다니…》

영진은 로인이 후들거리는 손을 들어 그 누구를 지켜보듯 까딱 움직이지 않는 송범의 두눈을 정히 감겨주는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런속에 멀리서 울려오듯 로인의 말소리가 아득히 들려왔다.

《난 큰 조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아는지 모르오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또 있겠소…》 로인이 눈물을 삼키며 방바닥에 놓인 송범의 두손을 가슴우에 성의껏 바로 놓아주었다.

《제 살붙이나 제고장사람들도 아닌 판판 낫도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놈들 원자탄선전에 따라나설가봐 집집마다 찾아다니구… 뼈랄 뿌리구…》

영진은 놀랐다.

(그럼 그 뼈라들을 송범이가 불엿단말인가…)

그의 눈앞에 전주대에 붙어있던 뼈라가 보이고 《어데루 가오?... 어데루…》 하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다시 쟁쟁히 들려왔다. 그는 확신했다.

(옳았다. 역시 그 사람은 송범이었다.)

영진은 천천히 손에 쥔 가방을 열었다. 누런 기름종이에 싼 알팍한 수첩같은것을 꺼냈다. 한겹,두겹,세번째는 눈처럼 흰 깨끗한 백지였다. 그것을 풀자 네모반듯한 증서가 나왔다. 영진은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당증이었다. 그로서는 난생 처음보는 조선로동당 당원증이었다.

(그럼 송범이가 ? ...)

영진은 당증을 펼쳤다.

성명 강송범, 생년월일 1920년 5월 3일. 입당년월일 1945년 12월 17일…

(그러니까 그는 당원이었던말인가. 당원, 당원…)

빙그시 웃는듯한 송범의 사진이 그를 데리러 왔던, 그 눈오는 날 아침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 모습이 또 성인학교 부엌에 앉아 불을 때던 모습으로, 농음에 빠져 돌아가던 그 감때사나운 농민을 아침

일찍 숙소에 데리고 와 용서를 빌게 하던 모습으로 바뀌었다.

(아, 그는 당원이었구나!...)

그제야 영진은 자기를 아껴주던 그 인정의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있었는가를 똑똑히 깨달았다. 그렇다. 그것은 한 성실한 당원의 열렬한 인간애가 있다. 그 뜨거운 인간애를 가졌기에 송범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굳게 믿어준것이였다.

영진은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내 죄를 모들수 없다. 그런데도 날 구원하려고…)

영진의 귀전에는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것처럼 절절히 호소하던 《어서 돌아가십시오, 어서…》라는 말마디가 세차게 울려왔다. 그는 손에 든 당증을 보았다. 송범이의 모습이 안겨왔다. 땅처럼 성실하고 땅처럼 변함없는 한 평범한 당원의 열렬한 생명이 안겨왔다.

《이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생명이다. 그런데 난 무엇을 지키자고 그자들의 교단에 섰고 여기까지 왔는가…》

눈앞에 비참하게 나뒹굴던 장사군의 시체가 얼른 거렸다. 그는 또 한번 당증을 내려다보았다.

후두둑… 당중에 피처럼 뜨거운것이 떨어졌다.

영진은 꼭 송범이가 자기를 데리러 이곳에 왔다 쓰러진듯싶었다. 그는 부르짖었다.

《나때문이다… 나때문에 살아야 할 그가 죽고 쓰레기같은 내가 살았다. 아아… 당원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

...

저녁무렵.

영진은 마을뒤산 새로 만든 봉분앞에 로인과 함께 서있었다. 상돌도 없고, 표달도 없는 나지막한 봉분이였다. 영진은 오래도록 머리를 숙이고 서있었다. 그는 얼굴을 들었다. 멀리 구월산 봉우리가 보였다. 《숙부님, 전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말소리는 떨렸다.

《돌아가다니 ? ...》

로인이 놀랐다. 그를 바라보는 로인의 눈이 물었다. 《무고하겠나 ?》

영진은 대답했다.

《저도 무고하길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느라면 당장 죽인다고 해도 찾아가야 할데가 있지 않습니까.》

영진은 한번 더 봉분을 바라보고 돌아섰다. 그리고는 어제 오던 길로 되돌아 걸어갔다.

죽어도 떠날수 없는곳, 송범이처럼 뜨겁고 깨끗한 인간들이 기다리는곳으로…

구월산봉우리가 다가왔다.

## 추억의 집

정성환

나는 아직 집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

집이라는 그 한마디 말이 나에겐 평온과 안정의 대명사로밖에 느껴지지 않은때문인지 모른다. 그러나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장결의 낡은 집들을 보니 가슴속엔 하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바로 이곳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자들이 일하고있다.

하늘을 떠받든 굴뚝들과 철의 트라스아래 땅에 붙은 하얀 집들, 여기서 위훈 많은 이곳 청년건설자들이 간단한 살림을 펴고 피로를 풀며 아름다운 꿈을 나눈다.

얼굴이 가뭇이 탄 처녀가 트락의 나무의자에 앉아 텅기는 기타소리만이 아니다.

방안에는 곁에서 동무가 벌써 몇장채 자기를 그리는줄도 모르고 손칼로 채 다스리지 못한 나무막대기를 꺾어 기중기모형을 만들어놓고 기웃거리며 청년, 생각을 튀우려 금시 자리를 뜬듯 보풀이 인 학습장에 끝을 잊지 못한 시, 어느 투박한 손이 정성스레 가꾸는 화분인지 철을 가림없이 활짝 핀 붉은 꽃, 어디 좋은 처녀가 나섰는지 눈이 작은 청년을 가운데 두고 선을 보러 가자고 몰아대는 떠들썩한 모습들...

나지막한 이 지붕아래 차넘치는 향기 짙은 생활은 숫눈우에 찍히는 발자국처럼 나의 가슴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나도 이들과 함께 살고싶다.

하루일 끝내고 이들처럼 나도 작업복먼지를 툭툭 털고 더운물이 풀고루 더웁혀주는 노란 장판방에 들어서고싶고 이들처럼 편지지에 뜨거운 정을 쏟아 붓고싶다. 그리고 비물이 흐르던 작업복을 널어말리며 비바람이 세차다고 물러섰더라면 말은 일을 다 끝낼수 없었으리라는 뗏뗏한 마음도 가슴에 지니고싶다.

벽에 붙은 몇장의 서툰 그림이 박물관의 이름있는 그림보다도 가슴을 더 뜨겁게 울려주는 집, 터진 혼술을 껴매주던 어머니의 손길도 어린애의 칭얼거림도 없는 집, 오직 하나 비날론을 위해 기둥을 세우고 총막을 엮는 나날에 거뒀해지는 수염을 밀기 위해 창가로 거울이 자주 옮겨지는 집, 형과 동생의 나이로 이루어진 이 청년건설자들의 크나큰 가정은 우애와 랑만과 아름다운 꿈이 깃든 활기에 찬 세계였다.

참으로 이 집의 주인들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된다.

아까 젊은 연공은 아직 뺨끼가 마르지 않은 창가에 앉아 편지에 이렇게 썼다.

《어머니, 이 아들을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수십개의 총막을 엮은 기쁨으로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우리는 이 직장건설을 완전히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알지 못하는 처녀의 사진을 보내요. 함께 일하는 미장공처녀인데 결사사람들이 다 좋다고 합니다. 어머니 기다려주세요.

내가 갈적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의 발자국소리를 가려듣고 먼저 문을 열곤하셨지요. 겸해서 한가지의논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동무들이 말하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비날론천으로 우리의 첫날 옷감을 하자고 하지 않아요.》

비날론을 기다리는 온 나라의 마음을 안고 그 공장을 일떠세우는 장한 아들의 그 소원은 어머니의 마음을 뜨겁게 적셔주리라.

어머니의 한없이 기쁜 마음은 손바닥만한 편지봉투속에 담겨 이 집으로 날아들것이다.

나는 젊은 연공의 어머니가 아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아들의 처사가 다 옳다고 말하리라 생각한다. 더 달리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것은 나도 역시 건설자들에게 기대를 건 한사람으로서 한시 바빠 비날

론 고급옷을 입고싶은 그 마음이 앞서서일가? 하지만 나도 딱히는 알수 없다. 그저 이 집에서 꿈을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긍정하고 또 긍정하고 싶을 따름이다.

얼마나 꿈이 많은 청년들이 사는 집인가,

이 나지막한 지붕밑에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꿈은 또다시 새 기술혁신과 새힘으로 용솟아 온 나라 사람들을 격동시키리라.

참으로 이들이 찬바람 몰아치는 하늘가에서 입에 호각을 물고 통장갑낀 손으로 기증기운전공에게 신호를 보내면, 굳은 강관을 휘어내며 우리모두의 행복을 위해 그리움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사는 청년들이라고 생각하니 눈굽이 뜨거워난다.

바로 이 사람들이 저 높은 공장의 숲을 위해 나지막한 집을 제 손으로 짓고 저기 맑은 강물에서 제손으로 땀배인 작업복을 빨며 남달리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언제나 이 모든 일은 자기들만이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만 복받치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수첩과 연필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썼다.

이제 공장이 완공되어

비날론 고운 천이 나오게 되면

가슴속에 묻어둔 그리움을 터쳐

자랑을 하라

아버지앞에, 어머니앞에

다정한 이웃들과 동무들에게

그리고 자랑을 하라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날론 고운 천에는

우리 당의 높은 뜻을 받든어온

그대들의 더운 땀이 스며있다고

...

심장은 가슴을 두드리며 또 이렇게 부추겼다.

《말하자, 말하자, 왜 잠자고 있기만 하느냐?》

나의 펜은 심장의 부추김을 받아 저절로 달렸다.

사람들이여! 누구나 이곳을 지나게 되면 이렇게 알고가시라 이 나지막한 집에 우리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못잊으시는 사람들이 산다고, 조국의 추억속에 영원히 빛날 시대의 영웅들이 산다고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이 시를 주지 못하였다. 내가 할 말은 아직 너무도 많기때문이다.

이제 련포벌에 비날론연합기업소가 완공되면 이들이 살던 낡은 집들은 자취를 감추고 기억에만 남아있을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사는 건설자들의 집은 평온과 안정의 요람만이 아니라 인민을 위해 투쟁의 영원한 추억이 있고 위훈이 빛나는 집이다!

이곳 청년건설자들은 그 어디에 간들 까만 기름종이로 지붕엿고 하얀 회칠을 한 이 집, 기증기소리와 철판을 휘는 소리를 들으며 편지를 쓰며, 기타를 타며, 잠자리를 펴던 낡은 이 집을 추억하며 크나큰 보람을 안고살리라.

허나 그것이 어찌 이들의 추억으로만 아름다울것인가.

건설자들의 그 아름다운 추억은 조국의 추억으로 영원히 빛날것이다.

그러나 청년건설자들은 이 모든것에 무관심한듯 여전히 호각을 불며 기둥을 세우고 층막을 얹으며 탕탕 철판을 휘고있다.

련포벌에 메아리를 남기며...

## 출장지에서

주성준

## 1

《찌릉 - 찌르릉 -》

계선장이 가까와오자 러객선우측벽에 붙은 사발만한 전기종이 야무지게 울렸다. 러객선이 차츰 속도를 늦추었다.

의자등받이에 몸을 실린채 조는듯마는듯하던 식물학연구소 연구사 인서도 눈을 떴다.

사람들이 내리려고 서둘렀다,

인서는 승객들의 틈에 끼여 내릴차비를 하였다.

연구소에서의 30 여년 생활, 출장지와 로상에서 한생을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였다. 많은 경우 출장지가 궁벽한 산골이다보니 술한 사람들과한데서 신세를 저야 했다.

인서는 식물채집통이며 확대경이든 배낭을 진채 사람들틈에 끼여 선창에 나섰다. 먹장같은 하늘에서는 비발이 쏟아졌다. 바람이 부는대로 얼굴을 차갑게 때렸다.

인서는 불현듯 낮선고장에 왔다는 외로움이 가슴속으로 엄습해들을 느끼며 배전에 서있는 청년에게 걱정어린 어조로 물었다.

《젊은이, 여기 어디에 러관이 있겠지? 배가 출출하구만.》

《아니, 아바인 식사도 하지 않고 배에 울랐댔습니까?》

《속이 좀 말썽해서 그저 왔더니...》

《러관이 있긴 해두... 이 촌 러관에 누가 찾아오겠다구 밥까지 지어놓고 기다리겠소.》

청년은 온곱지 않게 눈길을 보내며 면박을 주듯 말했다.

인서는 더 말하지 않았다. 말과 행동이 너무나 똑똑해서 공연히 말을 걸었었다는 후회까지 들었다.

배가 부두에 닿았다. 쌍보초처럼 마주선 갯을 씌운 외등이 널판자를 깔아놓은 자그마한 계선장을 뿔겅게 비쳐주고있었다.

《러관손님이 계시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러관에 오시는...》

어둠속에서 녀인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서는 배에서 황황히 내려 소리가 들려온쪽으로 달려가며 말했다. 《예, 여기에 있습니다.》

《오실래기 수고했어요. 우산을 받고있다가 저와 함께 들어갑시다.》

빨간 비옷을 쓴 녀인이 상냥하게 말하며 가슴에 안았던 몇개의 우산중에서 한개를 인서에게 주고는 같은 소리로 또 웨쳤다.

어둠때문에 그한테서는 그저 동그스름한 얼굴과 생글생글 웃는듯한 룡광만이 안겨왔다. 발랄한 모습으로 보아 처녀가 분명했다. 종년의 출장원 한사람이 또 찾아왔다.

잠시후 처녀는 손님들이 배에서 다 내렸다고 인정했는지 자리를 뜨려고 했다.

《여기에 또 있수다.》

웬사람이 건드려진 음성으로 말하며 뜨직뜨직 걸어왔다. 무심중 그한테로 몇걸음 마주가던 처녀가 《어마나, 길수동무!》 하고 가볍게 부르짖고는 더 어찌지 못하고 그자리에 우뚝 섰다.

거뿔하고 통통한 얼굴, 옆에 낀 삼면자크가방... 인서는 그가 다름아닌 배에서 자기가 묻는 말에 통명스럽게 대답해주던 청년임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몇마디 인사말을 건넸다.

《연순동무, 우린 한걸음 떨어져 들어갑시다.》

《아이, 길모르는 손님들을 어떻게...》

처녀는 청년의 말에 응하지 않았다. 손님들보다 한걸음 앞선 처녀는 그들에게 전지불로 길바닥을 짚짚히 비쳐주었다.

인서는 길안내를 살뜰히 해주는 처녀가 더없이 고마웠다. 그는 처녀의 뒤를 바싹 따라걸었다.

《매일 이렇게 손님들을 맞아들이오?》

《예.》

《동무는 정말 좋은 일을 하는구만.》

인서의 감동어린 말에 처녀는 오히려 씩스러움을 느끼듯 그저 어쭈게 웃었다.

러관은 얼마 멀지 않은 둔덕우에 있었다. 보통산골기와집처럼 생긴 집이었다.

토방우에 올라서니 인서는 마치도 제집에 온듯마음의 안정이 깃들었다. 그한테 방문을 열어주는 처녀에게 차마 시장하다는 말은 못하고 그저 길안내를 해주어 고맙다고만 했을뿐이다.

처녀가 인서의 생기없는 눈동자며 힘없이 들리는 말소리에서 무엇을 느낀듯 령리해보이는 눈을 깜박이다 미타한 어조로 물었다.

《혹시 식사를 못하시지 않았어요?》

《...》

인서는 섣뚱 대답을 못했다.

《아이, 선생님을 보자마자 대뜸 알아차렸어요. 그럼 조금만 기다리세요.》

인서는 팔소매를 걷으며 부엌으로 가는 처녀에게 이제 언제 밥을 짓겠냐고 거듭 사양했으나 처녀는 막무가내였다.

《연순동무, 오늘 바람은 왜 이리 차오.》

한걸음 떨어져 들어온 청년이 마당귀에 선채 무겁게 말했다.

그제야 처녀는 얼른 되돌아와 그에게 방문을 열어주며 나직하나 미안한 어조로 《리해해주세요.》하고 말했다.

방안에 들어가 러장을 풀고 앉은 인서는 이들을 놓고 생각이 깊었다.

잠시후 식사가 들어왔다. 처녀는 밥을 짓느라 바빠 서두른탓인지 도도룩한 이마에 땀기가 반지르르했고 얼굴도 빨갛게 익었다. 그래도 노상 웃고있었다.

식사는 짧은 시간에 지었어도 모든것에 정성이 깃들어있었다. 김이 물물 나는 기름기가 흐르는 밥이며 도라지채, 고사리와 버섯 볶음... 그것은 려관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딸애가 온갖 정성을 다하여 차려준 밥상을 련상케 했다.

식사를 끝낸 인서는 수건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어느새 비도 멎었다. 눅눅한 강바람에 장시간 시달린 몸이라 비내린뒤의 정화된 산촌의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나니 기분은 여간만 상쾌하지 않았다.

구름과 구름사이를 요리조리 피하기도 하고 숨었다가는 방긋 웃으며 돌는 반달은 볼수록 유정했다. 푸르스름한 달빛을 받고 병풍처럼 둘러선 산발들과 희옅스름하게 안겨오는 드넓은 호수, 산기슭을 따라 밝은 불빛을 뿌리며 둘러선 동네는 그윽한 정서를 안겨주었다.

인서는 비물에 씻겨 흰빛을 뿌리는 자갈이 깔린 길을 따라 물소리가 소연한 시내가로 내려갔다.

두런두런 어디선가 남자녀자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연순동무, 이제는 제발 결심해주오.》

남자쪽에서 어지간히 애가 타서 조르는 말소리다.

인서는 버드나무가지가 늘어진곳에 눈길을 주었다. 버드나무밑 큰 돌등에 노란 샤쓰와 흰 와이샤쓰를 입은 두사람이 앉아있는데 가만 보니 이쪽은 려관처녀였고 남자는 배에서부터 인상이 좋지 못했던 청년이 틀림없었다.

《이젠 늙으신 어머님보기가 참 딱하단말이요. 집안살림을 도맡아하느라 힘들어하구 또 내가 이렇게 출장을 떠나면 혼자 적적히 계시구...그럴 때마다

자식으로서 어머님한테 무슨 죄를 지은것만치나 죄스럽단말이요.》

《...》

처녀쪽에서는 여전히 말이 없다.

인서는 시내가로 내려가면서 이들이 서로 사랑은 열렬히 하면서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호상 속을 태우고있음을 알았다. 그는 청년이 배를 타고오면서 침울한 생각에 잠겨있던 일이며 지어는 자기가 묻는 말에조차 답변하기 시끄러워하던 그 복잡한 심정이 충분히 리해되었다.

어쨌든 처녀보다 남자쪽에서 더 고민하고 모대기는것만은 확실했다.

인서는 그들의 말을 엿듣는것 같아서 인차 걸음을 옮겼다. 달빛이 시내물에 어리었다. 시내물은 여울목에 이르러 유난히 맑은 소리로 산촌의 밤정서를 한껏 북돋아주는듯하였다.

(행복한 젊은이들이군.)

청년이 처녀에게 무엇인가 설유하느라 애쓰는양을 보았을 때 인서는 자기도 처런 청년기가 있었다는것이 얼핏 상기되었다.

이제는 그런 일로 마음쓰던 때가 옛말처럼 되었다. 어디 가나 따스한 아래목, 포근한 잠자리, 떠다니지 않고 조용히 하루일을 마치는 실험실, 또한 온갖 화초가 싱싱하게 자라는 온실과 황혼빛을 밟으며 즐거운 사색에 잠겨 퇴근하는 정다운 맛...이런 생활에 들어서는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아마도 이번 출장길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 2

호실앞뒤창문들을 활짝 열어놓으니 츠렁바위와 숲을 헤치며 불어오는 신선한 산골바람이 선들선들 쓸어들면서 마음을 끝없이 정화시켜주었다.

새소리, 매미소리, 풀벌레소리가 소란했다.

인서는 책상우에 커다란 이곳 지형도를 펴놓고 식물분포정형과 지층의 지질학적특성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했다.

쌍바위골짜기 삼형제절벽일대의 등판들, 무수봉... 호수를 둘러싼 산발들은 신생대 3기층에 속하는 현무암, 응회암 등이 기본이어서 어디가나 깊고 험한 골짜기와 아찔한 봉우리들로 이루어졌다.

또한 500여종의 식물들이 분포되어있는 중에서도 라자식물계의 송백류들인 붉은 소나무와 전나무, 이깔나무 락엽송 등이 울창했고 바위며 나무등결에는 푸른 이끼류들이 뒤덮여있다.

주목되는것은 이 지대가 큰 호수와 림하고있어 습한 대기의 영향으로 모든 식물들이 보다 왕성하

게 자랄수 있는 매우 유리한 자연조건이 주어진것이다.

때문에 기름나무림과 각종 약초류 그리고 버섯이며 고사리 등 유용한 식물들을 자연증식시켜 대대적으로 키워낼수 있는 림지로 만들어야 하는것이다.

인서는 이번 출장기간에 림지확증을 위한 확고한 기초조사를 진행하는것이 였다.

《딱… 딱…》

좁전부터 러판부엌쪽에서 쇠불이 때리는 소리가 귀청을 자극하여 낮을 찡그리던 인서는 참다못해 이제는 짜증까지 날 지경이었다.

그가 막 일어나 뒤창문을 닫으려는 순간 망치질 소리가 그치면서 《아야!》 하는 외마디 비명소리가났다. 뒤따라 《이거 야단났구나.》 하는 당황함과 걱정어린 말소리가 들려왔다.

인서는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얼른 밖으로나갔다.

똥똥보아주머니가 책임자인 연순의 팔목을 두손으로 싸진채 찢절때며 어쩔줄을 몰라했다.

알고보니 국수분들밀에 붙은 밀창을 새것과 교체하기 위해 나사를 푸느라 망치로 때리다 그것이 빗나가면서 팔목을 찢던것이였다.

인서는 얼른 호실에 들어가 항상 가지고다니는 봉대와 빨간약을 들고나와 껌질이 벗겨져 피가 흐르는 상처를 싸매주었다.

봉대를 감은 연순은 다시 망치를 쥐었다. 인서는 망치를 빼앗아들며 애매한 어조로 물었다.

《아니 당장 급한 일이지?》

《점심에 국수를 해야 합니다. 이 교장에서는 우리 식당국수가 소문났으니까요. 오늘은 마침 일요일이어서 림산사업소 동무들이 온답니다.》

《그럼소. 그런데 상처가…》

《그래도 해야해요. 대중과의 약속이야 어떻게 어길수 있어요.》

《…》

인서는 처녀의 결심이 여간아니어서 아무말없이 망치질을 했다. 조임나사는 녹이 쓸었지만 인차 풀렸다. 그는 국수분들밀창을 새것과 교체했다.

《연순동무, 그럼 내가 방조자로 되는게 어떻게소?》

《아니 아바이가 어떻게 부엌일을 하시겠어요?》

《아니요. 내가 이래봐두 전쟁때에는 고지에서 미군놈들을 죽쳐대면서두 국수, 떡 못하는게 없었소. 화선료리사였단말이요. 같이해봅시다.》

인서가 취사복을 요구하자 연순은 한껏 웃는 눈길로 보며 더없이 즐거워했다. 인서는 것처럼 좋아하는 연순이가 한없이 친근하게 안겨오면서 아침에 보았던 모습까지 되살아남을 느꼈다.

아침 일찌기 일어난 인서가 밖에나서니 누가 벌써 말끔히 쓸었는지 마당은 연한 비자루꼴이 일으킨 잔모래와 부드러운 흙으로 자분히 갈려있었다.

그것을 밟으며 걸으니 마치도 포근한 주단우를 걸어가는듯한 유별난 느낌을 주었다.

마당귀를 따라 꺾어돌린 하얀 담장밑에는 집중화며 함박꽃, 다리야 등 온갖 꽃이 만발했는데 꽃잎마다 구슬같은 이슬이 촘촘히 매달려 더없이 아름답고 청신한 기분을 풍겼다.

인서는 무엇에 끌리듯 한결음 두걸음 앞길에 나섰다.

마을뒤에는 물매급한 높고험한 산발들이 둘러섰는데 잣나무, 도토리나무, 가래나무 등 무성한 숲으로 뒤덮여 있다,

또한 산중의 바다라고 할수 있는 큰 호수가 마을앞에 펼쳐졌다.

미구에 아침해살이 퍼져오르자 깊은 골짜기마다에서 피어오르는 연보라빛과 불그스레한 빛으로 혼탁되어 화려해진 안개발이며 그것을 허리에 두른 검푸른 산봉우리들, 번쩍이는 절벽들이 수면우에 비쳐들면서 한쪽의 그림처럼 황홀하게 안겨왔다.

인서는 길을 쓰는 연순이를 만나자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연순동무, 안개발두, 산발두, 호수도 정말 그림같소! 절묘한 강산이요.》

《우리교장에 오시는 손님들은 모두 감탄합니다. 매일 보는 저 역시 그 심정입니다.》

처녀도 아름다움에 한껏 취한듯 거기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가름한 얼굴이며 티없이 맑은 살결, 옷을 때마다 살짝 파지는 볼우물, 류달리 정기어린 까만 눈동자… 어제밤 비발속에 우산을 들고섰던 모습이며 담장밑의 정갈한 꽃밭과 부드러운 흙이 깔린 깨끗한 마당과 길… 인서는 처녀의 일거일동이 것처럼 인상깊은것이어서 그 얼굴모습도 더 아름다와보였던것이다…

인서가 연순이 주는 취사복을 입고 주방에 들어서니 산뜻한 조리대며 병을 따라 놓인 받침대와 당반우에는 눈이 부시게 닦은 반짝이는 크고 작은버치들이 놓여있었다. 또한 부뚜막에는 어디서 구해다 붙였는지 오색타일로 곱게 장식되어있어 어디나 처녀의 빈틈없고 섬세한 일습씨가 깃들어있었다.

주방에서는 한창 연순이와 주방아주머니가 국수반죽을 하며 웃고 떠들었다. 국수는 강냉이로 농마를 내여 국수나무가루를 섞어서 만들었다.

새로 맞춘 분들밀창으로 실오리처럼 가늘고 윤기가 반짝이는 흰 국수발이 빠져나왔다. 연순이와 아주머니는 희고 보동보동한 팔을 걷어붙이고 칠칠

감기는 국수를 연방 물기를 짜워 넉적환유리그릇에 차곡차곡 담았다.

국수꾸미는 도에서처럼 고기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닥치, 고사리, 고비, 버섯 등을 고기와 무쳐서 그릇마다 듬뿍듬뿍 올려놓았다. 식당안에 흐미하고 향긋한 냄새가 구미가 동하게 풍겼다.

일반적으로 쟁반이라면 고기를 찢는 누깃누깃한 맛이 주도적이고 여름국수는 그저 시원하다는 것이 기본맛이지만 여기 국수는 허바닥에 실오리같이 가늘고 질린 국수발이 오래 묻어 돌아가며 주는 특유한 감칠맛과 씹을수록 달작지근하고 고소한 맛을 주는 산채류들 ... 그 모든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전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는듯한 유별난 맛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한낮이 될무렵 식사준비를 다해놓으니 마당가에서 자동차소리와 함께 한때의 림산로동자들이 식당안으로 떠들썩하며 들어섰다.

《연순동무, 난 두그릇을 한데다 얹어말이를 해주오.》

《여, 연순동무가 뭐야, 책임자이지... 나두 그렇게 해주오.》

젊은 친구들은 마치도 흠없는 누이에게 부탁하듯 너도나도 즐거운 어조로 말했다.

연순은 웃는 낯으로 누구에게든 《좋아요, 얼마든지 요구하세요.》 하고 말하며 연방 국수쟁반을 들고 식당으로 나갔다.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연순의 명랑한 웃음소리로 식당안은 일시에 흥성거렸다.

인서는 한숨 돌릴 생각으로 의자에 앉아 그 모습들을 즐거운 눈길로 내다보았다.

잠시후 식사를 먼저 마치고 밖으로 나가던 친구들이 주방안을 넘겨다보며 《아니 연순동무가 간다더니... 그래서 남자료리사가 온게 아니야?》 하고 물었다.

《나이루 봐선 료리박사쯤 될것 같은데.》

《아무리 박사라면 우리 마음을 연순동무만큼이야 알아주겠어. 연순동무가 인차 떠나가는게 틀림없겠어.》

그들은 서운한 어조로 말을 주고받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인서는 옛그제밤 시내가에서 얼굴이 통통한 청년이 연순에게 5 일내로 결심을 내리라고 다짐하던 일이 피곳 떠올랐다.

정말 연순이가 떠나간다면 림산사람들은 물론 누구나 아쉬워할것이다.

그러면 어느 처녀가 또 연순이처럼 이고향사람들, 아니 자기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출장원들한테 야밤중에 우산을 들고 마중나와 주며 한끼의 패식조차

건느는것이 것처럼 관심이 되어 온갖 정성을 다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아낌없이 부어줄것인가.

인서는 생각할수록 마음이 허전해졌다.

며칠후였다. 연구하던 자료들을 정리하고 시내가에 수건을 들고나갔던 인서가서관마당에 들어설 때였다.

중절모처럼 생긴 초물모자를 쓴 허우대 큰 사람이 연순이와 마주서서 그의 말을 듣고있었다. 들을수록 분개해서 견딜수 없는듯 흥분한 어조로 《어제밤에 림산사업소에서 전화루 독촉했던말이지?... 도에 올라가더니 민충이 쏙대우에 올라간것만치나 높아보이는게로구나. 제가 뭐길래 너한테 제결심을 강박한단말이나. 그런데 그가 내 눈에는 왜 한번도 띄지 않는지 원, 찌쯔...》 하고 말하던 나머지 은근히 그를 버르기까지 했다.

인서가 그의 옆을 지나갈 때 초물모자를 쓴 사람이 한걸음 나서며 《연구사선생, 산골에 와서 수골합네다. 나는 여기 산림보호원이웨다. 연순이한테다 들었는데 큰일을 합데다요.》 하며 텁텁한 음성으로 자기 소개를 자청했다.

인서는 인사말을 주고받으면서도 그의 손에 쥐여진 잎이 파랑고 줄기가 콩나물처럼 애리애리해보이는 나무모를 보며 놀랍게 부르짖었다.

《아니 이거 백리향이구만요.》

《맞습니다. 모종을 해서 번식시키자구... 산에서 떠오르는 길입니다.》

인서가 시들해진 나무모를 두고 걱정하자 산림보호원이 호미를 찾아들었다.

인서는 그가 려관열 터밭으로 가는 통에 따라갔다.

넓은 밭에는 온갖 약초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다. 오미자덩쿨이 오갈피나무에 휘감겨오르는가하면 주염나무, 땀덩이덩굴을 비롯한 귀한 약초들이 검푸른 잎새를 펼치고 바람에 너울거렸다.

《큰일을 합니다. 이걸 혼자서 가꾸는가요?》

인서는 그것들을 놀라운 눈길로 보며 물었다. 산림보호원이 백리향나무를 이미 모종하고있는곳에 심으며 긍지높이 말했다.

《연순이가 연구사라면 나는 조수격이나 되지요. 여기에 약초밭을 만든것두 또 귀한 약초를 심어 확대하는것두 다 연순이가 계획하고 전망적으로 하지요.》

인서는 가볍게 놀랐다. 병원도 아닌 려관에서 무엇때문에 약초를 대대적으로 키운단말인가.

산림보호원이 인서에게 리해를 주려는듯 다시말했다.

《연순이가 식물을 귀하게 여기는데는 그럴만한 리유가 있지요. 제아버지가 나처럼 산림보호원이여

서 나무를 애지중지 키우는걸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요. 이제는 돌아간지가 3 년이 지났수다. ... 내 방금전에두 성을 냈습니다만 도림업총국에 연순이가 사랑하는 청년이 있는데 여기 립산사업소에 있다가 조동되어갔지요. 여기 있을때에는 공부를 한다, 연순이가 하는 일을 도와준다 했는데 총국에 가자마자 연순일 무작정 데려가겠다는거웨다...서로 이해하고 위해주는건 없이 저만 저라고 하고는 통 연순에 대해선 생각지도 않는단말이웨다. 연순이라고 왜 제생각이 없겠수. 나두 그런 연순일 나쁘다고 하지 않수다.》

인서는 그의 말을 듣는 과정에 처녀의 아름다운 얼굴모습이며 알뜰하고 간진 일습씨, 웅심깊은 마음 등 어느 하나 빠진데가 없는 그에게 총각이 마음쓰는것은 응당하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처녀가 이런 한적한 산골식당에 소문없이 묻혀있기보다는 변화한 도시로 가는 것도 나쁠것이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호상 생활에 대한 자기 주장들을 굽히지 않은데로부터 피치 못할 사정이나 있는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처녀는 장차 식물학을 전공하려는것인가?

산골식당을 알뜰히 꾸리고 오가는 손님들한테 온갖 정성을 다하는것을 보면 결코 그런것 같지도 않은것 같았다.

### 3

인서는 요즈음 여덟개의 깊은 골짜기로 이루어진 무수봉일대에 대한 식물채취와 환경조사를 정력적으로 추진시켰다.

칼벼랑 3 호지점은 비교적 가까운곳이어서 오늘은 점심을 지참하지 않고 떠났다.

인서가 필요한 식물들을 채집한후 산발을 내리려할 때 검은 구름이 갑자기 밀려들면서 무더기비가 쏟아졌다.

한시간, 두시간... 비는 좀처럼 그치지 않았고 골짜기마다는 시뻘건 물이 돌을 굴러내리며 사품쳐도저히 발을 들여놓을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인서는 오도가도 못하고 비가 들지 않는 벼랑밑에 들어섰다.

《선 - 생 - 님-》

쏟아지는 비발을 피하여 우묵진 벼랑밑에 쭈그리고앉아 생각에 골몰하던 인서는 어디선가 모기소리만한 소리가 들려오는듯하여 흠칠 했다.

귀를 바짝 강구였으나 그 소리는 더 들리지 않고 골짜기로 돌이며 흙사태를 안고 쿵쿵 짓조으며 쏜

아저내리는 장마홍수가 내는 무서운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인서는 조금전의 생각을 되살렸다. 경제식물들을 단위면적에 집약적으로 배치하자면 모든 식물들의 생태적특성을 엄격히 고려해야 한다. 온도와 습도, 통풍과 영양물질, 받는 햇빛량 등 생육조건이 호상 제약없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기때문이다.

《선 - 생 - 님 - 》

확실히 누구를 찾는 소리가 쉼-- 쉼-- 사납게 흐르는 물소리에 삼켜졌다가는 되살아나며 들려왔다.

인서는 벌떡 일어나 경사지를 뚫아올라 선바위꼭대기에 서서 사방을 살폈다.

순간 수림이 우거진 남쪽산발한가운데 우뚝 솟은 절벽우에서 빨간 비옷과 수건이 나뭇기는것이 아닌가.

《누 - 구 - 를 - 찾 - 소 - 》

《선생님 - 난 연순이에요-》

《연순동무 - 나 여기 있소 - 》

인서는 목이 터지도록 소리쳐 부르며 목에 걸었던 흰 수건을 세차게 휘둘러댔다. 그쪽에서도 알아본듯 빨간 수건을 더 자주 흔들었다.

인서는 건너가지 못할 물사태를 근심스린 눈길로 보며 산비탈에 붙어 서성거렸다.

잠시후 산중턱에서 가파로운 산비탈을 미끄러져 수풀을 헤치며 재빠르게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다름아닌 연순이었다. 인서는 험한 물사태를 넘어온 그가 놀람기만 하여 멍청히 바라만 보았다.

《아이, 선생님 얼마나 혼났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물사태를 넘었소?》

《저야 뭐 산채구 버섯이구 도라지를 캐느라 안다녀본 골짜기가 있나요. 선생님, 빨리 식사하세요.》 연순은 놀라움을 풀지 못해하는 인서에게 상냥한 어조로 말하며 지고온 배낭을 벗었다.

배낭을 받아쥐던 인서는 가볍게 놀랐다. 산비탈에서 굴러났는지 연순의 옆구리에 거뭇한 흙탕물이 발렸고 더우기 바지가랭이는 찢진채 발화목 부근에서 피가 내배였다.

《아니 상했구먼 ?》

인서가 놀랍게 말하며 오금을 꺾고앉자 그제야 처녀는 상처를 느낀듯 얼른 주위를 살피더니 술한 나무가지중에서 하나를 휘여잡고 있을 쪽 훑어 손바닥에 비벼 상처에 붙였다.

《아니 그건 왜 그렇게 하오?》

《이게 지혈제로 쓰는 약초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는 법을 배웠어요.》

연순은 인서가 놀랍게 물었으나 태연히 대답했다. 연순이가 서둘러 커다란 뚝배기를 여니 흰 쌀밥이 그득히 담겨져있었다. 또 다른 통에는 각종 산채



류들, 더우기 빨간 고추물이 곱게 물든 도라지채가 듬뻍했다.

인서는 그것들을 더는 바라볼수가 없었다.

자기의 딸도 아니고 또 발은 친척도 아닌, 며칠전 만해도 전혀 인연이 없는 사이였건만 무엇때문에 그가 이렇듯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보살펴주는것인가.

그 모습이 너무나 진실하고 가식이 없었다.

《선생님, 생각같아서는 국수를 가져오고싶었는데 험한 산밭을 타다나면 다 풀어질것 같아 밥을 가져왔어요.》

《아니요. 아니...》

인서는 말할수록 뜨거운것이 자주 목구멍을 메워 더 말을 못하고 황황히 손짓만 했다.

인서가 뜨거운 마음을 안고 식사하는동안 연순은 여러 말을 했다.

뜻하지 않게 무더기비를 몰아오고 나무를 뿌리채 뽑고 흙사태를 일으키는 등 무서운 조화를 일으키면서도 사람들에게 재부를 제공해주는데는 모든것을 아낌없이 드러내는것이 산골이라고 했다.

인서는 식사를 하고나니 날것처럼 기운이 솟았다. 비도 뜸해져서 그들은 길을 떠났다.

연순은 앞서서 키가 넘는 가독나무며 개암나무, 속새풀이 빼곡한곳을 날렵하게 헤치며 빠져나갔다. 그는 자기 뒤를 따르는 인서에게 풀잎들을 뜯어서는 《이건 원추리예요. 이른봄에 뜯어서 국을 끓이면 막 달아요.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국보다 나물을 더 좋아하더구만요.... 또 이건 개병풍이구 요건 일레지, 아이 꽃이 참 곱지요?...》 하고 매개 나물들의 특성이며 지어는 그것들을 채취할때 주의사항까지 말했다,

연순은 지금까지 어느 책에도 써여있지 않는것을 말했다. 그가 것처럼 확고하고 명백하게 말할수 있는것은 자신이 실지 그것들을 리용하면서 얻은 지식이기때문일것이다.

그들은 황토색진흙물이 광광 울부짖으며 흐르는 곳까지 왔다. 십여미터 높은 벼랑턱으로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내렸다.

연순은 바로 그 벼랑안턱에 딱 붙어서 저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인서는 그 모습을 보고 산세를 손금보듯한다고 거듭 감탄하면서 자기도 연순이처럼 벼랑을 넘어왔다.

드디어 그들은 앞이 확 트인 산중턱에 내려왔다. 깊은 계곡에는 아름다리 붉은 소나무며 잎이 무성한 참나무, 벚나무, 사스레나무들로 꽉 들어찼다. 나무마다 머루, 다래 덩굴이 칭칭 감기고 엉키여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 덩굴어도 떨어지지 않을만치

편편했다. 그밑에는 대낮에도 별이 들지 않아 컴컴했다.

연순이가 전혀 새로운 길로 걸어가자 인서는 의아했다.

연순은 그를 보고 좋은것을 구경시켜주려 한다고 말했다. 인서는 그 말에 기분이 좋은듯 코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따랐다.

경사지를 내려오던 연순이가 약간 후미진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도라지가 이렇게 많단말인가.

인서는 길길이 자란 줄기끝에 달린 아이주먹만한 연보라꽃송이들을 만지며 환성을 올렸다.

《연순동무, 이건 완전히 도라지밀림이요,》

《몇년전에 우리 식당에서 조성한 도라지밭이에요. 여기에 또 와보세요.》

연순이가 이번엔 인서를 가독나무가 꼭 들어찬곳으로 이끌고 가 나무가지를 헤쳐보였다. 거기에는 노르끼레하고 창끝처럼 뽕족뽕족한 덩지큰 싸리버섯이 수없이 깔려있었다.

《야! 굉장하군, 굉장해!!...》

인서는 마치도 자기가 설계하는 현실이 그대로 안겨오듯 흥분된 어조로 련속 환성을 올렸다. 온 산관을 이처럼 만들자는것이 자기의 계획인것이다. 바로 연순이가 자기의 계획을 현실로 전환시키고 있는것이 아닌가.

《우리는 해마다 여기서 도라지와 버섯을 키워서 도시에도 보내고 식당부식물로 쓰지요. 한 2~3일 후부터는 버섯도 뜯고 도라지도 캐야겠어요. 일이 막 밀리기 시작해요.》

연순은 또한 산기슭을 따라 펼쳐진 강냉이밭과 콩과 팔, 참깨밭들을 가리키며 이 전부가 식당부업지라고 하면서 이걸 구경시켜주자고 여기로 함께 왔다고 덧붙였다.

인서는 식당에서 이고장사람들, 특히 립산노동자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는 소문난 국수며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특색있는 음식의 원료들이 모두 여기에서 나온다는것을 알았다.

한가닥 실바람이 불어오면서 도라지꽃이며 콩꽃, 참깨꽃 등이 내뿜는 들크무레하면서도 감미로운 향기를 풍겨주었다.

연순은 감회깊은 어조로 말했다. 봄내 산에 올라 부식토와 흙구이를 해서 거름을 장만하면 립산사업소동무들이 씨도 뿌려주고 또 가을걷이도 도와준다고 했다.

이윽고 연순은 인서에게 잠간 휴식하라고 말하고 자기는 밭들을 한바퀴 돌아바야겠다고 자리를 떴다.

인서는 연순이가 한일을 두고 생각이 깊었다. 이 일대에서 부업지를 가꾸고 유용한 식물을 키우는

등 큰일을 하고있는것을 보면 단순히 식물을 사랑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다른 원대한 꿈을 안고있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다.

정말 사랑스런 처녀였다. 인서는 연순이가 인차 나타나지 않아 궁금하여 그리로 갔다. 그런데 연순은 무더기비에 부엌발기습이 떨어져 나간곳에 돌을 안아다 담을 쌓고있었다.

인서가 황황히 팔소매를 걷고 들어서자 연순은 그의 앞을 막아서며 《선생님, 손을 어지럽히지 마세요. 제가 인차 합니다.》하고 애원하다싶이 말했다.

《가만, 뭐 내라구 못할줄 아우.》

인서는 노여운 소리로 말하며 망작같은 돌을 안아다 담을 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발기습이 정리되었다.

그들은 땀을 들이느라 잠시 돌등에 앉았다.

연순은 파란 수건으로 발깃해진 얼굴을 닦으며 명랑한 어조로 말했다.

《선생님, 언젠가 우리 러관에 기자선생님들이 왔었는데 우리교장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곳이라고 신문에 사진까지 반쳐서 소개했었어요. 그 사진이 얼마나 희한하던지… 또 전번에 왔던 탐사대원들은 우리마을 뒤산에 큰 중성광맥이 있다나요… 그리고 선생님은 산마다 보화가 넘쳐나게 하자구 왔지… 정말 모두가 우리교장을 살기 좋은 락원으로 만들자고 찾아오는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그런지 누구나 다 저의 아버지나 오빠처럼 보여요… 그저 자나 깨나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다할까 하는 생각뿐이예요.》

《연순동무, 정말 이 교장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교장이요!》

인서는 감동이 너무나 커서 그런지 연순을 뜨거운 마음을 안고 바라보며 말했다.

이때 얼마 멀지 않은 숲속에서 무슨 짐승들이 달려오듯 와슬렁거리는 소리가 났다.

《선생님, 꿈 같아요. 내뒤에 서세요》

연순이가 숲속을 감시하며 앞에 나서자 인서도 손에 알맞춤한 몽둥이를 쥐고 긴장해섰다.

이때 누르끼레한 짐승들이 숲속에서 훌쩍 빠져나와 달려왔다.

《아 이 저것들이… 선생님 놀라지 마세요. 산림보호원아바이가 데리고 다니는 개예요.》

긴장해섰던 인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두마리의 개가 연순이한테 달려와 반갑다고 경충경충 뛰어들었다.

《이제 아바이가 나타날거예요. 이놈들은 사이가 여간 좋지 않아요. 쌍둥이니까 더 그런것 같아요.》

《허 허… 쌍둥이…》

인서는 어이없이 웃었다. 드디어 숲을 헤치며 초물모자를 쓴 산림보호원이 나타났다.

그는 연순이와 인서를 보더니 반가와하며 입을 열었다.

《연순아, 새로 조성한 잣나무밭에 사태가 나지 않았나해서 돌아봤는데 일없더라. 참 무슨놈의 비두… 금년에는 저 잣나무밭에서 잣을 섬으로 따졌더라. 잣송이가 얼마나 매달렸는지… 선생, 우리 연순이가 가꾸는 도라지와 버섯밭들을 구경했소?》

《예, 놀라울 정도입니다.》

인서는 자기 소감을 열결에 말했다. 머리를 끄덕이던 산림보호원이 팔을 들어 잣나무가 밀림처럼 짙어찬 앞산릉선이며 그옆으로 가래나무가 뒤덮인 검푸른 골짜기들을 가리키며 감회깊은 어조로 말했다.

《저게 모두 전쟁이 끝난 해에 전선에서 돌아온 연순이 아버지가 심은것들인데 지금은 해마다 술한 열매를 수확해서 도시로 실어가지요.》

《그렇군요.》

《어떤 사람들은 그 형님이 평생 산림보호원밖에 못했다고 했지만 그가 심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면서부터 나라를 위해 살았다는걸 알았지요… 그가 돌아가면서 나한테 <우리 애들과 함께 이교장을 잘 꾸리라구.>하고 유언을 남겼지요. 연순이가 그 일을 이악하게 잘해나갑니다.》 《…》

인서는 더 무어라 할말이 없었다.

연순은 고개를 숙인채 애어린 잣나무의 바늘잎사귀를 손으로 가볍게 쓰다듬고 또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비로소 인서는 좀전에 연순이가 이 교장에 찾아드는 사람들에 대한 말을 꺼냈던것이며 또 교향에 대한 애착과 여기서 산다는 궁지가 한껏 어린 모습, 연순이 아버지의 숭고한 모습들이 서로 깊은 인연으로 맺어져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쳐 다시 의미깊은 눈길로 연순을 보았다. 그 사연이 무엇인가 알고 싶었으나 한마디로 까묻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경솔한 행동같아 인서는 더 말하지 않았다.

## 4

인서는 식물학연구소에 전화를 걸려고 문밖을 나섰다,

마당에는 어제밤 비를 맞으며 이곳에 온 텔레비존촬영가 두명이 안개밭이며 호수며 수려한 산발들이 그림처럼 안겨오는 황홀한 선경에 취해 저마다 감탄하며 돌아갔다.

연순의 방 처마밑줄에 비에 흠뻑 젖은 우산들이 주련이 걸려있고 문지방옆에 흙탕이 발린 장화가

놓여있는것으로 보아 그가 또 어제밤에 손님을 마중나갔던것이 분명했다.

연순은 방에 없었다.

책상우에는 사업노트가 펼쳐져있는데 거기에는 주간식사계획과 식당보수에 대한 계획이 적혀져있었으며 그옆에는 여러장의 편지들이 놓여있었다.

얼핏 보니 탐사대 일동으로 보낸것이며 신문기자, 지어는 약초캐러 왔던 어느 도시 의사들 등 여기에 왔다간 사람들이 보낸것들이었다.

인서는 연구소에 전화로 그간 사업정형을 보고했다. 전화를 받던 소장은 인서가 짧은 기간내에 립지 조사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할수 있냐고 놀라기까지 했다.

많은 경우 출장지가 궁벽한 산골이다보니 사업조건이 불편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한번 다녀올 출장길을 두세번 힘들게 갔다오는 경우가 있다.

소장 역시 인서가 그런 일을 이번 출장길에서도 면치 못할것이라고 단정했던것 같다. 정말 연순이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런 큰 성과는 생각조차할수 없는것이다.

연순이한테 보내온 이 편지들도 열이면 아홉은 자기처럼 연순의 신세를 저 많은 일을 하고 간 사람들이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여 보내온 편지일것이다.

인서는 조사결과를 가지고 오늘중으로 연구소에 돌아가기로 락착했다.

《수고합니다.》

인서가 수화기를 놓고 문밖을 나서려는데 웬 청년이 토방밑에 와 서며 인사말을 건넸다.

철빛이 짙은 통통한 얼굴이며 후리후리한 키에 밤색자크가방을 낀 모습... 두눈을 껌벅이던 인서는 피곳 기억에 떠오르는듯 그를 똑바로 보았다.

머칠전 연순이한테 5일내로 결심하라고 다짐하던 청년이었던것이다.

심각해진 얼굴빛을 보니 연순이를 찾아온것이 틀림없었다.

인서는 마치도 자기가 어떤 운명적인 일을 당한듯 이상하게 가슴이 후두둑 뻘을 느꼈다.

《아바이는 연구소에 오래 계셨습니까?》

그도 먼처번에 인서를 본 기억이 있어 그런지 낯색을 달리하며 아는 투로 말을 걸었다.

《에 나이루 다 보냈지요.》

《아니 그럼 한생을 이런 산골루 찾아다니는 길에서 다 보냈단말입니까?》

《...》

인서는 말하지 않았다. 토방우에 움쭙하고 올라선 청년이 얼굴빛이 점점 어두워지는듯한 인서를 동정어린 눈길로 보며 말했다.

《이런 산골에 출장을 다니니 힘들겠습니까.》

《허허... 힘이야 들지... 그런데 동문... 저 연순동무를 찾아왔겠지?》

《에... 저 좀...》

청년은 인서의 말에 멧적은듯 뒤터수기를 쓸며 어물어물 대답했다.

인서는 연순이가 뒤마당에서 부엌발에 침입하는 메돼지를 쫓기 위해 쾡과리며 불놓을 마른 장작을 준비하느라 바빠 돌아가고 있다고 알려주고 나왔다.

잠시후 뒤뜰에서는 심각한 말소리들이 들려왔다. 채집한 식물들과 토양시료들을 차곡차곡 싸넣고 짐을 꾸려야겠으나 인서는 좀처럼 일손을 제대로 놀릴수가 없었다. 그는 끝내 참지 못하고 일어나 유리창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연순은 배나무에 기대여섰고 청년은 의자에 앉아서 말했다.

《연순동무, 나는 동무가 종당에 와서 이렇게 장마철에 오이꼭지 문드러지듯 뚝 떨어질줄은 몰랐소. 인간에게서 약속을 어기는것보다 더 욱되고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없는거요.》

심장으로 담보한 약속을 그렇게 쉽게 꺾버릴수있소?... 동무는 다만 이 산골에서 하는 일만이 값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좀 삼가해주세요.... 동무가 여기 있을 때에는 얼마나 희한한 말을 했어요. 식물학을 전공해서 이 지대를 《보물산》으로 꾸린다고요... 나는 그 약속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구 모든걸 거기에 바칠걸 다짐했어요. 그 약속을 저버린데 대해선 생각되는게 없나요?... 길수동무는 저의 처지를 잘 알지 않나요. 나한테 이제는 제발 더 요구하지 마세요.》

연순은 조용하면서도 담차고 명확한 어조로 말했다. 그 말에 청년은 머뭇거리다 나중엔 김빠진 소리를 내며 되물었다.

《허참! 내가 여기를 뜯거야 우에서 소환해서 간것이 아니요?... 그런데 동무는 만날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조건을 붙이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부모들이 돌아간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소?》

《아니?! ... 동무는 어쩌면 나를 지금까지 그런식으로 알았어요?》

연순은 청년의 덜통스런 말이 참을수 없는 아픔을 몰아온듯 얼굴이 해쓱해진채 피로운 어조로 물었다.

청년은 대답하지 못했다.

연순은 서운한 눈길로 길수를 보던 나머지 모두숨을 내쉬며 이윽히 입을 열었다.

《길수동무, 내가 어릴 때 아버지는 어느때든 산에 올라 넘어지는 나무를 바로잡아주고 또 나무모를 심고 사태가 나지 않게 돌각담을 쌓곤했어요. 그런 아버지를 나는 한사코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나무가지나 돌뿌리에 걸쳐 넘어져 상처가 나면 아버지는 무슨 나무잎을 뜯어 비벼서 붙여주며 <우리 연순이가 얼른 크겠군. 자 아버지손이 약손이지.> 하고 얼렸어요.... 또 배가 아프다면 동글동글하게 생긴 풀뿌리를 캐서 주었는데 그걸 먹고나면 신통히 거짓말을 했던것처럼 나았어요.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런 날엔 노래를 부르며 온갖 꽃들을 한아름씩 어안고 아버지손목을 쥐고 집으로 내려오지요. 그럴 때엔 아버지도 흥얼흥얼 코노래를 불렀습시다.

마침 산기슭 아담한 집에서 하얀 행주치마를 두른 어머니가 동이를 끼고나오다 우리를 보고는 동이를 놓고 마중와서 나한테서는 꽃무음을, 아버지한테서는 연자망태를 받아메고 더없이 즐거워 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나처럼 등을 두드려주며 한없이 행복한 어조로 <여보, 산은 나날이 푸르려가구 온갖 꽃이 만발하구 그리고 당신두, 우리 꽃같이 굵구 귀여운 연순이두... 나는 정말 꽃밭속에서 사는것 같소!...> 하고 말하곤했어요... 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무엇때문에 자기의 성실한 땀을 이 푸른 고향산천에 묵묵히 바쳐왔는가를 아직 몰랐었어요. ...난 지금에 와서야 그 참된 땀을 온 심장에 받아안은것 같어요. 하기에 이 땅을 떠나 다른것을 생각할수 없어요...》

《그만하오.》

갑자기 청년이 신경질적으로 부르짖는 소리에 숨을 죽이고 처녀의 말은 듣던 인서는 화닥닥 놀랐다. 가슴이 화닥화닥 뛴뛰기까지 했다.

청년이 무슨 근거로 불같은 진실앞에 그런 불손한 행동을 한단말인가.

자기는 지금까지 청년에 대해 어떤 일이 있어도 연순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않는것을 보고 칭찬했었는데 연순이가 운명적인 말을 한다고 그렇게 행동할수 있단말인가.

자신도 지금까지 이 거대한 숲과 연순이 아버지와 딸간에 이처럼 운명적으로 얽혀져있는줄은 몰랐었다.

연순의 아버지는 조국앞에 한 가정앞에 얼마나 커다란 재부를 안겨주었으며 또 그것을 받아안은 연순의 자세에는 얼마나 고귀한 뉘이 깃들어있고 아름다운 삶과 원대한 리상으로 충만되어있는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참된 인간으로 평가되고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할 처녀가 한 인간한테서 배

척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인서의 가슴은 쓰리기 그지없었다.

인서가 다시 밖을 내다보니 청년은 없고 처녀만이 배나무에 이마를 마주한채 어깨를 떨고있었다.

과도에 부대끼던 두배가 끝내 갈라져 벌어지는듯한 모습을 볼 때 인서는 너무나 허무하여 땅이 꺼지게 모두숨을 내쉬며 그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인서는 얼마후 배떠날시간이 되어려관을 나섰으나 마당가에서 발길을 떼지 못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추녀밑에 달린 정갈한 간판, 파란 유리창문이며 깨끗한 돌로 쌓은 토방...얼마크지 않은 이 집에서 사람들은 며칠밤, 아니 단 하루밤을 지내고 떠난다 해도 자기 정든집을 떠나기보다 더 아쉬워하는것이 아닌가.

얼마나 뜨거운 열정과 힘을 안겨주는 산촌의 작은 집인가.

숲에 대한 사랑, 사람들에게 대한 뜨거운 지성,그 모든것은 오직 한생을 조국에 바쳐가는 숭고한넋이 사람들의 피줄에 맥맥히 흐르게 하는것이다. 그럴수록 좁전에 뺨파리며 새끼줄, 장작들을 묶어 등에 지고 부업밭으로 가던 연순의 모습이 자꾸 안겨와 견딜수 없었다.

애간장이 타서 가슴속에는 꺼먼 솟덩어리만 찻을 그였건만 자기보고 빨리 와달라고 애써 웃음지으며 간절하게 부탁하던 그 모습이 마음에 불을 달아주는것이다.

인서는 자신을 꼼꼼히 돌이켜보았다. 자기의 생활에서는 빈구석들이 있었다.

그 빈구석들이 연순이 아버지나 연순이를 놓고 비추어볼 때 너무도 확대되어 안겨오자 이번 출장길을 마지막이라고 단정했던 자신이 맹랑하기 그지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연순이처럼 자기가 딛고선 땅을 꽃피우려고 말은 일에 성심성의를 다한다면 우리조국은 얼마나 부강해지고 아름답게 전변될것인가.

인서가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계선장에 나오니 호반우에는 저녁노을에 곱게 물든 하늘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부두와 멀지 않은 물가에 우뚝솟은 바위우에 웬사람이 오금을 꺾고 앉아 머리를 숙이고있었다.

인서는 거기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 사람은 물속에 비낀 체그림자를 묵묵히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찬찬히 여겨보니 다름아닌 연순이한테 왔던 그 청년이 틀림없었다.

순간 인서는 자신도 모르게 그 한태로 천천히 걸어갔다.

청년은 인서가 가까이 와서 기침을 해서야 얼굴을 들었다.

《그래 떠나자고 그러나?》

《예...》

청년은 여전히 속이 타는지 고개를 숙인채 담배만 연거퍼 빨았다.

인서는 조용하나 절절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자네가 뭇때문에 피로와하는지 아네... 연순동무와의 관계를 잘은 모르겠지만 자네는 좋은 동무를 사귄것만은 틀림없네. 그 동무는 이고장에서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있네.

단순히 손님들에게 밥이나 해주는 보잘것 없는 산촌의 봉사일군이라고만 생각지 말게.

오늘 그의 가슴에서 무엇이 들뛰고있는가 하는걸 가슴해야 할거네.

정말 작은 가슴에서 큰 심장이 뜨겁게 고동치고있네. 자넨 그걸 볼줄 모르는가. 그 정열적인 숨결을 엿듣지두 못하구?... 봉사일군치고 보기 드문 처녀봉사일군이야.

이름모를고장, 한적하달만치 깊은 산중에서 손님들에게 뜨거운 손길을 주며 그들의 길잡이가 되고저 제 힘껏 일하지, 그것이 자기 고향을 더 빛내는 길이라는 그런 자각이 심장깊이 간직되어있는게 아닌가! 이점이 가장 귀중한거야.

이 러판에 들렀다 가는 나 자신은 물론 손님들모두가 한결같이 연순이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네.

칭찬정도가 아니네. 그는 정말 사람들에게 큰힘을 주네. 이번 출장길이 마지막이라고 단정했던 내 자신이 연순이를 대하고보니 어쩐지 죄스럽게 여겨져버렸네. 아니 난 새롭게 시작하려네. 그럴 용기가 생겼네.》

심각한 인서의 말을 묵묵히 듣고있던 청년이 고개를 들며 피로온 어조로 말했다.

《연구사동지도 다 들었됐구만요. 사실 립산사업소에 가니 우리 동무들이 내가 연순동무를 데려간다는것은 좀 더 생각을 해보라고 충고하는걸 막무가내로 듣지 않고 왔었는데...》

《거 보라구...》

《나는 지금까지 연순이가 이 고장과 아버지와 함께 그가 태어나서부터 심장에서 뻗은 피줄처럼 연결되어있는줄은 몰랐습니다.

아까 큰소리치고 돌아섰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모르고 분별없이 행동한 자신에 대한 울분의 목소리였습니다》

《야 동무야말로 우리 시대의 청년답고 장하네!》

인서는 청년의 손을 꼭 잡은채 걱정이 솟구쳐 더 말을 못했다. 답답하던 가슴도 어지간히 시원해졌다.

사위는 어두워졌다. 불현듯 호수건너편 우중충한 산발중턱에서 어둠을 밀어내며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뒤미처 《뽕칭- 뽕칭-》하고 뽕과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를 깨치며 울려 퍼졌다. 그들은 일어섰다. 인서가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저 불은 연순동무가 지피는것일제.》

《연순동무가요? ? ...》

《메뻬지란놈을 쫓기 위해 놓는 불이네. 친구, 동무의 심정을 모르고있는 연순동무는 지금 매 순간을 얼마나 피로와하겠나...》

《죄지은놈의 손발이 더 저리다구 저 역시 연순동무를 찾아가야 이 피로움에서 벗어날것 같습니다. 저기로 가겠습니다.》

《좋네.》

인서는 기뻐다.

그들은 부두로 왔다. 승객들을 태운 려객선이 부두를 떠났다.

인서는 선장한테 사정을 이야기하여 청년을 저쪽 건너편에 태워다주도록 합의했다.

배는 즉시 탐조등을 밝히며 호수 건너편 부두가에 배머리를 가져다댔다.

청년이 부두에 내렸다. 인서는 그의 손을 굳게 잡고 자기도 갔다가 이제 다시 오겠으니 그때 손을 맞잡고 본때있게 일해보자고 거듭 말했다.

려객선은 달렸다.

인서는 갑판우에서 점점 벌어지는 산중턱의 불길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주위를 환히 밝히며 타오르는 불길은 자신의 마음을 것처럼 열렬하고 강의하게, 아름답게 해주는 연순의 모습으로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 정발의 최후

리유근

### 1

1592(임진)년 3 월 초.

부산진첨사(첨절제사-일정한 지역의 국방을 책임진 중 3 품 무관) 정발은 아침 일찌기 잠을 깬다.

뛰창너머 쪽빛하늘은 맑았다. 울안의 매화나무가지에서 참새떼들이 다정스럽게 재재거렸다. 꽃 그늘아래 거뒸한 음달에는 간밤에 떨어진 꽃잎이 흰 눈처럼 소복이 깔려있었다. 정발은 아쉬운듯 꽃나무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꽃도 한철, 인생도 한철이라더니...)

이 무슨 사나이답지 않은 나약한 생각인가 하는 칼친 장부의 자존심이 굼틀하여 그는 인차 근엄한 낮빛으로 돌아왔다. 꽃잎은 흩어져도 향취는 남아 있는 법이다. 향취가 남아있거니 하물며 그 절개일 가보나.

그는 호기있게 창턱에서 물러났다. 그리고는 조루를 찾아들고 뒤뜰로 나가 따로 가꾸는 매화분에 물을 주었다.

싱싱한 잎새와 탐스러운 꽃송이들이 금시 터져 오를듯 생기를 뿜는다.

한때 풍월짓고 환(그림)이나 치는것으로 소일하는 문반들의 열은 취미를 한자루의 검으로 일소해 버리던 자기가 언제부터 그들의 본을 따서 매화를 각별히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도 알수 없었다. 아마도 매화야말로 세상 그 어떤 티끌에도 때묻지 않은 고결한 지조와 마음의 순결을 상징하는 꽃이라고 그네들이 《사군자 - (목화에서 매화, 란, 국화, 대)》라 하여 제일 첫자리에 놓고 것처럼 숭상하던 그 향취가 어느새 자기 몸에도 스며버린탓인가?

그는 매화예다 자기 마음의 거울을 비쳐보는것이 이제는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심신이 맑아지고 모든 일신상의 잡념들이 말끔히 가셔지는것 같았다.

청명경이나 그렇게 대견한 눈매로 소담한 꽃송이들을 지켜보고 섰던 그는 천천히 방안으로 들어왔다.

문득 탁자우의 불개미주가 눈에 띄었다. 며칠전에 송시라가 본국에서 새로 들어온것이라며 신경통에 쓰라고 세견선관리를 통해 가져온것이다.

송시라는 부산포 왜관의 무역상인데 새견선관리의 소개로 정발이도 몇번 만나보았다. 흔히 왜인들이란 사특하고 간활한것이 천성적이나 송시라만은 그렇지 않은것 같았다. 그만하면 레절과 신의를 지킬줄 아는 사람이였다.

그는 홑잔에다 술을 한잔 가득 따랐다. 잔에 남실 남실 차넘치는 액체는 얼핏 보아 발가우리한것 같기도 하고 노르끼레한것도 같은 대증할수 없는 빛같이다. 냄새든 여느 소주냄새처럼 향기로운것이 아니라 약간 역한 류황내같은것이 섞인 이상야릇한 냄새였다. 남방산불개미를 산채로 진한 소주에 담가 묵여둔것이라는데 한모금씩만 마셔도 대변에 취기가 돌며 전신이 나른해지고 취끝에는 의례 시큰거리던 무릎관절이 씻은듯 나아지군했다.

그는 눈을 딱 감고 단숨에 잔을 비웠다. 목안이 뜨끔하고 코구멍으로 구렁이가 기여나오는것 같았다. 위속이 쓰르르해지며 약기운이 몸에 퍼지는듯 금시 사지가 노곤해졌다. 그러기를 퍼그나 지나서야 차차 정신이 맑아지며 심신도 본래대로 되었다. 남방산불개미주가 체내에 들어가 무슨 조화를 피우는지 몰라도 사람의 정신을 금시에 어리쳤다 맑게했다 하는 그 신기한 효력에 정발은 매양 흥미한 쾌감뒤에 오는 야릇한 흥분을 동시에 느끼군했다.

(하여간...) 그는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왜인들이란 다소 경박한데는 있어도 재주만은 신통하단말이야. 그 참...)

그는 송시라의 자기에 대한 《성의》가 기록해서 저절로 마음이 흐뭇해졌다. 첨절제사명색으로 왜의 물건을 함부로 받아먹는데 대한 계름한 감도 없지 않았으나 그는 애써 그네들의 호의를 무턱대고 다 물리칠 근거는 없다고 보았다. 그역시 오늘의 《태평시절》을 유지하는 한고리로 될테니까...

그는 서둘러 조반을 재촉해 먹고 대청으로 나왔다. 오늘 진을 한바퀴 돌아보고 사냥터에도 나가볼 예정이였다.

그런데 벌써 와 등대해있으려니 했던 명목이가 보이지 않는다. 어제저녁에 그만큼 오늘아침 일찌기 말을 손질해두라고 일렸는데 어데가 장난에 미쳤는지 여적 나타나지 않고있다.

벽상에 무료로 걸려있는 살통과 각궁을 보자 문득 지난번 사냥때 다 잡았던 사슴을 놓친 일이 아쉽게 떠올랐다. 아차 실수로 그만 정통을 못맞춰 원컨 볼기짝에 살을 꽂은채 그냥 내뺐으니 어디 멀리 는 못갔을것이다. 이번 사냥에서는 그때 못이룬 아쉬운 마음을 꼭 봉창하리라 그는 단단히 버르고있는 참이었다.

무료하게 흘러가는 군무의 여가를 통쾌한 사냥으로 바꾸는것도 하나의 취미이며 쾌락이다. 평상시 무관이 해야 할, 적을 막거나 성곽을 수리하는 따위의 소임마저 없을진대 산야를 주름잡으며 사냥을 베탄아 용맹을 키우고 무술을 연마하는 이외에 무엇으로 가슴속에 끓는 피를 달래일것인가. 임신(1392) 년개국이래 오늘에 이르는 근 200 년동안 나라안팎에서는 소소한 내란들은 더러 있었어도 종묘의 사직을 위태롭게 하는것과 같은 큰 사변들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태평성대》는 한 진의 수비를 맡은 그에게서 소임들을 죄아아가버렸다. 아니, 앓아갔다가 보다 잊어버리게 했다.

지금도 그는 부풀어오르는 흥분을 누착히며 성급히 대청우를 거닐었다. 방금 마신 불개미주기에 약간 흥분이 돌기도 했다. 마구간쪽에 줄곧 눈길을 주고있던 그는 끝내 더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애 명록아! 뭘 꾸물거리느냐?》

그러자 마구간이 아니라 반대컨 뒤결에서 다급한 대답소리가 들려왔다.

《네네, 지금 나갑니다-》

정발의 거듭되는 재촉을 받고서야 견마잡이는 말 쪽병거지를 급히 눌러쓰며 뛰어나왔다. 그의 손에는 한웅큼 되나마나한 풀잎사귀가 쥐여져있었다.

《건 무슨 지저귀냐?》

능지에서 말렸는지 상기 청초한 빛같이 그대로 남아있는 잎사귀를 내려다보며 정발이 물었다.

《영생이(박하풀)와요.》

《영 생 이 ? ...》

《예, 상범이가 멀미를 한다기에...》

명록이는 그것은 소중히 피춤에 간직하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상범이라니? 그 선창에서 세견선을 타는 애말이냐?》

《예.》

이어 정발은 《어느새 행선날자가 되었나?》하다가 《오, 그렇지.》라고 두어번 턱방아를 찝었다. 오늘이 초닷새면 날자가 립박한것 같기도하다.

그는 천력(무관들이 입는 공복의 하나) 자락을 활 갈라붙이고 탐스러운 갈기를 드리우고 공순히 서있는 가라말우에 넉넉 올라앉았다.

선창은 몹시 붐비었다.

세견선이 떠나는 이마적이면 일감이 쌓여 자연복새를 이루군했다.

간밤에 새바람이 일더니 선창가 모래불에 뒤떨기 매화나무가 꽃샘에 휘달려 영성한 꽃잎들을 점점이 흩어놓았다.

눈속에서도 그 절개를 뿔낸다는 매화이고보면 3월이니 한물 지게도 되었지만 꽃샘의 심술궂은 장난만 아니였어도 그렇게 어설프게 되지는 않았을것이다. 꽃잎을 흩어버린 새바람이 알곶었다.

보라빛안개가 걷히자 수평선우에 눈부신 해살이 쏟아져내렸다. 세미를 나르는 선부들의 얼굴은 온통 땀에 떠서 번들거렸다.

《첨사나리 행차해계시오니까?》

일군들을 감독하던 세관관리가 정말에게 머리를 숙였다.

《오, 수풀 하는군. 진을 좀 돌아보려구... 헌데 벌써 수세미를 실어보낼 기일이 되었나?》

선창안은 삽시에 쌀섬들로 그득해졌다.

《웬걸요, 상기 기한은 있는데 대마도주가 교역할 물건이 변질이 간다고 독촉을 보내왔기에...》

정발의 물음에 관리는 이렇게 대꾸했다.

《무슨 물건인데 변질이 가노?》

《아 뭘 과일이나 약재 아니면 물선같은 그러루한 것들이겠지요.》

《아무튼 세월이 빠르군. 벌써 과일이 나다니,》

《왜땅이야 우리보다 기후가 온화하지 않소이까.》

《해서인지 우리 땅의 절기두 빠른것 같단말일세. 저절보게. 어느새 매화가 한물 지지 않았나,》

《그야 《태평성대》이니 세월이 빨리 갈박에요.》

《허허... 《태평성대》라. 그렇지, 나라의 병화가 없어진지도 자그만치 200여년이 되지 않나.》

정발은 감개무량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저만치 아래서 명록이가 쌀섬을 메나르던 상범이와 마주서서 뭐라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저기에만 정신이 움해 이쪽 일은 감감 잊은가싶다. 그러다가 문득 상전이 자기를 기다리고있다는것을 깨달았던지 꺾쩍 놀라 돌아섰다.

《애, 그 영생이 마르지 않게 잘 간수했다 씹어라. 멀미에는 그 이상 없다드라.》

명록이는 뛰여오면서 제 동무에게 하는 이 당부를 잊지 않았다.

늘어진 배따라기소리가 점점 멀어져갔다. 잠풍한 물안개가 낀 바다는 그 어떤 중압에 눌리운듯 하냥 불안스레 설레었다.

했으나 정발의 기본은 저으기 흥떴다. 임금의 후덕이 사해에 널리 미치어 왜국과의 교류가 변함없이 이어지고 오래동안 나라의 사변이 없으니 삼라만상은 태평한 시절의 봄을 한껏 즐기고있다.

진영에 일이 없어 몸도 한가했다. 그래서인지 이마적에는 곧잘 도지군하던 신경통도 가다든것 같았다. 아마 송시라가 보내준 외국제 약술이 효력을 내는 모양이었다.

그는 그윽한 눈길로 자기의 고질병을 씻어 내주는 희귀한 약재도 함께 날라오는 세견선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얼마후 그는 말머리를 돌리었다.

선창을 벗어나자 바다기슭을 따라 산력을 의지하고 휘우듬히 뻗어간 성벽이 나타났다. 군데군데 퇴락은 했어도 성돌들에는 푸른 이끼가 오랜 력사의 자취를 말해주는듯 두텁게 덮여있었다.

말은 방금 진의 어느 한 포루앞을 지나가고있었다. 처절썩! 파도가 기슭을 쳤다. 어데선가 물썬 매화꽃향기가 해풍에 실려왔다.

《저... 나리님!》

문득 영록이가 고개를 쳐들고 그를 불렀다.

대가리를 휘저으며 호기있게 걸음을 옮기던 말이 두귀를 쫓긍했다.

《왜 일본놈들에게 우리 쌀을 실어가나요?》

정발은 잠깐 눈길을 들어 그의 땅아 늘인 귀밑머리를 그윽히 내려다보았다. 서늘로운 눈매와 후더운 인품이 실린 그의 두툼한 입술에 어느덧 너그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글쎄...》

주립(무관들이 쓰는 붉은 대갓) 쓴 머리가 한옆으로 약간 삐뚤서해졌다. 어떻게 그 리치를 단마디로 알기 쉽게 납득시킬까 얼른 생각이 안떠올라서였다. 그러다가 불쑥 동문서답식으로 《너 지금 이향기를 말느냐?》 하고 밀도골도없이 물었다.

《예 ?》

명록이는 무슨 소린가하여 멍하니 서있었다.

《무슨 향기인덱쇼 ?》

《매화꽃향기이겠지.》

《예-》

그제야 명록이는 대답을 길게 늘이며 발걸음을 떼었다.

《그가... 오래지않아 매실이 달릴 때인덱쇼.》

《흐흐... 알긴 아는구나. 바로 그 매실이 잘 달리도록 하기위해서다. 그렇지 않으면 왜구들이 자꾸 변방을 소란시키거던. 너 아직 어려서 저 을묘년사변(1555년 70여척의 왜구해적선들이 전라남도 해안일대에 침입했던 사건)이나 <삼포왜란>(1510년 삼포에 있는 왜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던사건) 같은 란리들을 못겪어보아 뭐가 된지 모를게다. 그때 술한 왜구떼서리들이 우리 땅에 기여들어 산천을

불태우구 살인과 략탈을 꺼리낌없이 자행했다. 어찌 매화나무인들 온전히 붙어났겠느냐? 말하자면 그러루한 사변들이 또 발생할가봐 미리 예방을 하는거지. 그렇게 어루만져야 그네들이 제집에 가만 불배겨있을게 아니냐. 또 대마도는 예로부터 땅이 척박해서 우리가 곡식을 보내주어야 먹고 살아갈수 있었다. 그건 지금두 마찬가지거던.》

《그러다가 왜놈들이 우릴 속보고 달려들는지 알아요?》

《안그럴거다. 그건 우리에게 약속된 물건들을 꼭꼭 실어보내는걸 보아서도 알수 있다. 벼룩이도 낫짜이 있다고 아무려면 저들이 우리의 신의야 배반할라고? 또 배반을 하면 대수냐? 저 삼포, 을사변때처럼 혼뜨김을 내주면 그만인데...》

《상범이가 그러는데 놈들이 우리가 가져간 쌀을 한알두 먹지 앓구 쌓아두기만 한대요.》

《그야 혹시 풍랑에 배길이 막히나해두 미리 여유를 두느라 그러는거겠지. 전에두 그런 일이 가끔 있었으니까...》

매사를 너그럽게 생각할줄 알아야 하느니라. 또 보내준 담에야 쌓아두든 홀어두든 우리가 상관할바 뭐냐. 그저 그네들에게 우리의 신의만 잘 보이면 그만이다. 자신이 량심껏 살려 하면서 뭇때문에 누가 그것을 해치지 앓을가 겁내겠느냐.》

정발은 본의아니게 말이 길어졌으나 가슴은 후련했다. 나어린 영록이가 그것을 알아듣건말건 그까짓건 개의치 앓고서라도 그는 그쫘한 설명만으로써도 자신을 어지간히 위안하는데 만족을 느끼었다. 어쨌든 《태평성대》는 그것으로 담보되는것이니 까.

그런데 그의 흥친 기분은 성곽개축공사장이 가까와오자 불현듯 물먹은 담벽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 3

작년 신묘(1591)년 3월에 일본에 갔던 통신사들이 돌아온후 한동안 나라안팎이 뒤숭숭했다.

한것은 그중 한사람은 도요도미히데요시(풍신수길 - 당시 관백)의 눈알에 살기가 뻗쳐 반짝거리는 것이 아무래도 심상치 앓은 야심을 품은것 같더라고 말하고 다른 한사람은 그렇지 앓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모든것으로 미루어보아 전자의 견해가 백번 정당한것이였지마는 당시로서는 오히려 못사람들의 비난을 면치 못했다. 이 《태평성대》에 무슨 당치 앓은 수작이냐는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저 소위 200년태평성대바람에 왕으로부터 그 아래 대감네들은 물론 군무를 직접 집행하는 무관들에 이르기까지 성미가 하 누그러져서 밀구멍에다 대고 화포나 터



뜨리면 아사 어쩔는지 몰라도 그쯤한 말에는 뒤도  
움쩍 안했다 하면서도 혹시? 하는 미타한 생각도  
바이 없지 않았는데 그럴 때면 그들은 괜히 맥도  
모르고 침통을 빼는것과 같이 처신을 잘못하다가  
《태평성대》의 《민심》을 그르치면 어찌나 하는  
위구심에 인차 아닌보살로 하루하루를 위안하며 지  
냈다. 허나 그 위안의 방패도 오래는 못갔다. 만약  
을 생각해서 얼마간의 방비책은 있어야 한다는 조  
정내외의 강력한 여론에 부딪혔던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이 민심과 여론을 무마하지 않고서는 《태  
평성대》의 영화도 참으로 즐겁게 누릴수 없으리라  
는 론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벌려놓은것이 지금의 이 남방성새들에 대  
한 개축공사놀음이다.

《태평성대》바람에 누그러질대로 누그러진 량반  
님네들의 성미가 부산침사 정발이라고 레외일수 없  
었다.

더우기 부산진으로 말하면 나라의 중요한 관문으  
로서 가장 중시해야 할 진보의 하나이다.

허나 요즈음 그는 날마다 한가하여 군무는 다 켜  
버리고 매화분이나 가꾸고 사냥이나 하는것으로 세  
월을 보냈다. 얼마전에는 십여척의 병선들을 다 개  
조하여 고기배로 만들었다. 다만 그중 두세척만을  
따로 남겨두어 해안을 순시케 했는데 그나마도 명  
색뿐으로 언제 한번 기동을 안시키다보니 배밑창이  
다 삭아 구멍이 뚫릴 형편이었다.

이러니 비록 형식상이기는 하였지만 나라에서 벌  
리는 진보수공사를 그가 달가와할리 없었다. 지금  
도 그는 마지못해 진을 돌아보러 나와서 보수공사  
장전경이 눈앞에 펼쳐지자 자연 못마땅하여 얼굴이  
찌프러졌다. 가슴속에 고이 간직되었던 성벽의 옛  
모습이 어수선한 혼잡에 휘말려 허공 들리우는것만  
같은 기분에서였다. 공연히 백성들을 농사철에 때  
내다가 들볶는다는 한탄이 더욱 마음의 안정을 흔  
들어놓았다. 해서인지 그들의 일손도 별로 흥심이  
없어보이고 마지못해 하는양이 험등하게 내비쳤다.

《그래 공사가 잘 진척되느냐?》

그는 일을 감독하는 진무(진에 소속된 부대내의  
하급책임자)에게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예.》

진무는 두손을 배허벅에 모아붙이고 황송하여 허  
리를 굽혔다.

《워낙 모두를 내키지 않아하는 일이라 잔뜩 소힘  
줄처럼 늘어지지만 하지 제대루 들어볼질 않소이다.  
더우기 해자과는 일만은...》

《음, 들어볼질 않는다? 그럴테지...》

정발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수궁  
했다.

《아무튼 자네가 욕을 보네. 하지만 너무 심되는  
쓰지 말라구. 정말로 천리 바다로도 못막을 재변이

라면 그까짓 한날 실오리같은 해자로이겠나. 또 설  
사 왜적이 덤벼들면 날아서 넘어올텐가? 공연한 로  
파심들이라니.》

그는 자기의 《선견지명》에 제스스로 만족하여  
빨리 공사를 일추 마무리하고 백성들을 농토로 돌  
려보내야 한다고 진무를 타일렸다.

흰 구슬이 부서지는 바다가녁에 비죽이 솟은 바  
위코숭이에서 호군이떼들이 오구작작 떠들며 놀았  
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보라매 한마리가 쏜살  
같이 내려쫓지며 무리에서 떨어진 어린 새끼 하나  
를 날카로운 발톱안에 움켜쥐었다. 다른 무리들이  
놀라 애처롭게 울부짖었으나 그놈은 아랑곳않고 사  
나온 부리로 새끼의 눈알을 후벼내었다.

《후여! 저런 고약한놈의 짐생...》

정발은 힘껏 팔을 내저어 매를 쫓아버렸다.

《그놈이 산에서 먹이를 못구하면 가끔 바다가녁  
에두 내려와 연약한 새들을 해치군하지요.》

진무가 민망스러운 어조로 중얼거렸다.

《하여간 저놈의 짐생은 사나운 제부릴 믿구 하느  
이구 바다이구 아무데서나 마구 날친단말이야.악독  
현...》

정발은 괜히 울기가 올라 주린 배를 채우고 유유  
히 사라지는 매를 험한 눈찌로 흘겨보았다.

이때 매가 사라진 숲 변두리에서 웬 방갓쓴 사람  
이 그물망태를 둘러메고 스택스적 걸어나왔다.

순간 정발의 얼굴에서는 방금전의 울기가 대번에  
가서지였다.

《침사어른 안녕하시오?》

그 사람은 가까이 오자 제 먼저 정발에게 깃듯이  
인사를 했다.

《음, 송상인가? 참 오래간만일세.》

《예, 본국에 일이 있어 건너갔다가 엇그제야 돌  
아온걸요.》

《그래 ...》

송시라는 방갓을 훌쩍 뒤로 밀어제겼다. 메뚜기  
이마같은 상투 달린 삐죽한 말상이 온통 드러났다.

그의 본명은 요시라인데 왜관에 적을 두고 약을  
구해준다는 핑계로 정발이와 면목을 익혔다. 제이  
름에서 《요》자대신 《송》자를 써서 자기를 마치  
대마도출신 조선사람의 후손인듯이 가장하고 다니  
는자였다.

《그래 몸은 좀 어떠시오?》

정발을 향해 묻는 그의 어조는 정말로 혈육간의  
다심한 정이 습배인듯 자못 은근스러웠다.

《음, 이젠 퍽 나았네.》

《예- 그래요? 제가 보낸 약술은 잡수어보셨소이  
까?》

《오, 거 뭐...》정발은 왜인앞에서 자존심이 꺾일  
가보아 잠시 머뭇거렸다.

벌써 그 속내를 재빨리 간파한 송시라가 아살곳  
게 웃었다.

《이번에 내 또 좀 건네왔는데 쉬 보내드리리  
다.》

《웬걸... 괜찮네.》

《하, 한이웃끼린데요.》

송시라는 썰쭉한 두눈을 가늘게 쪼프리었다. 약  
간 비양이 담긴 알뜰한 입술과 그 눈은 실상 웃고  
있는것이 아니라 싸늘한 랭기에 떠있었다. 재빨리  
공사장을 일별하는 그 눈빛에서 날카로운 불꽃이  
반짝하고 튀겨났다.

《귀국정부에서는...》

그는 여전히 싸늘한 표정을 바꾸지 않은채 빈정  
거리는 투로 물었다.

《아마도 우리가 못미더운게죠?》

《응 ? ...》

정발은 의아한 표정으로 반문했다.

《그렇게 시치미 떼지 마시오. 정말 섭섭하  
다.》

송시라의 어조는 의연히 야릇한 비양에 젖어있었  
다.

《난 바다건너에는 우리 땅밖에 없는걸루 아는데  
요?》

《그야... 그런데는 ?》

《하다면 톱 더놓고말이지 저런 놀음이 무엇때문  
에 필요하겠소이까 ?》

공사장을 톱짓하는 송시라의 입가에 한가닥 적의  
에 찬 랭소가 찰랑거렸다.

그제야 정발은 그 말뜻이 이해되어 빙그레 웃음  
을 띄웠다.

《왜, 우리가 자네의 장사길을 막을가봐 겁이 나  
나? 그건 입자네들이 못미더워서가 아니라 성첩이  
났았기에 보수를 하느라고 그러는거네. 예로부터  
성새는 그 나라 지경과 같다고 하지 않았는가. 누구  
를 믿고 안민고가 여기에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가  
입자네들을 정말로 기일것 같으면 저렇게 매번 어  
김없이 제 날자에 세견선을 띄우겠나?》

정발은 한낱 왜곡장사군명색인 무역상앞에서 자  
기 변명을 하는것 같아 제판에도 슬그머니 면피스  
러웠다. 허나 상대방이 그것을 눈치챌가보아 얼른  
태연한 낫색으로 돌아왔다.

《아무튼... 우리 일본을 믿어두 되오. 난 장사를  
말은 왜관의 공식성원으로로서 진심으로 하는 말이요.  
지난날 산만한 무리들의 되지못한 비적행위를 우리  
일본의 전체 의사와 혼돈해서는 안되지요. 조선과  
우호적인 선린을 바라는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  
는 우리의 주지요. 공연히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런  
놀음은 부질없는것이외다.》 송시라는 그렇지 않느  
냐는듯 정발을 뵈히 쳐다보았다.

정발의 입가에는 여전히 느슨한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자네 왜 우리 사람들이 것처럼 매화를 애지중지  
하는지 아나?》

그는 송시라의 간사한 눈길을 일별하며 계속했다.

《언제나 매화처럼 깨끗하게 살기를 바라서야. 우  
리는 자고로 자기의 그들로 남의 양지를 덮는것을  
한적도 없거니와 그걸 천하의 제일 무도한 행위로  
타매하고 있다네. 우리의 신의가 그쭙하다는걸 알  
구 장사나 착실히 히라구.》

정발은 점잖게 타이르고 나서 저으기 흡족하여  
수염을 쓰다듬었다.

×

《나리님은 왜놈들이 종사하요?》

돌아오는 길에 명록이가 불쑥 통명스럽게 내뻐었  
다.

평퍼짐한 둔덕 연대가 있는쪽에 눈길을 주고있던  
정발은 그의 당돌한 질문에 한참이나 뻘히 내려다  
보다가 비로소 그 뜻을 짐작하고 혼연히 대꾸했다.

《왜놈들이라구 다 나쁜건 아니지?》

하자 명록이의 입에서는 덜통스럽게 《체!》 하  
는 버릇없는 말투가 튀어나왔다. 했으나 정발은 탓  
안하고 너그럽게 웃었다.

《왜 무엇이 못마땅해 그러느냐?》

《제가 일전에두 보니까 이자 그놈이 바다기슭에  
나앉아 무슨 그림을 그리땀어요. 그러다 내가가니  
슬그머니 일어나 섬을 좇는척하는데 맘만해두 수상  
쩍거든요.》

《...》

《그리구 상범이가 그러는데 왜선이 올때마다 배  
에 올라 무슨 수작질을 한대요.》

《그 야 장사일을 의논하느라 그러겠지.》

《흥, 장사를 하는놈이 왜 매일처럼 제놈들의 울  
타리뻘을 기여나와 산으로, 바다로 짜다닌대요? 오  
늘일도 그렇지. 제 입으로 약초를 캐러 다닌다고 하  
지만 알게 뭐예요? 무슨 눈금을 새긴 권척을 들고  
들물날물때를 가려가며 바다밑을 재는것두 상범이  
가 여러번 봤다던데요.》

《뭐나 의심을 가지고 보면 사람들의 별치않은 행  
동도 다 수상쩍게 보이는 법이다, 우리와 친하자구  
제 나라 성까지 바꾼 사람을 무턱대구 그만한 일로  
의심할수야 없지 않느냐.》

명록이는 아무래도 리해가 안된다는듯 고개를 가  
로 흔들었다.

어느새 연대가까지 이르렀다. 정발은 말을 그리  
로 곧추 물게. 했다,

지금 어설픈게 꾸린 초막안에서 두 봉수군이 병  
거지를 되대로 벗어붙이고 이마를 맞대고 앉아  
한창 고누를 두고있었다. 둘 다 승벽이 뻗쳐 뒤에

누가 와 섰는지도 몰랐다. 《날래 두어야 수지 이놈아! 종일 와세 샘구멍들여다보듯 앉아 보구만있겠니?》

그중 나배기가 목에 지렁이같은 피대를 돌구며 소래기를 질렀다.

《제미…급하기는 콩밭에 가 서슬치겠수다. 이불깃을 봐야 발을 펼거 아니우다?》

엷음뱅이 젊은 봉수군이 낮이 수수떡빛이 되어 마주 응수했다. 《어랍쇼! 과부 주머니끈 바꾸어차구두 할말은 있다고 제법… 아 얼른 이 빈구멍에 먹을 붙이지 못하느냐. 이놈아!》

《아따, 그러면 내 말이 살짔에 끼워 움작할수 없게 되지 않소? 입살은 사복 개천처럼 질짝해가지구 늑자 아니면 못쓰우? 이 자식이라구 한번 찾으면 큰일나는가베 . 우라질…》

《우라질 이구 가드라질이구…》

그대로 화석이 되어버렸다. 문앞에 와선 상관을 알아보았던것이다.

《허허. 승벽이 여간 아니로고나,》

둘은 황황히 자리를 차고 일어나 분주히 창대를 찾아들고 일변 벗어붙였던 병거지를 눌러쓰는등마는등 허둥대다가 겨우 엉겨주춤 서있었다.

꼬기꼬기 구겨진 더그레자락은 때국이 피죄죄 하니 흐르고 뒤통수에 가불은 병거우에는 날검불과 몽당이 지지게 발려있었다. 낮잠을 자지 않으면 고누를 두는것으로 하루번을 굴때는 그들인지라 주제가 말이 아니고 몰골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지만 정발의 눈에는 그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장난을 하다 들키운 철없는 아이들을 훈계하듯 그의 표정은 어디까지나 너그럽고 대범했다.

《시절이 편안해서 . 너희들 소임이 없어지니 좀 좋으냐? 하다가 너무 한만하게 해이하지는 말아라. 역시번을 두는것도 군률이니까 평화시절이라고 군률을 무시할수야 없지. 어디까지나 번은 번대로 착실히 서야 한다.》

《알겠소이다.》

정발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쯤한 타이름으로써도 《태평성대》의 질서를 유지하기에는 족하다고 그는 생각했던것이다.

## 4

《첨절제사님께 아뢰오!》

문득 엇그제 봉수군들이 주뭇거리며 들어와 읍하 고셨다. .

그때 정발은 시방침을 의지하고 란간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래일 사냥에서 어떻게 하면 통쾌한 재미를 볼것인가 줄곧 궁리하며 눈어림으로 한창 살진 암사슴의 뒤를 쫓고있었다. 그런데 봉수군이 들어

와 그 명상을 깨쳐버리는 바람에 마뜩지 않은 표정으로 내려다보았다.

《저… 한가지 아릴 말씀이 있소이다》

그중 나이지긋한자가 잠안에 쉬고있던 손바닥을 펴보이며 조심히 입을 열었다.

《얼마전부터 바다기슭에 이런 물건잡들이 무수히 밀려들고있소이다.》

《그게 대체 무엇이나?》

《예, 짐작컨대 자귀밥, 대패밥인줄로 아뢰오.》

그제야 정발은 한발 내려서서 그것을 정침히 들여다보았다. 참말로 자귀밥, 대패밥 같은 나무기저귀들이 틀림없었다.

《헌데 이것이 어째다는거냐?》

《예. 전에도 더러 떠밀려오는것을 무심히 스쳐버렸사온대 그때 첨절제사 사또님의 번을 잘 들라는 훈계를 듣고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희들의 좁은 소견에두 혹시 바다건너 왜적들이 우리 나라를 탐내어 병선같은것을 구조하는것이나 아닌지 해서…》

나배기는 조심히 눈치를 살피며 말을 얼버무리였다.

그러자 정발은 대뜸

《뭇 병선? … 하하하.》 하고 한바탕 고개를 젓히고 호기있게 웃었다. 정말로 어이없어하는 기색이 그 웃음속에 비껴있었다.

그는 그들의 천진한 생각을 너그럽게 어루만지며 정색하여 한마디 했다.

《너희들의 생각이 과시 기특하다. 암, 그래야지. 뭐나 경각심을 가지고 대하는건 군사의 기질이요. 마땅히 찬양할 일이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억측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물건들이 꼭 왜땅에서 흘러들어온것이라고 믿을 근거는 뭐고 또 실사 거기서 왔다고 왜 하필 병선이겠느냐. 조공배를 못노라고 그럴수도 있지 않느냐?》

《흘러온 굵이 왜놈들이 사는 동쪽이기에…》

《한치 앞일도 미처 헤아릴수 없다거든 하물며 천리 바다를 격한 먼 일이겠느냐. 바다에 떠다니는 물건은 그런것만이 아니다. 너무 생각을 외곶으로 깊이 하면 오히려 병이 되느니라.》

《알겠소이다.》

봉수군들이 물러가자 정발은 땅에 떨어진 나무기저귀를 이윽도록 들여다보았다. 오래동안 물위에 떠다니랏에 텅텅 붓긴 했어도 아직 생생한 송진내가 그대로 풍기는것 같았다.

갑자기 불개미주를 마셨을 때처럼 무언가 흥미한 불안이 머리를 쳐들었다. 정말로 그들의 말대로 병선을 못느라 따낸 기저귀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느낌에서였다.

허나 그는 인차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무슨 당췌은…)

그는 그 물건이 마치 오늘의 《태평성대》를 허무는 무슨 요물이거나 하듯 멀찍이 담장밖으로 집어던졌다. 그러는데 대문밖에서

《이놈아, 어서 들어가자!》 하는 욕지거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명록이와 상범이가 뒤결박지운 송시라를 앞세우고 들어왔다. 입에다 수건을 틀어막아 자갈을 물리고 새끼오리로 꾹꾹 묶이운놈의 입술과 눈두덩은 퍼렇게 멍이 져있었다.

정발은 깜짝 놀라 두눈을 홑떴다.

《이 무슨짓들이냐?》

그의 입에서는 대뜸 추상같은 호령이 터져나왔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은 태연히 걸어와서 《침사나오리! 이놈은 왜적의 간첩입니다.》 하고 동시에 부르짖었다. 몽둥이를 둘러멘 그들의 기상은 험악하기 그지없었다. 금시 송시라를 집어삼킬듯 노려보는 눈길마다에 이글이글 화불이 탔다.

《이놈아! 이젠 네 입으로 다 실토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뼈다귀를 분질러 놓구말테다.》

명록이가 이러며 입에서 자갈을 뿜아내자 송시라는 표독스럽게 이발을 악물었다.

《침사어른! 이놈들은 거짓말을 하구있소. 생트집을 걸구있단말이요,》

《뭣이 어째? 이 쪽발이놈아! 아까 배우에 올라가 무엇을 넘겨줬니? 네놈이 매일같이, 산으로 바다기슭으로 싸다니는 목적을 우리가 모르는줄 아느냐?》

이번에는 상범이가 주먹을 부르쥐고 대들었다.

《그만하지 못할가! 이 무슨 되지못한 행패인가?》

정발이 거둬 엄하게 나무리며 발을 탕 굴렀다.

《황송하오이다. 아 저놈이 글썄...》

상범이는 그냥 성이 가라앉지 않아 씨근덕거리었다. 그리고는 명록이를 돌아보며 성급히 말했다.

《애 네가 좀 말쑤올려라》

《뭐 주저할게 있니? 본 사실 그대로 여쭙려무나.》

명록의 고무에 한층 용기를 얻은 상범이는 생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나서 《예, 제가 오늘아침 선창에 나가 바닥을 소재하고있는데 아 글썄 저놈이...》 하고 자기가 목격하게 된 사실을 떠들거리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상범이가 한창 선창에 물을 끼얹고있노라니 어제 정박한 왜선우에 송시라가 올라오는것이 보였다. 놈은 선주놈과 마주서서 뭐라 한참 쑥떡질을 하다가 무슨 종이말이같은것을 슬그머니 넘겨주는것이였다.

(저놈들이 대체 무슨 꿍꿍이를 하누?)

상범이는 피땀 질이는데가 있어서 놈들의 행동을 눈여겨 살폈다. 전에도 놈이 그런 눈치를 보였고 또

몰래 우리 땅과 바다깊이를 재고 무슨 도면을 뜨는것을 여러번 목격한터라 불같은 의심이 부쩍 동했다. 종이말이의 빛깔이며 형태가 그때 보던것과 꼭 같았다. 기어이 내막을 까보아야 직성이 풀릴것만 같은 충동이 호기심과 함께 강하게 머리를 쳐들었다. 그러나 갑자기 수가 떠오르지 않아 잠시 망설이고있었다.

이러는데 마침 명록이가 이리로 다가오는것이 보였다. 정발의 분부로 절영도에 건너갈 통궁이를 내매려고 나오는길이었다.

상범이는 마침 잘됐다 하고 얼른 그에게 다가가 놈의 수상한 행동을 가만히 귀띔해주었다. 그들은 눈짓으로 약속하고 놈이 배에서 내려오는 길목을 지키고있다가 다짜고짜로 앞을 가로막으며 이 자배우에서 무엇을 넘겨주었느냐고 따졌다.

그랬더니 놈은 대뜸 성이 독같이 올라 《아무것을 넘겨줬으면 너희놈들이 무슨 상관이나.》 고 제편에서 오히려 팔을 걷고 대들었다. 그야말로 도적이 먼저 매를 드는격이었다.

평소부터 하찮은 왜놈장사군놈이 남의 나라에 기여들어와 제멋대로 활개짓하는 꼴을 아니꼽게 여겨오던 그들인지라 뺨이 울퉁 치밀었다. 그래 제잡담놈을 꼭두잡이하여 끌고 으스스한곳으로 들어가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실컷 두들겨패주었다. 그들의 매소에는 불개미주와 같은 달콤한 약주로 한진의 주인을 통락하고 그의 환심을 낚아 더욱 오만해진 놈에 대한 분노와 놈의 독주에 내장이 끓는줄도 모르고 괜히 흥떠서 분수없이 놀아나는 자기 상전에 대한 원망도 함께 어려있었다. 그래서 매손이 더 매웠다.

한바탕 직성을 풀고난 그들은 사람죽인다고 엄부력을 떠는 놈을 아가잡이해서 끌고 곧바로 이리로 오는길이었다...

《아니요! 아니요!》

상범의 말이 끝나자 송시라놈은 대번에 펄펄뛰며 부르짖었다.

《저놈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요. 난 아무것도 넘겨준것이 없소!》

《아가릴 닥쳐라! 이놈아! 네놈이 우리 땅과 바다깊이를 쟈 지도를 넘겨 주구두 그래 시치미 뻔 작정이냐? 오늘은 어렵겠다.》

영록이가 거둬 눈알을 부라리며 울러메었다.

놈은 그 말에 다소 뒤가 켜기는듯 짙끔하여 눈치를 살피다가 이어 태연하려 애쓰면서 송충이처럼 고개를 외쳤다.

《침사어른! 난 가만안있겠소. 외국인에게 함부로 행패한 이 사실에 대하여 당신네 정부에 정식 제소하겠단말이요. 책임질줄 아오!》

정발의 귀에는 송시라의 이 말이 퇴성벽력처럼 울렸다.

《임신》, 《계해약조》(1443 년과 1512 년에 각각 일본과 체결하였던 조약)후 일껏 회복된 일본과의 국교가 뜻하지 않은 일로 뒤흔겨질가 보아 나라에서는 여간 조심을 하는것이 아니었다.

이 틈을 타서 왜놈들은 더욱 방자하게 날뛰었지만 우에서는 그것을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저 그네들이 예전처럼 해적질만 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여겼던것이다. 반면에 왜놈들과의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일체 행동을 엄격히 견제하였으며 그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불문곡직하고 가차없이 처벌하였다.

사태가 이런판에 일본사람들을 잘못 건드려 불집을 터뜨렸다는 사실이 우에 알려지지만 하면 큰일이다. 하물며 그가 일본 왜관의 한 공식인물임에랴. 만약 뜻하지 않은 일로 무슨 사단이 일어나는 경우 그 죄책을 입어 위리안치(가시울타리속에 갇혀 귀양을 사는것)의 신세를 지거나 목이 달아난다 해도 감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정발은 가슴이 섬찝해졌다. 분수없이 방자한 행동을 하며 끝내 일을 저지르고야만 명목이들이 자못 피씹하기 그지없었다. 어리다고 엄하게 다스리지 않고 어루만지기만 한 후과가 이처럼 엄중한 사태를 빚어냈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못내 후회되었다.

치미는 노기를 목새기노라 한참동안 명목이들을 노려보지만 하던 그는 《어서 그 결박을 풀어놓지 못할가?》하고 사납게 호통쳤다.

순간 명목이의 눈에도 상범이의 눈에도 한가닥 원망의 빛이 비껴갔다. 그들은 입을 꼭 다문채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등대했던 군로 하나가 급히다가가 송시라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모든것은 내 불찰이니 과히 노여워 말게.》

아직 분이 가라앉지 않아 식식거리며 일어서는 송시라에게 정발이 사과하는 투로 말했다.

놈은 새빨간 혀끝으로 알팍한 입술을 몇번 핥고 나서 《난 첨사어른에게 저런 무지한 수하들이 있는게 유감이오이다.》하고 고개를 가로 저었다.

옷자락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며 명목이들을 노며보는 송시라의 눈에는 의연히 살기가 뻗쳐 번뜩이였다.

## 5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 한끝이 희끄무레 해지기도 작했다.

희薄的한 젖빛안개에 잠겼던 섬이 점차 체모습을 드러내며 가까이 다가왔다.

통궁이가 기슭에 닿자 정발은 제먼저 성큼 뛰어내렸다. 명목이도 따로 태워온 너벅선우에서 말을 끌어내었다. 물이에 쓸 징, 바라들을 손에 든 물이

군들이 점심그릇과 사냥제구들을 담은 고리짝들을 날리가지고왔다.

절영도는 아직 어스름한 새벽어둠속에 묻혀있었다. 날뽕기를 기다리며 일행은 잠시 바위서덜에 앉아 차비들을 했다.

못집승들의 하루밤 안식처였던 우중충한 수림은 신비로운 온갖 자연의 비밀을 간직한채 고요히 뒤채기고있었다.

이윽고 동녘하늘이 불그레하게 물들기 시작했다. 굽니는 파도우에 은빛물갈기가 수만갈래로 부서지며 바글바글 끓어올랐다.

초조한 마음으로 그것을 주시하던 정발은 일행을 재촉하여 서둘러 물이에 올러보냈다. 오늘은 기어이 전번에 놓쳐버린 사슴을 잡고야 말리라는 생각으로 가슴을 조이는 그는 벌써부터 흥분에 들떠 마음을 다잡지 못했다.

별안간 잠자던 수림이 발각 뒤집혀졌다. 어느새 산정으로 치달아오른 물이군들이 적당한 간격으로 늘어서서 내리훑으며 징, 바라를 요란스레 두드렸다.

《우-여 ! 우-여 !》

때아닌 소동에 놀란 메새들과 들땡무리들이 애처롭게 비명을 지르며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재빨리 시위를 먹여든 정발은 눈깜박할 사이에 몇마리의 땡을 떨구었다. 이는 사냥군들이 하루채수를 점쳐보기 위해 하는 놀음인데 의의로 소득이 크자 그는 마수절이가 괜찮다고 흡족해했다. 하면서도 그의 눈길은 저아래 수림이 끝나는 평퍼짐한 공지, 후미진 바다기슭과 잇닿아있는 골짜기를 날카롭게 더듬었다. 이제 뒤흔겨진 짐승들이 그리로 물러내려올것이다. 지금 거기에는 물안개가 고즈넉이 떠돌고있었다.

마치 그의 예측을 확인이라도 하듯 머리에 소담한 뿔광주리를 인 사슴 한마리가 놀란 걸음으로 뛰여내려왔다.

순간 그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이마에 흰점이박힌 그놈은 분명 전번에 자기가 놓친 그 사슴이였다. 그렇게 봐서 그런지 아직도 왼쪽 뒤텔다리를 살룩거리는데것이 제대로 쓰질못하는 꼴이다.

정발은 제잡담 사슴을 향하여 말고삐를 했다.

때아닌 불의의 《기습》에 깜짝 놀란 사슴은 한동안 어찌할지 몰라 갈팡질팡 헤매다가 물이군들이 없는 건너편 숲속을 바라고 죽어라 내뛰었다.

《맞은컨 기슭으로 붙어라-》

정발은 목청껏 소리지르며 사슴의 뽕무니를 바싹 다그어쳤다.

그의 고향소리를 듣고 명목이가 몇몇 물이군들과 함께 그리로 치달아올랐다. 그러자 사슴은 하는수없이 바다쪽으로 향작을 바꾸었다. 느슨한 미소가 정발의 입귀를 누비였다. 그것은 그가 바라건대로

다. 뒤에는 물이군, 앞에는 바다가 막혔으니 그놈은 제 스스로 죽을 고비에 뛰여든 셈이었다.

그는 명목이들이 사슴을 바짝 몰아댈동안 뒤에서 평보로 말을 달러오면서 천천히 활을 겨누었다.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이번에야.) 하고 자신만만하게 깍지손을 때던 그의 입에서 별안간 《아차!》 하는 김빠진 소리가 저절로 새나왔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침병 물속에 뛰여든 사슴이 건너편 섬기슭을 바라보고 재빨리 헤엄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정발은 급히 재차 화살을 날렸다. 허나 애매한 물갈기만 튕겼을뿐 살은 물속에 곤두박혔다. 이번에는 달려가면서 쏘았으나 역시 빗맞혔다.

연거퍼 세번씩이나 허탕을 치고 보니 맥이 풀렸다. 이제는 더 쏘아야 살대만 허비했지 소용없는 노릇이다.

그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유유히 멀어져가는 사슴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사포님은 언제 봐야 정통을 못깨는게 탈이란 말입니다.》

어느새 곁에 와 선 명목이가 넉죽넉죽 한마디했다.

《허허 그참...》

정발은 찻찻 입맛을 다셨다. 일껏 튕겨 낸 사슴을 잡기는커녕 아주 놓쳐버린것을 생각하니 실로 맹랑하기 그지없었다. 한편 그놈에게서 놀리움을 받은 것만 같아 슬그머니 부아가 동하기도 했다.

《송시라놈을 놓친것두 그렇지요. 그때 아예 정갱이를 꺾어놓아야 했던건데...》

명목의 거듭되는 지청구는 가뜩이나 귀여진 그의 심사를 아주 더들여놓았다.

《웬 생똥같은 수작이냐?》

그는 괜히 울기가 올라 버럭 증을 내었다.

《그놈이 며칠전에 제놈들의 세전선을 타고 도망질을 쳤다니 하는 말이지요?》

명목이도 수그러들지 않고 당돌하게 맞섰다.

그는 그때 증거까지 잡아쥐고 등시포착했던 송시라놈을 순순히 끌어놓아주고 오히려 자기들을 나라법도도 모르는 무식한놈들이라고 꾸짖던 정발의 처사를 지금도 못마땅히 여기고있다. 더구나 상범의 말을 들어보면 그놈이 행장을 꾸려가지고 슬그머니 종적을 감추었는데 아마 본국으로 건너갔으리라하는 것이다. 노는 행위로 보아 분명 무슨 쏘간이 붙은놈인데 그것을 허술히 여기고 종계만 지내려하니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명목은 정발을 나무랐다. 두번씩이나 사슴을 놓친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여겼다. 왜놈의 동정하나 제대로 꿰뚫어보지 못하는 청맹파니로 두눈이 멀정한 사슴을 어떻게 잡겠는가.

명목은 잘코사니야 하고 고소하게 여겼다.

《도망을 쳤건 태진을 쳤건 누가 너더러 그런 걱정 하라드냐. 되지 못한놈 같으니...》

정발은 정말로 성이 나서 두눈을 부릅떴다. 그도 송시라가 없어진데 은근히 마음이 쓰이던 차라 명목이가 그 말을 해서 가뜩이나 껄름한 생각이 산개구리를 삼킨 때처럼 역하게 금들거려 저절로 분통이 치밀었던것이다. 그가 저번 일로 무슨 사단을

일으키려 가지 않았나 하는 불안과 함께 방금 사슴을 놓친 아쉬움이 한데 겹쳐 가시돌린 심사가 종시 사그라질줄 몰랐다.

이러는데 동쪽으로부터 뎀 아닌 새바람이 곤두서며 난데없는 바다새가 까맣게 하늘을 덮고 날아왔다.

사나운 물갈기가 일어나며 쇄좌 수림이 태질을 쳤다. 어지러이 날아예는 바다새들의 울부짖음소리가 사방에 가득찼다. 숲속에서 뛰여난 새매떼들의 기세가 더욱 기승스러웠다.

《응? 제게 뭐야?》

한 물이군이 아득히 열려진 바다 한끝을 가리키며 눈이 둥그래서 부르짖었다. 온 바다를 짹 메울듯듯 숲이 무시무시한 산병선을 치며 시시각각 밀려들고 있었던것이다.

《무슨 배개가 저리두 많이 밀려올가?》

《글쎄말이야.》

《혹시 왜구 해적선이 아니야?》

《참말 그런가베.》

《뭐? 아니 저런...》

사람들은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댔다.

《좀 작작 떠들지 못하겠느냐?》

정발이 엄하게 나무리었다.

무서운 재변을 예고하듯 하늘빛도 몽몽한 기운에 휩싸여 짙은 불안의 그늘을 드리우고있었다. 마치 그 불안을 털어버리기라도 하듯 정발이 바다쪽에 눈길을 떼지 않고 한마디 했다.

《아마 조공하러 오는 배이겠지.》

허나 그 어조에는 어딘가 확신이 없었다. 둥글게 치켜튼 눈꼬리가 점점 위로 올라가며 턱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돛숲이 점점 가까이 다가드는데 따라 배우에 나뭇기는 기발과 빼곡이 늘어선 기치창검들이 살기를 뽕기며 번뜩이었다. 취각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왜적선이다!》

터질듯 긴장한 침묵을 깨치며 누군가가 큰소리로 웨쳤다.

그제야 펄쩍 정신이 든 정발은 황급히 배있는곳으로 뛰여갔다. 말과 행구들을 되내대로 주어시고 부랴부랴 진을 향하여 노질을 재촉했다. 사슴을 놓친 것과 같은 아까의 분기는 어느새 헤든거리리는 혼백과 함께 어디론가 말끔히 날려가버렸다.

언제 어떻게 진명에 다달았는지 미처 의식하지 못하였다. 정신없이 진중에 뛰여든 그는 급히 비상신호를 울려 군사들을 불러모았다. 군기가 해이될 대로 해이된지라 군령이 날이 설리 없었다. 한창복새를 놓아서야 겨우 몇십명의 군졸들을 모을수 있었다.

어느새 왜적들은 진을 향해 맹렬한 기세로 육박해오면서 조총을 마구 쏘아대기 시작했다. 벼락치듯 날아온 철환이 란간과 기와장들을 무섭게 들부시었다.

정발은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쳤다.

나무기저기를 쥐고 달려왔던 봉수군들이며 송시라를 결박치워 끌고왔던 명록이들이며 놈을 끌러주었다고 청원하던 그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이 이순간 모진 창끝으로 되어 온몸을 사정없이 발기발기 찢어놓았다. 우리가 보내준 쌀을 먹지 않고 쌀아만 든다는 상범이의 말을 명록이가 전했을 때에도 심상히 흘려버리고...

매는 결코 숲에서만 사는 짐승이 아니었다. 더구나 주린 배를 채우는데서는-

지난날의 모든 상서롭지 못한 일들이 죄다 오늘을 위해 꾸며진 놈들의 계획적인 책동이였다는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그는 억이 막히고 가슴이 떨려왔다. 허나 그것은 너무나도 때늦은 후회였다.

그는 나는데 방안으로 뛰어들어 송시라가 가져온 불개미술병을 산산이 박산내버렸다.

사방에서 불길기 치솟고 목숨을 끊는 단말마의 비명소리가 처참하게 터져나왔다. 대번에 진이 무너지며 적들이 불개미떼처럼 까맣게 기여오르고있었다. 것처럼 애지중지 가꾸던 대화본도 사나운 불길에 휩싸여 삽시에 재가루로 되어버렸다.

그는 갑옷도 미처 못입고 남아있는 세척의 병선에 뛰어들었다.

부산진은 나라의 관문이다. 관문을 빼앗기면 국도(서울)가 위태롭게 되고 나아가서 나라의 종묘사직이 무너질수 있다.

일본놈들을 덧뜨려 귀양살이 신세를 질가보아 자기도 애써 참아온 그 모든 관용이 결국 오늘과 같은 무서운 재난을 빚어냈다. 미친 이리새끼를 집안에 기르면서도 자기는 대화처럼 깨끗하게 사노라 자부하고 나라에서는 왜놈들과의 관계를 허뜨릴가보아 조심을 하고...

아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던가! 원쑤앞에서 량심을 바라다니...정발은 이때처럼 자신이 비루하고 저주로운 존재로 여겨지기는 난생처음이였다. 앞에서는 불개미술과 같은 무서운 독주로 우리의 일을 빼고 뒤에서는 야금야금 병력을 키웠다가 마침내 허술한 틈을 노리어 불의에 달려든 놈들의 간악한 배신행위를 무엇으로 설치를 하면 속시원히

다 하라. 솧구치는 분노와 저주로운 회오가 온몸을 사정없이 불태웠다. 뇌우침은 치욕을 낳고 울분을 낳아 오직 죽음으로써 그것을 보상하고야말리라는 자격지심이 정발의 각오를 일시에 틀어잡았다.

그는 세척의 전함을 몰고 적진을 향해 돌입했다. 몇놈의 왜적들이 그의 화살에 꺼꾸러졌다. 그러자 놈들은 좌우로 진을 벌려 맹렬한 조종질로 그를 제압하며 겹겹이 에워싸기 시작했다. 갇쳐낸 탄탄한 생넬로 무어진 수십척의 적선속에서 맴돌아치는 그의 배는 흡사 난바다에 뜬 가랑잎같이 가련하게 보였다. 그래도 정발은 결사전을 멈추지 않았다.

《정발아! 너는 포위되었다.》

별안간 귀익은 음성이 그의 머리우에서 들리었다. 고개를 쳐든 그는 그만 다시한번 기절초풍하듯 놀랐다.

울긋불긋 단청을 먹인 루신(다락배)우에 송시라가 칼을 쥔고 서있었던것이다. 누런 황금투구와 두터운 쇠비늘이 놈의 몸뚱이를 온통 휘감고있었다.

《오, 네가 그런놈이었구나.》

정발의 눈에서는 퍼런 불꽃이 튀었다.

《그렇다. 내다! 그 불개미술이 공판줄 알았느냐? 이 미련한놈아! 으하하하.》

놈은 너털웃음을 치며 지껄여댔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주마.》

순간 온몸의 피줄이 곤두서며 날카롭고 둔중한 수천의 무쇠칼날이 정발의 푸들거리는 살점을 마구 탕쳐놓았다.

《뭇이 어째? 이 교활무쌍한 섬오랑캐놈아!》

피를 토하듯 내뿜는 그의 절규는 격분으로 하여 마디끊기였다.

《내 이제야 똑똑히 깨달았다! 내가 누구의 결박을 풀어주고 어떤 불개미술을 마셔야 하는가를... 예익!》

정발은 전신의 힘을 모아 놈의 대갈통을 겨누고 철퇴를 던졌다.

악에 반친놈들은 미친듯이 조총을 란사하며 사방에서 일제히 달려들어 그의 배를 들이받았다.

화염속에 어디선가 날아온 가냘핀 매화꽃잎이 광풍에 쫓기는 나비처럼 불안스레 맴돌이치며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배넬우에 무참히 흩어져내렸다.

《아, 통분하도다!》

사나운 물갈기가 가라앉은 배우에서 마지막 힘을 모아 부르짖는 정발의 절통한 웨침을 삼켜버렸다.

이무렵, 명록이와 상범이는 힘차게 산으로 오르 고있었다. 그들의 어깨에는 원쑤와 판가리싸움을 벌리기 위한 활과 창이 메워져있었다.

이날은 임진년 4월 13일이였다!

# 한줌의 흙을 주고

-관문점 ○차단에서-

신병강

흙이로구나 흙!-.

40 여년 민족분단사의 장벽을 헤치고  
우리의 지성어린 첫 구호물자를 부리우고  
방금 분계선을 넘어온 자동차여  
나는 너의 바퀴에 묻어 온  
남녘땅 고향의 한줌 흙을 가슴에 안는다

이 흙, 정말-

내 살던 대성동마을의 그 흙이란말인가  
쫓아보자 안아보자 바퀴여  
네 정말 갈라진 혈육을 그리며  
꿈에도 달려가 안아보던 남녘땅  
동포들의 피와 눈물 새겨진  
그 고향길을 다녀왔단말인가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흙을 헤쳐보니  
후두둑... 떨어지는 내 눈물방울  
오랜 세월 가슴에 얼어들었던 그리움이  
이 순간 눈물로 녹아내리는듯

어느 하루 한시도 잊은적 없는 너 흙이다  
봄이면 젖살오른 부드러운 땅이  
내 몰아가는 트락포르 보습날에 어리광칠 때  
관개수 철철 넘쳐나는 벌에서  
분계선너머 용드레푸는 농군들의 모습을 볼 때  
내 한달음에 달려 못가는 안타까움으로  
그 얼마나 가슴찡던가!

말해다오, 흙이여, 고향의 흙이여!

네 정말 내 어머니 손마디 물리나도록  
거름주고 복을 주며 애써 가꾸던  
앞내벌 그 작은 터전의 흙이나 아닌가  
돈벌이로 떠나는 아버지를 눈물로 바래운

동구밖 오솔길- 그 달구지길의 흙이나 아닌가

지금은 그 어머니 아버지 아니계시다  
그렇게 갈망하던 고향땅을  
생시 단 한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지난해 어머니마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통일이 되는 날 꼭 고향에 가보라고  
깊은 유한을 남긴채...

오, 이렇게 떠나간 이들은 그 얼마던가  
칠혹같이 검은머리 백발이 되도록 다시 못갔으니  
고향의 흙이여, 너는 통일을 기다리며 40 여년  
세월-  
하루를 10 년 맞잡이로 흘러보낸  
그네들의 가슴속에 타고 탄 재가 아니었더냐!

내 다시 조용히 흙을 쫓아본다  
그러면 끝없는 흙의 이야기...  
아직도 이 흙 침략의 구두발밑에 있으니  
이 땅을 찾아달라!  
이 땅을 찾아달라!  
피타게 부르짖는 겨레의 목소리 들려오는듯

오, 내 손아귀에서 굳어지는 흙은  
그대로 가슴속에 장약되는 화약인가  
분노에 이글거리는 가슴은 금시 터질듯  
한줌의 흙이 아닌 통일된 삼천리강토를  
내 한품에 다 끌어안지 못하고서야

어찌 한순간인들  
이 가슴속에 타는 불길이 꺼질수 있으랴  
오, 흙이여, 고향의 흙이여!